

# MAXIM

KOREA

**UNBELIEVABLE**

사상초유 표지모델 폐기처분

## PANIC!!

얼굴 없는 맥심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최악의 커버화보 폐기 사태 풀 스토리 표지 모델을 대신한 맥심 에디터는 누구?

강유미와 안영미의 재발견

**FIGHT**

알리스타 오브레임  
도핑사건 전말

독점! 한국계 UFC 챔피언 BEN HENDERSON  
로드FC 007 집중 취재(를 빙자한 링걸 스페셜)

영원한 맥심걸

**JENNIFER  
LOVE HEWITT**

스승의 날 특집: DREAM TEACHER  
BEGINNING! 2012 MISS MAXIM CONTEST  
이달의 치어리더: 경성대 전지현

**MOTOR**

MINI 디젤 시승기: 미니의 정복 작전  
차 살 때 간과할 수 없는 여자들의 자동차 이야기

**SEX**

그녀는 당신을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

**PARTY**

라스베이거스 최고의 클럽 원정기

www.maximkorea.net



ISSN 2233-4270

2012년 5월호  
정가 5,600원

셰이빙가전의 名家

Panasonic  
ideas for life

스타일 없는 남자애겐  
눈길도 주지 않는다

면도기도  
마찬가지다



밀라노 디자인으로 스타일리시하게-  
파나소닉 Milano Sh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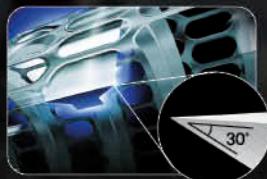
시각의 동물인 남자들은 겉모습과 스타일을  
먼저 보는 습성이 있다.  
그런 그들을 충족시킬 새로운 아이템-  
파나소닉 Milano Shaver  
디자인에 먼저 반하고 밀착력 있는  
셰이빙에 또 한 번 감탄할 것이다!



클리닝셔터로 망을 제거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세척 / 관리



Multi-fit Arc 망이 더욱  
깊은 밀착 면도 실현



30° 예각 Nano Edge날이  
향상된 절삭력 선사



파나소닉 종합 전시체험 판매장

🎁 Milano Shaver (ES-SL41) 런칭 기념 이벤트 (5, 6월) **밀라노로 면도하고 밀라노에 가자!**



**Panasonic Plaza**

파나소닉 플라자 대표번호 02-542-8452

선착순 2,0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 4,000장 증정 (파나소닉 홈페이지에서 정품 등록) 정품 등록자 중 추첨하여

- 1등 (1명): 이탈리아 밀라노 여행 5박 7일 (하나투어 여행 상품권 2장) / • 2등 (2명): 300만원 상당의 파나소닉 마사지 소파 2대
- 3등 (3명): 55만원 상당의 파나소닉 디지털 카메라 LX5 3대 / • 4등 (5명): 13만원 상당의 파나소닉 나노케어 헤어 드라이어 5대
- 5등 (10명): 12만원 상당의 파나소닉 구강 세정기 JET Washer 10대 / • 6등 (1,000명): 3만원 상당의 파나소닉 전동 칫솔 포켓돌츠 1,000대

• 헬니스 존 • 에스테 룸 • 루믹스 셀프 스튜디오 • 리빙 룸 • 시스템 존 **당신의 생활을 높여줄 놀라운 아이디어, 파나소닉 프라자를 경험하세요**

# CONTENTS

+ 106  
FEATURES

강유미  
안영미

“지금은 미미시대”  
세상에, 그녀들이 이렇게  
예뻐다니...

## 82 표지 화보 폐기 스토리

MAXIM 10년 역사 최초로 표지 화보가  
날아가버린 최악의 스토리

## 86 오브로이드

UFC 헤비급 몬스터 대전은  
오브레임의 약물 사태로 무산되는  
것인가?

## 90 스승의 날 특집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존경심 물씬 돋는 드림 티처를  
상상해 보았다.

## 98 최고의 짜장라면5

칼 같은 혀를 가진 라면 전문 리뷰어가  
짜장라면을 신랄하게 까고 비꼰다.  
결과는?

## 114 불량국가의 전략 무기

### 스커드 미사일

언제든 당신의 머리 위가 당침될  
수 있지.

## 116 제니퍼 러브 휴잇

전 세계 모든 남자들의 영원한 러브러브  
그녀의 은밀한 부위를 장식하는 이유는?

## 124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 MAXIM 에디터의

### 성인 컴퓨터방 체험기

간편만 보고 궁금했지? 그런 건  
우리가 대신 가준다니까.



# CONTENTS

## DEPARTMENTS



### 100 ICON BEN HENDERSON

우리 아리조나에서 한국계  
UFC 라이트급 챔피언  
벤 헨더슨을 만났다. 그리고 염치  
없이 저녁까지 얻어 먹고 돌아왔다.



에디터 목 5개 붙어오면  
용산님이 나온다던데

### 12 CIRCUS MAXIMUS

어떤 모터쇼가 가장 섹시해?, 죽은  
음식 살리기, 자위의 신세계, 파이터의  
복근 단련, 나혼아 화법, '경성대 전지현'  
치어리더 김연정, "신라는 신난대!"  
섹정 넘치는 화랑세기

### 30 STUFF

PS VITA vs. 닌텐도 DS  
섹시한 여름 휴가를 위한 시계  
최홍만보다 큰 초대형 아이폰독

### 40 MISS MAXIM

오래 기다렸다. 2012 미스 MAXIM  
첫 번째 후보 등장ियो!

### 43 RATED

〈어벤져스〉 고민 상담소,  
거울아, 거울아, 어떤 백설공주가  
예쁘냐?(땡 치면 뽀사버린다)

### 49 MUSIC

정바비는 오지은을 만났다.

### 52 LOVE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의외의 복병

### 56 SMOKE&DRINK

벨기에 맥주가 별나게 맛있는 이유

### 62 FIGHT

벤 헨더슨만 나오면 섭하지 로드FC 007  
대회 이모저모를 방자한 랭걸 구경!

### 66 GAME

삼국지 속 미모 최강자는?  
본격 모에 삼국지 〈진 연희몽상〉  
초단막 슈팅의 세계 〈별레공주 후타리〉  
학창 시절 돈는 〈투하트 디럭스 플러스〉

### 74 TRAVEL

김희성 에디터의 일본 탐방기 제2탄

### 76 MOTOR

미니를 타는 남자 & 여자들의 CAR TALK

### 128 CLUB

미국에서 제일 물 좋은 라스베가스  
클럽에 태극기 꽃고 물 좀 주고 왔다.

### 134 STYLE

강소라의 K-SWISS, 개운한 폼클렌징,  
서울패션위크 미모 종결자



# 최고의 품질을 위해 내 이름을 건다!

KT&G, 전세계 담배업계 최초 품질실명제 실시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제품 하나 하나에 이름을 새깁니다



ENTZ 타르 3.5mg / 니코틴 0.35mg

경고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스, 카드뮴이 들어 있습니다.

# BRAUN



## Simply time

브라운 | (주)거노코퍼레이션  
www.brauntime.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 www.eurotime.kr



# MAXIM

편집장 이영비  
yb@maximkorea.net

### EDITORIAL / 편집부

에디터 주임 김희성 alice@maximkorea.net  
주임 송종민 jm@maximkorea.net  
주임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유승민 sm@maximkorea.net  
사원 손안나 anna@maximkorea.net  
사원 이진영 jy@maximkorea.net  
사원 조웅재 wj@maximkorea.net  
사원 서현우 july@maximkorea.net  
사원 이영환 lyh@maximkorea.net  
객원 에디터 김대영 storm@maximkorea.net  
장바비 juliahart@maximkorea.net  
이용수 yong24@maximkorea.net

### DESIGN / 디자인

디자이너 사원 서윤정 yoon@maximkorea.net  
사원 신숙희 ssh@maximkorea.net  
사원 전은경 eun@maximkorea.net  
일러스트 주임 전영준 ziroqoo@maximkorea.net

###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팀장 김진욱 14k@maximkorea.net  
매니저 원정운 jw@maximkorea.net  
매니저 정진선 js@maximkorea.net

### FINANCE, GENERAL AFFAIR / 회계 총무

대리 최인영 joy@maximkorea.net  
사원 안진호 jh@maximkorea.net  
사원 장선영 sun0676@maximkorea.net

### WEB SERVICE / 웹

토크엔  
팀장 서정민 oreiss@town.com

### PHOTOGRAPHY /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

포토그래퍼 실장 정기수  
포토그래퍼 실장 김명석  
포토그래퍼 실장 박 울  
포토그래퍼 팀장 김도훈  
어시스턴트 오준섭

### CIRCULATION / 유통

송주출판유통  
대표 이용관

### PRINTING / 인쇄 원색분해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리 192-1 인쇄원 이현순

### 발행인 / CEO 유승민

이사 양지용 / 이사 원해진

www.maximkorea.net

광고/제휴 문의 partner@maximkorea.net  
070-4010-9043

구독 문의 joy@maximkorea.net  
02-323-1182



발행처 ㈜와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TEL. 02-323-1182 / FAX. 02-6455-0193  
2012년 5월호 통권 제25호 / 등록일자 2009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250

### ALPHA MEDIA GROUP

EXECUTIVE CHAIRMAN: Jack Kliger  
CHIEF OPERATING OFFICER & GENERAL COUNSEL:  
David Simcox  
CHIEF MARKETING OFFICER: Paul LaRocca

### MAXIM WORLDWIDE BRAND LICENSING

EXECUTIVE VICE PRESIDENT & INTERNATIONAL PUBLISHER:  
Linda Saint Marc  
DIRECTOR OF OPERATIONS: Pauline Lam  
INTERNATIONAL RIGHTS COORDINATOR: Jeff Whitacre



### MEDIA NETWORK EDITORS IN CHIEF

<b>ARGENTINA</b> German Pittelli	<b>CZECH REPUBLIC</b> Pavel Vondracek	<b>ITALY</b> Roberto Giacomini	<b>RUSSIA</b> Sasha Malenkov	<b>THAILAND</b> Sirote Petchjamroansuk
<b>AUSTRALIA</b> Santi Pintado	<b>GERMANY</b> Mike Bleibtreu	<b>MEXICO/LATIN AMERICA</b> André Félix Diaz Rojo	<b>SERBIA</b> Nebojsa Prijic	<b>UKRAINE</b> Sasha Malenkov
<b>BRAZIL</b> Sandro Aloisio	<b>INDIA</b> Vivek Pareek	<b>POLAND</b> Krzysztof Paplinski	<b>SOUTH KOREA</b> Young-Bee Lee	<b>UNITED KINGDOM</b> Stuart Messham
<b>BULGARIA</b> Hristo Zapryanov	<b>INDONESIA</b> Ronald Adrian Hutagalung	<b>PORTUGAL</b> João Espírito Santo Araújo	<b>SWITZERLAND</b> Boris Etter	<b>UNITED STATES</b> Dan Bova

MAXIM KOREA는 글로벌 남성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그룹은 한국의 (주)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주) Y Media는 국내에서 MAXIM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알파미디어 그룹, (주) Y Media 외에 어떤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나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Y Media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 2012 Alpha Media Publishing, Inc. The name "MAXIM" and the MAXIM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Alpha Media Group Inc., which trademarks have been licensed to Y Media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wned by Alpha Media Group Inc. All rights reserved. The United States edition of Maxim is published monthly by Alpha Media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7. For international publishing or licensing inquiries: maximworld@maxim.com



# Got MAXIM?



경고: 17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앱스토어에서만 그렇습니다. MAXIM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은 아니어도 내 가족, 이웃까지도 물들게 합니다. 아이패드용 MAXIM에는 중독성 물질인 풀동영상, 미공개컷, 독한농담, 우수암컷, 때깔기계, 교미사실, 독점비법, 거친수컷, 페인게임, 총질칼질, 프로운동, 새끈차량, 오토바이, 만취음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국내 유료 아이패드 매거진 중 매출순위가 부동의 1위인가 봅니다.

# LETTER FROM MAXIM

## 세상에 이런 일이

파란만장, 우여곡절 내가 참 싫어하는 말이다. 이번 달엔 우여곡절이 너무도 많았던 파란만장한 달이다. 힘든 달이 어디 이번 뿐이겠는가. 그래도 그간은 독자들에게 내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 달은 그럴 수가 없었다. 보시다시피 표지 모델이 없다. 아니, 있었는데 마감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다 만들어 둔 표지 화보를 쓰레기통으로 처넣어야 했다. 대충 짐작하겠지만 표지 모델이 될 뻔했던 어떤 이와 이런 저런 마찰과 불협화음이 있었다.

여러 해 전에 독자와 했던 약속이 발동됐다. 그때 내가 에디터였을 때, "만에 하나 표지 모델이 핑크 나면 화끈한 에디터 화보라도 찍을 테니 걱정 말라"는 내용이였다.

내가 현역이었던 시절 생각 없이 던져놓은 약속을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지켜낸 에디터들이 몹시 기특하고 고맙다. 몇몇 남자 에디터마저 "내가 표지에 나오겠노라"며 냄새 나는 털투성이 몸을 꺼려하기에 덕치라고 했다(이건 잘 한 일인 것 같다).

일련의 해프닝에 대해 구령이 담 넘어가듯 모른 척 넘어갈까 생각도 해 봤지만, MAXIM을 열렬히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가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다. 자세한 내용은 안에 실어줬다. 그래봐야 다 변명이다. 어쨌거나 애독자들에게 미안하고 간만에 정신이 확 드는 달이었다.

재미없는 페이지까지 정독하는 독자라면 최근 우리 MAXIM의 인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음을 눈치챈을 거다. 10명에 육박하는 젊은 피를 수혈했고, 하나같이 다들 바늘구멍 같은 입사경쟁을 뚫고 들어온 능력자들. 매년 우리가 주관하는 공채시험이지만, 해가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요즘 같아선 '내가 이 시험을 본다면 절대 못 붙겠구나'하는 확신(?)도 든다.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사소하다'라고 치부하게 된 작은 일들, 잡지 속 아주 조그만 글자 하나에도 옹광로 같은 열정을 쏟아 붓는 신입사원들과 함께 있자니 되려 내가 많은 걸 배우게 된다.

그리고 한때는 내 가슴속에도 불탔을, 잊고 있던 열정을 거울처럼 상기시킨다. 그래서 이 가능성으로 뚝뚝 뭉친 멋진 친구들의 재능을 여러분 앞에 하루빨리 보여주고 싶다.

아, 참고로 요즘 케이블 E채널에서 방영 중인 <사심연구소>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에디터들이 출연한다. 그 중에 신입이 끼었으니 이미 일부 보여줘버렸군. (재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밝히는 사심부터 보여드려 면목이 없다.) 물론 아직 남은 인턴 기간 몇 달이라는 기나긴 고생길이 남아있지만, 더 담금질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MAXIM을 통해 여러분과 오래도록 만나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당장 더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작해야겠지.

'내일부터 내네 줄라 갈굴 가야' 라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풀었다.

그럼 파란만장하게 내놓은 MAXIM 5월호, 출발합니다! (배철수 같아? 배철수 같아?)

살다보니  
별 일이 다 있네



2012년 5월 편집장 이영희



# ESSENTIAL GEAR.

Invented in the United States. Made in Switzerland. [www.luminox.com](http://www.luminox.com)

The Luminox Steel Colormark No. 3152: 44 mm, stainless steel brushed molded case, crown protection, unidirectional ratcheting bezel, tempered scratch resistant mineral crystal, carbon reinforced case back, stainless steel bracelet, 200 meters water resistant, Luminox self-powered illumination. Swiss Made. Preferred timepiece of U.S. Navy SEALs.



**ALWAYS VISIBLE**  
Constant Glow for up to 25 Years.

### 루미녹스 판매처

공식수입원 및 서비스 센터 밀리시계(주) (02)757-9866, A/S센터직통 (02)735-9880, [www.milimwatch.co.kr](http://www.milimwatch.co.kr)

직영점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미림시계) 02-772-3181 /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미림시계) 02-2143-1920 / 롯데백화점 입산점 1층(미림시계) 031-909-3181 / 롯데백화점 대구점 1층(미림시계) 053-660-3122 / 롯데백화점 이시아폴리스점 1층(미림시계) 053-945-2536 / 롯데백화점 부산광역시점 1층(미림시계) 051-678-4039  
특약점 강변 테크노마트 1층(TM시계백화점) 02-3424-0793 /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1층(TM시계백화점) 02-2111-1120 / 강변 테크노마트 7층(타임2) 02-3424-7073 / 동대문 오케이아웃도어닷컴 1588-8796 / 종로 YMCA 1층(타임존) 02-737-3627 / 종로 중앙상가10층(노블워치) 02-745-8789 / 동대문 두산타워 5층(매션점) 02-3398-7527 / 성내동(다이버스몰) 02-565-9897 / 상계동 하이델방상가 A동(드라시계) 02-971-5334 / 종로 세운스퀘어 1층(정우상사) 02-2272-2688 / 이화여대(명동점) 02-771-7033 / 이화여대(충무점) 02-737-7033 / 종로 피카디리 플러스1층(정신사) 02-741-9678 / 삼성동 코엑스몰(탑워치) 02-2051-6244 /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 2층(사모) 02-2118-8075 / 대현동 APM쇼핑몰 1층(타임시계) 02-6373-7743 / 잠실 롯데월드 벨리센터 1층(제네바) 02-419-5622 / 남정동 송레온지하2층(프로워치) 02-779-6964 / 고양 일산동(M&R) 031-976-1644 / 안양 안양동(시계상자) 031-441-0158 / 안양 안양동(보석상자) 031-466-1014 / 부천 심곡동(북북) 032-662-2026 / 고양 장항동(타임24) 031-931-5555 / 성남 정자동(스포츠빅텐) 031-710-1260 / 수원 그랜드백화점 1층(텐어클락) 031-201-7100 / 안산 교잔동(타임루트) 031-487-9057 / 인천 롯데백화점 지하2층(제네바) 032-450-3866 / 인천 홈플러스 가좌점 2층(스위스) 032-578-2002 / 대전 세이브존 1층(타임러치) 042-482-2328 / 대전 롯데백화점 2층(탑워치) 042-601-2284 / 이마트 대전터미널점 4층(스포츠빅텐) 042-615-1234 / 대구 삼덕동(엘가시계) 053-255-6940 / 천안 신부동(알파&오메가) 041-564-5465 / 청주 가경동(보보 스위치) 043-235-1510 / 전주 롯데백화점 5층(세광명) 063-289-3592 / 전주 세이브존 1층(예진시계) 063-287-2325 / 광주 첨단롯데마트(원남상사) 062-971-8523 / 포항 벨류플러스(조아젤) 054-613-1170 / 이마트 동구미점 2층(스포츠빅텐) 054-480-1234 / 진해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5-542-8521 / 창원 롯데마트 1층(원남상사) 055-555-8521 / 부산 광복동(국제시계) 051-245-1230 / 부산 해운대(리브워치) 051-746-6112



# Letters



주시오. 그 비법으로 여친이 생긴다면 다음 달 MAXIM 화보를 공짜로 찍어 주겠소. 남자 달려라 하니, 모바일 사연

**여자들은 본디 포토그래퍼처럼 있어 보이는 직업에 끌리는 법이오(아님 말고).** 아빨은 면전에서 현장감 있게 털어야 그 효과가 직빵이오. 카톡과 전화는 호감을 사는 용도로 사용할 게 아니라 약속을 잡는 용도로만 사용하시오. 쓸데없는 데 진 빼지 말고 그녀와 마주하여 부디 수컷의 기상을 펼쳐 시킬 바라오.

**여유증 소신 발언**  
MAXIM을 보는 제 앞에서 선임이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유방이 유달리 크길래 MAXIM에 소개된 여성형 유방증이 아니며 상담 좀 받아보라는 말을 돌려서 했습니다. "XXX 수경님. 너무 큼니다. 여자 젖 같습니다." 말하고 나서 크게 혼났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선임이 충격을 받아서 어서 빨리 단단한 가슴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르자, e-mail 사연  
**뭘 돌려 말했다는 겁니까?** 사내에게 여자 '젖' 같다는 표현을 쓰다니, 그 선임이 받았을 상처가 여기 서교동 편집부까지 전해집니다. XXX 수경님, 여성형 유방증이 있다고 해서 생명이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자도 못 만나고 섹스도 못할 거고, 게다가 가슴이 유난히 발달한 탓에 드물게는 유방암 같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을 뿐입니다. 힘내세요.(완곡한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내기 고민**  
이제 대학에 갓 입학한 1학년 새내기라오. 어느덧 MAXIM과 사랑에 빠진 지 1년이 다 되었소. 작년 이맘때쯤 기숙 학원에서 재수 생활을 하고 있던 내 앞에서 친구 녀이 꺼내든 것이 바로 MAXIM이였소. 젊은 혈기의 사내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소. 그렇게 계속해서 MAXIM을 한 권, 두 권 사모았소. 이제 대학 생활에 적응 할 때쯤 되니 폭풍 과제에 잠잘 시간을 내기조차 버겁소. 에디터 양반, 이런 나에게 힘이 되도록 기 한 번 불러넣어 주겠소?

지스팟트라이트, 모바일 사연  
**레드불, 핫식스보다 69,696,969배 강력한 파워 현아씨라면 아마 원기충전에 도움이 될 거오.** 더불어 폭풍 과제 말고 폭풍 스에 잠 못 드는 날이 많아지길 MAXIM에서 기원하겠소.

**당첨** **간호사가 고픈 계절**  
지금까지 MAXIM을 6년간 구독한 애독자요. 지금 발을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오. 뱃꽃이 만개하는 꿀 타이밍에 말이오. 한 달을 입원해 있으니 지금 내 상태는 마치 아생의 굶주린 한 마리 늑대가 따로 없소. 간호사들이 예쁘면 보는 맛이라도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열심히 간호만 받았소. 그러던 어느 날, 봄이 오는 걸 온 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천사 같은 인턴 간호사를 한 명 보았소. 내 심장이 하루하루 그녀를 원하고 있소. 어찌해야 하오?  
308호, 모바일 사연  
**그녀는 지금 낯선 병원 생활에 심신이 지쳐 있을 확률이 높소.** 상사한테 깨지고 환자에게 치여서 유독 그녀가 힘들어 보이는 날, 그때를 노리는 거오. 진심을 담아 이

- ▶ **렇게 고백하시오.** "내 마음에 반코마이신 향생제를 투여해주세요. 사랑합니다."
- ▶ **곽한구** 내 마음에 외제차를 주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 ▶ **강용석** 내 마음에 고소장을 접수해주세요. 사랑합니다.
- ▶ **발로벨리** 내 마음에 착한 마음을 심어주세요. 사랑합니다.

**관심녀를 애인으로 만드는 비법**  
올해 계란 한 판 된 남자 사람이오. 본업은 포토그래퍼고 취미도 사진 찍기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소. 바로 여자친구가 없다는 것이오. 맘에 드는 친구를 만나면 어찌어찌해서 번호를 받고 카톡과 전화로 호감을 산다 싶어도 그게 끝이오. 더 발전이 없소. 관심녀를 애인으로 만드는 비법 좀 전수해

308호 환자님,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주부 보디빌더 이현아 씨>

From SEIKO WATCH CORPORATION  
www.albawatch.co.kr

ALBA  
POSITIVE & SMART



totally timeless trend...

Let it just be brilliant



### 화끈한 화이트 데이

종로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열심히 밥벌이 하는 스물일곱 살 신입사원이요, 나에겐 2년 정도 사귀어 여자친구가 있소. MAXIM에서 여자친구에게 비싼 사탕 대신 플러스 알파를 담아 선물하라는 기사를 읽었소. '데이' 같은 거 안 챙기긴 하지만 이번에 특별히 화장품 세트를 사줬소. 요새 조금 소원해지는 감이 있었는데, 덕분에 화끈한 '화이트데이'를 보냈소. 고맙고 또 고맙소. 답례를 할 게 딱히 없어서 아이폰에 MAXIM 앱을 정기구독하였소.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고민규, e-mail 사연

아 그래서 여친이 있으시다? 부럽소. 화이트고 뭐고 화끈한 데이를 보냈다? 두 번 부럽소. 설마 낮부터 밤까지 화끈했던 거요? 사보 그랬다면 세 번 부러워하겠소. 게다가 MAXIM 앱까지 정기구독했으니 이



부러워 죽겠어요.

제 당신의 매일매일이 화끈하다 못해 아주 후끈해질거요.

### 베이글녀의 남자

얼마 전 채팅에서 완벽한 베이글녀를 만나게 되었소. C컵 승가를 가진 그녀와 으쓱한 대화를 속삭이며 꿈같은 나날을 보내던 중, 최근 갑자기 그녀와 연락이 끊긴 거요. 너무나 당황한 본인은 분노를 식이며 카톡

을 켜는데, 프로필에 왜 범생이 같은 남자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요. 이게 어찌된 일이요? 내가 그 찌질한 녀석보다 별로란 말이요?

비송, e-mail 사연

### 채팅으로 흥한 자 채팅으로 망한다는 소리 들어봤소?

아마 그 범생이 또한 당신이 그랬듯 세 치 손가락을 눌러 그녀를 흥렸을 가능성이 농후하오. 허나 기다려보시오. 보아하니 그 범생이 사진이 휴지통으로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소. C컵 승가를 가진 베이글녀를 주변 늑대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잖소. 그 혼란스러운 틈을 노려 그녀를 꼭 정복하길 바라오.(그리고 편지부 메일로 그 채팅 사이트 주소 좀 보내주세요. 우리도 베이글 반죽 좀 해보게)

사귀자고 해봐. 호호호



### MAXIM 독자 조공



MAXIM의 방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방문하신 많은 분 중에서 특히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출연히 강림하시 XBOX 게임 CD 세 장을 투척하고 가신 한 독자님, 사랑합니다(완전 캐미남). 이제 누가 키넥트만 투척 해주시면 되겠네요, 잇힝.

### - MAXIM 홈페이지 새단장 -

www.maximkorea.net이 새롭게 단장했다. 수컷이라면 환장할만한 DIGITAL, MOTOR, TOY, STYLE, GAME 등 다양한 콘텐츠를 노모 플 버전으로 제공한다. 뭐 하고 있나? 어서 접속해 보라나개!



### 독자 사연 응모

▶우편 접수: (121-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방문 접수: MAXIM을 만드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궁금한가? MAXIM은 독자의 방문을 쌍수 들고 환영한다. 풀지 말고 직접 와서 확인하시라. 컴은컴은!

### 이번 달 독자 사연 선물은 삼국전의 진

조운 건담+비영성 프라모델이다.

빛깔은 작렬적이고 암수 서로 정다운데 당신은 지금 외롭다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한 피스 한 피스 조립해보시라. 완성됐을 때 즈음 드디어 여자친구가... 안 생겨요.



# Ingersoll®

SINCE 1892

FINE AUTOMATIC TIMEPIECES



## Ingersoll History



established in 1892

1896

1910

1920

1935

1950's

1971

1989

now

잉거솔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konocorp.com](http://www.konocorp.com) | [www.ingersoll.kr](http://www.ingersoll.kr) | 02.3397.7100 | 공식쇼핑몰 유로타임 [www.eurotime.kr](http://www.eurotime.kr)



[면세점] 제주중문면세점 (064-780-7671)

[백화점] 롯데백화점 노원 (02-950-2164) / 잠실 (02-2143-1922) / 진주 (063-289-3191) / 대구 (053-423-1234) / 청주 (043-219-9108) **신세계백화점** 인천 (032-430-1486) / 광주 (062-360-1291) / 천안 (041-640-5081)

AK PLAZA 수원 (031-240-2199) / 분당 (031-781-8194) / 평택 (031-646-6139) / 구로 (02-839-5128) / 원주 (033-811-5535)

[판매처] 서울(02) 현대아이파크 해피타운 (2012-0625) / 외와치 (537-8977) / 전진상사 (764-4716) / 타임기드 (324-6272) / 타임머신 (6388-2927) / 타임사모 (6373-7743) / 타임21 (3424-7063) / 타임월드 (3132-4108) / 패션존 (3398-7527) / 프로워치 (779-6964)  
경기(031) 시계상자 (441-0158) / 사른주얼리 (463-9788) / 유빈 (658-6883) / 타임루트 (487-9057) / 타임24 (931-5555) / 디파니 (441-0158) **경기(032)** 대성 (325-7467) / 행기동 (662-0686) / 카시오모유 (502-7138) **광주(062)** 타임엔젤포 (222-3114) / 타임패티 (226-0305) / 골드대니얼 (410-0138) **충주** 보보스워치 (010-5494-9915) **대구(053)** 광주나라 (256-0975) / 골드&워치 (424-4442) / 그리니치 (255-6165) / 대백프라자 (254-3977) / 레프 (425-0157) / 신세계몰스텍 (566-3316) / 주얼리아 (428-2668) / 페티타임 (428-3086) **부산(051)** 명성시계-광복 (258-5315) / 명성시계-남포 (253-5334) / 명성시계-서면 (667-7358) / 명성시계-신창 (253-5354) / 월드타임 (245-8359)

# CIRCUS M



## 남과 여

달라도 너무 다르네 그려.  
BY 박한빛누리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전은경

**거울 볼 때** 여자는 거울 볼 때 자신이 살찐다고 생각.

남자는 운동 1분만 해도 거울 보면서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



### 단점 보완

여자의 보형물은 벗기기 전까지 구분하기 어려움.



남자는 깔창을 깔면 몸이 앞으로 기울면서 신발 발등이 승천함.



**최대 고민** 여자는 "카톡 배경과 문구를 뭐라고 하지?"

남자는 "게임 캐릭터의 이름을 뭐라고 짓지?"



**공에 맞았을 때** 여자가 공에 맞으면 괜찮냐고 걱정해줌.

남자가 공에 맞으면 그것도 못 피하느냐며 병신이라고 데굴데굴 굴리라며 비웃음.



# A X IMUS

A Maxim  
View  
of the  
World

**생일** 여자의 생일은 각종 선물을 교환하고 분위기 좋은 바에서 싸이월드 업로드용 사진 촬영.



**남자의 생일** 가까운 아무 술집에서 죽지 않을 정도로 마시고 죽지 않을 정도로 맞는 날.



**잠자기 전**

여자는 아수로 변하는 세안을 마친 뒤 토너, 앰플 에센스, 수분 에센스, 아이 크림, 로션, 영양 크림을 바른 뒤 취침.



**시선** 여자는 서로 안 보는 듯하면서 상대방의 성형 유무, 패션 등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



**남자는** 서로 스캔하지 않음. 지나가는 여자의 외모와 몸매를 보는 데 시신경을 집중.



**싸움** 여자는 한 번 싸우면 몇 년이고 생각.



**남자는** 싸우고 곧바로 화해.



10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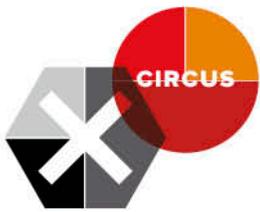


10분 후...



**남자는** 모두가 잠든 시간. 하루를 마무리 짓는 자기 위로의 시간을 가진 뒤 취침.





# 모터쇼에서 생긴 일

부산 국제 모터쇼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차에 관심이 없다고? 상관없다. 모터쇼에서는 차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BY 김희성 DESIGN 신숙희



## 1. 초유의 숨가 노출 사태 타이완 모터쇼

타이완 모터쇼에서 펼쳐진 배려심 넘치는 이벤트 '동전을 찾아라'. 거품 욕조 바닥에 숨어 있는 동전을 먼저 줍는 비키니녀가 12만 원짜리 목걸이를 차지하게 되는 거다. 안그래도 미고딩한 좁은 욕조에서 7명이 부대끼느라 비키니가 흘러내리고 난리도 아닌데 한 모델이 다른 모델의 비키니 끈을 풀어버려 만천하에 가슴이 공개됐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동전 찾기에 몰두, 1등은 상품을 타갔다.



## 2. 눈 감고 체리 먹기 타이완 모터쇼

마찬가지로 타이완 모터쇼에서 생긴 일. 전체 관람가인 모터쇼에서 또 19금 이벤트를 마련한 것. 눈 감고 체리 먹기랑 모터쇼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엄마 손잡고 온 꼬맹이들이 이 무리한 광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현장에 있던 어른들이 당혹스러워 했다고.



## 3. 짝퉁카의 위업 상하이 모터쇼

엄청난 스케일로도 유명한 상하이 모터쇼에선 온갖 짝퉁카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스마트부터 허머까지 브랜드, 크기를 따지지 않고 견고하게 베낀 짝퉁카들을 보면 허를 내두를 수 밖에 없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진정한 건 레이싱 모델 뿐인가?

### GEELY GE(롤스로이스 팬텀 짝퉁)



급기아는 롤스로이스 팬텀 짝퉁이라는 대작을 탄생시켰다. 법정 소송을 위해 자문을 구하고 있는 롤스로이스사에게 질리사는 이렇게 말했다. "롤스로이스의 클래식한 스타일을 재창조한 것 뿐, 뒷좌석의 시트가 하나뿐이라는 걸 보면 다른 모델이란 걸 알 수 있다."

## 4. 보배드림배 용인모터쇼 용인 에버랜드 주차장

벤틀리 아르나지, 플라잉스퍼, 벤츠 S550 등을 자신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동차 쇼핑몰 보배드림 게시판에 등장했다. 때는 2011년 4월 27일, 그는 자신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는 댓글에 뺨쳤던 건지 자신의 차를 인증하겠다고며 급 정모를 제안했다. 막상 일이 커지자 그는 약속 1시간 전에 정모를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수많은 커뮤니티 회원들은 정모 장소로 지목된 용인 에버랜드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다. 에버랜드 주차장을 매운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들의 고급 차량들로 의도치 않게 그들만의 모터쇼가 연출됐다고. 이 사건은 '용인 모터쇼'로 회자되고 있다.



### 리판기차 리판320 (BMW 미니쿠퍼 짝퉁)

도로 한 복판에서 진짜 미니랑 마주쳐도 구분 못할 정도로 똑같다. 대륙의 디테일이란.



### 동풍기차 맹사(허머 H1 짝퉁)

중국 회사가 결국 미국 GM의 허머를 인수하려고 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거야.



# LAYERED UP &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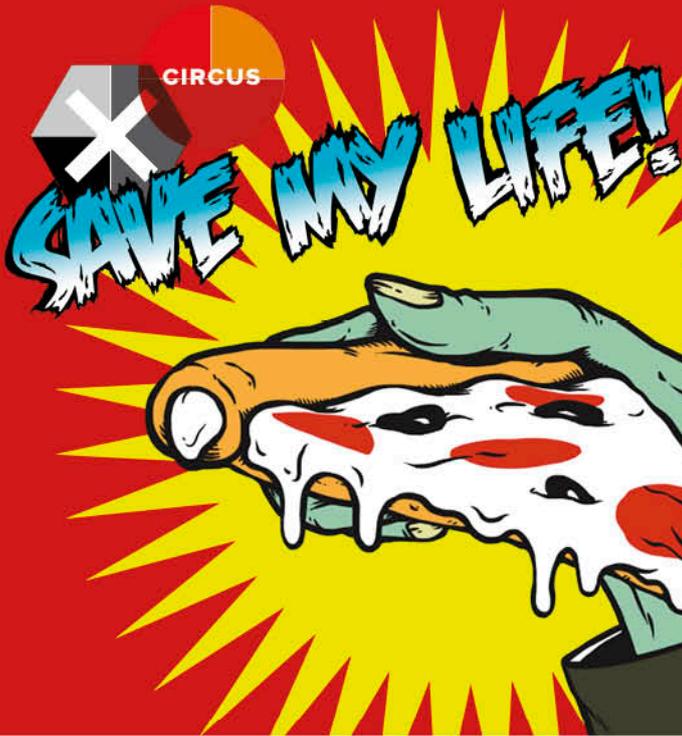


대니시디자인 | (주)거노코퍼레이션 | [www.danishdesign.co.kr](http://www.danishdesign.co.kr) | 02.3397.7100 공식쇼핑몰 유포타임 [www.eurotime.kr](http://www.eurotime.kr)

[연 세 령] 제주중문면세점 (064-780-7671)

[백 화 점] 롯데백화점 잠실 (02-2143-1922) / 진주 (063-289-3191) / 대구 (053-423-1234) / 청주 (043-219-9108) 신세계백화점 천안 (041-640-5081) AK PLAZA 수원 (031-240-2199) NC백화점 김서 (02-2667-8508) / 아담 (031-701-6841) 뉴코아백화점  
일산 (031-900-5162) / 울산 (052-210-4010) 2001아울렛 중계(02-3399-8222) / 분당(031-786-1808) 세이백화점 대전 (042-257-7745) 이마트 자양 (02-455-6841)

[판 매 처] 서울(02) 이와치 명품 (771-7033) / 이와치 총루 (722-1673) / 타임머신 (6388-2927) / 패션존 (3398-7527) / 워치북 (070-4136-5090) / 드와치 (2200-1355) / 사도 (463-9788) / 정우상사 (3424-0794) / 타임21 (3424-7063) / 타임가든 (324-6272) / 타임사모 (8373-7743) / 타임월드 (3132-4108) 경기(031) 사본주얼리 (463-9788) / 유반 (658-8883) / 타임루트 (487-9057) / 티피니 (441-0158) / 탐타임 (413-7656) 경기(032) 대상 (325-7467) / 행개롱 (662-0688) / 카시오프유 (502-7138) 광주(062) 타임앤벨트 (222-3114) / 타임퍼티 (228-0305) / 골드메니아 (410-0138) 청주 보브스워치 (010-5494-5915) 대구(053) 금주나라 (256-0975) / 골드오워치 (424-4442) / 레프 (425-0157) / 스위스 (639-5252) / 신세계몰스텍 (566-3316) / 주일리아 (428-2668) / 해피타임 (428-3086) 부산(051) 명성시계-광복 (258-5315) / 명성시계-남포 (253-5334) / 명성시계-서면 (667-7356) / 명성시계-산정 (253-5354) / 서울시계 (245-0625) / 왓샘 (919-4704) / 월드타임 (245-8359)



# 자취생을 위한 죽은 음식 되살리는 법

죽은 자식 고추  
만지는  
심정이랄까...



자취생에게 익숙한 세 가지는 바로 식은 음식, 곰팡이 핀 음식, 남아서 버리는 음식. 나름 자취 경력이 뼈방한 에디터가 폐기 처분 직전의 음식을 부활시키는 초간단 비법을 전수하겠다.

BY 김희성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전은경

😊 장점 ☹️ 단점 ⚡️ 소생법

## 폐기 대상 식은 카레

- 😊 솜씨가 없어도 웬만하면 맛없기 어려운 요리. 게다가 한번 만들어놓으면 2~3일 밥반찬으로 거든 하기 때문에 자취생에게는 최고의 저비용, 고효율 요리. 단칸방에서 인도를 맞볼 수 있다.
- ☹️ 다시 데워 먹다 보면 피 같은 카레의 양이 줄어들고 알싸한 맛도 점점 사라진다. 그렇다고 물을 조금 부어서 데우면 심겁다.
- ⚡️ 물 대신 먹다 남은 우유를 약간 넣어서 데운다. 카레 특유의 맛이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더 고소해진다.

## 폐기 대상 시든 채소

- 😊 라면과 삼각김밥만으로는 미네랄, 비타민 섭취가 부족한 자취생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
- ☹️ 비싸다. 한번에 다 먹기도 힘들다. 다음에 먹으려고 냉장고에 보관했다 꺼내면 시들어 그냥 버리기 일쑤.
- ⚡️ 얼음물에 담갔다 건진다. 더 확실한 방법으로, 설장 한두 스푼과 식초를 약간 푼 물에 5분 정도 시든 채소를 담갔다 꺼내면 삼투압 작용으로 채소가 수분을 머금어 생기를 띠겠지만... 귀찮아서 절대 안 하겠지.

## 폐기 대상 딱딱하게 굳은 식빵

- 😊 식빵에 계란만 있으면 황제의 찬 부럽지 않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냥 우유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빵만 먹어도 맛있다. 싸고 양도 많아 자취생에게 사랑받는 아이템.
- ☹️ 식빵이 금세 단단해(?)진다.
- ⚡️ 굳은 식빵을 새 식빵 사이에 끼워두면 촉촉한 빵에 있던 수분이 굳은 빵으로 이동해 다시 부드러워진다. 수분은 평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 피스!

## 폐기 대상 눅눅해진 과자

- 😊 게으름 지수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한 끼 때우기에 딱.
- ☹️ 어설픈 배부르기 심상이다. 과자로 헛배 부른 상태에서 갑자기 누가 고기를 사준다고 할 때 왠지 억울한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경험. 다들 있지?
- ⚡️ 눅눅해진 과자를 그릇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1, 2분 정도 돌리면 다시 바삭바삭해진다. 단, 봉지째 돌렸다면 남의 집 홀리당 다 태워 먹어 보증금 까일 수 있으니 조심할 것.

## 폐기 대상 먹다 남은 소주

- 😊 밖에서 마시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 아아, 집에서 술 퍼마시다가 잠드는 건 예로부터 자취생 최대의 즐거움이자 특권이자 로망 아니겠는가!
- ☹️ 꼭 한 눈미 남은 소주를 바닥에 쏟아 이불을 적 시고야 만다.
- ⚡️ 진탕 마신 다음 날엔 소주병만 들여다봐도 할 것 같을 테니 다른 방법으로 화려하게 부활시켜 보자. 먹다 남은 소주의 뚜껑을 열어 냉장고에 넣어둔다. 소주의 알코올이 냉장고의 잡 냄새를 싹 제거한다.

## 폐기 대상 식은 피자

- 😊 먹고 남은 피자는 자취생에게 몰아주는 풍습(?)이 언제가부터 생겨났다. 가져올 땐 귀찮아도 막상 집에 놔두면 다음 날 일어나서 엄청 맛있게 먹어 치우게 된다.
- ☹️ 한 판을 시키면 꼭 남는다. 배달 음식은 자취생이 제일 많이 시켜먹는데 왜 사이즈는 죄다 2인용 이상이나고! 피자 때문에 동거라도 해야 쓰겠는개!
- ⚡️ 프라이팬에 식은 피자를 올려 놓고 그 위에 냄비 뚜껑을 덮는다. 약간 불로 데운다. 아래쪽은 바삭하게 구워지고 치즈는 먹음직스럽게 녹아 원상태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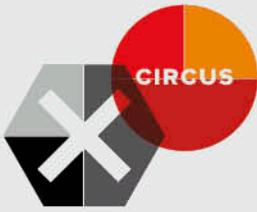
# NEW ERA

## 2012 NBA CAPS IN NBA STORES NOW

FLY YOUR OWN FLAG™



NEW ERA CAP KOREA 070.4411.5950  
[www.nbastyle.co.kr](http://www.nbastyl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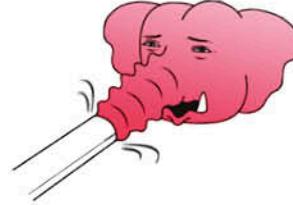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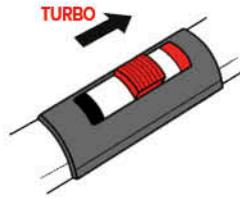
# 자신을 위로하는 색다른 법

오른손이 코끼리를 어루만지던 시대는 지났다.  
영장류는 머리를 쓸 줄 아는 법이다. BY 박한빛누리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서운정



## 진공청소기네스 펠트로

1. 청소기의 앞부분(먼지 빨아들이는 곳)을 빼고, 구멍에 자신의 코끼리를 넣는다.
2. 청소기를 '최대' 또는 '강'으로 올린다.
3. 바람을 느끼며 자유를 만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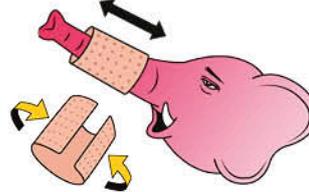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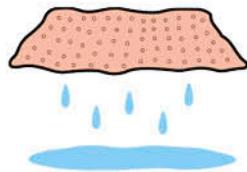


✗ 진공청소기를 이용하는 도중 119에 실려가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용할 독자는 꼭 콘돔을 착용하거나 청소기 입구를 깨끗하게 씻은 뒤 사용할 것.

황홀 게이지 😄

## 파스칼렛 요한슨

1. 쓰던 파스를 2~3시간 동안 따뜻한 물에 담가 불린다.
2. 파스가 불면 물기를 뺀다.
3. 코끼리를 감싼다. 위아래로 흔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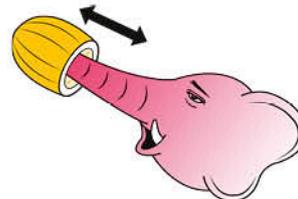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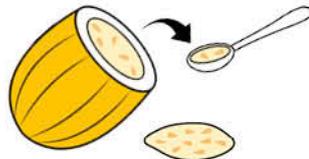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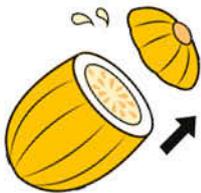


✗ 흥분했다고 파스를 물에 불리는 시간을 단축하면 코끼리가 매우 뜨거워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황홀 게이지 😄😄😄😄

## 호시노 참외

1. 참외의 끝 부분을 자른다.
2. 티스푼으로 자신의 코끼리보다 작은 구멍이 생기도록 최소한의 양을 파낸다.
3. 코끼리를 넣고, 위아래로 흔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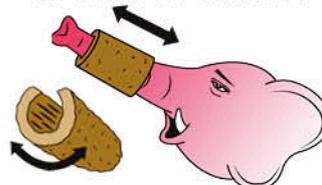


✗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이 선택한 베스트 셀러. 요즘은 참외 가격이 비싸서, 된장남들의 위로 방법 대열에 합류했다.

황홀 게이지 😄😄

## 줄리아 곤약

1. 곤약을 뜨거운 물에 불린다.
2. 곤약에 약간의 칼집을 낸다. 칼집이 촘촘할수록 더욱 HOT함을 느낄 수 있다.
3. 둥글게 만든다. 김밥 마는 도구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마음껏 흔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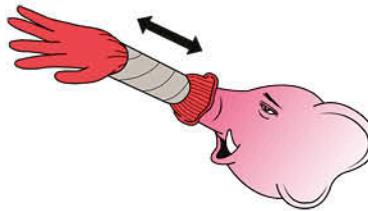
✗ 곤약을 이용한 요리가 많은 일본에서 넘어온 방법. 성진국인 일본인의 안목을 믿는다면 GO!

황홀 게이지 😄😄😄

## 아오이 휴지심&고무장갑

BEST OF BEST

1. 고무장갑을 뜨거운 물에 데운 뒤, 휴지심에 끼워 넣는다.
2. 안에 로션을 발라준다.
3. 마음껏 흔든다.



✗ 고객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는 최대의 발명품. 온도, 촉감, 피팅감을 모두 갖춘 맞춤 정장 같은 녀석.

황홀 게이지 😄😄😄😄😄

160회 대장정의 마지막 감동, 뮤지컬 닥터지바고!  
6월 3일,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지금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찬란한 '마지막' 감동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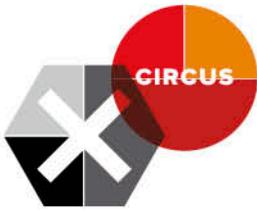


최고의 배우·완벽한 무대를 위한 **마지막** 선택!  
**6월 3일까지 사롯데시어터**

출연 조승우 홍광호 김지우 전미도 최현주 강필석 서영주 김봉환 임선애 외

스캔하고  
닥터 지바고  
티켓 받기!





# FITNESS 파이터의 복근 단련

가냘픈 그녀의 주먹이 화가 나면 어찌나 맵던지(통배권을 배웠다!) 복부를 관통하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MMA 파이터 김석모 선수에게 복근 단련법을 문의했다.

PHOTOGRAPH ARC STUDIO COOPERATION 팀포스(www.teamforce.kr) DESIGN 신숙희

▶ 남자라면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장조림 고기보다 탄탄한 배를 가져보아야 하지 않겠나!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이 간단한 운동은 공을 던지면서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복부의 탄력과 근력을 길러준다.

준비: 1~5kg가량의 공, 할 일 없는 친구 놈



1

무릎을 벌리고 다리를 자연스럽게 굽혀 바닥에 앉는다. 다리가 불편하면 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공은 1~5kg이 적당하다. 공이 너무 무거우면 잡기가 어렵다.



2

친구가 던진 공을 양손으로 받는다. 아찔해서 친구가 던진 공이 당신 손이 아니라 대가리나 거시기를 조준해 날아오나? 근데 친구가 웃고 있다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3

공을 받으며 등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상체를 뒤로 젖혔다가 튕기듯 바닥에서 90° 각도로 올라오면서 친구에게 패스한다. 상체를 일으키며 공을 던질 때 순간적으로 호흡을 참고 복부에 힘을 줄수록 복근 단련에 도움이 된다.



4

파트너는 당신이 상체를 세우자마자 바로 공을 패스해 당신을 눕히고, 당신은 등이 바닥에 닿자마자 몸을 일으켜야 한다. 쉬는 시간은 없어!

## 주의사항

### 1. 까불지 마라

“공을 던지고 받을 때 잘못 놓치면 강생이 다 탈릴 수 있다”는 게 김석모 선수의 조언이다.

### 2. 시킨 대로 좀 해라

공 이외의 다른 물건은 안 된다. 예를 들어 비슷한 무게의 아령이나, 특히 엄청나게 두꺼운 타 남성 집지는 더욱 위험해! 일지?

### 3. 허리도 챙겨라

복근 운동을 하는데 허리가 아프면 당신의 허리 근력이 너무 약해서일지 모른다. “복근 운동과 더불어 허리 운동은 필수다!”라고 김석모 선수는 말한다.

## 공 던져줄 친구가 없어?

쫄쫄... 차라리 벽을 사귀어라



말은 귀시마, 웃말라...

친구 없는 당신은 벽을 마주보고 공을 던져 튕겨 나오는 공을 받으면서 복근을 단련할 수도 있다. 공 던지는 방향이나 힘 조절에 더욱 주의해야겠지. 병연안 을 친구도 없는데 말이야.



## 사비 이걸 입에?

설탕 생수에서 인육 만두까지! 들으면 입맛 뚝 떨어지는 체중 감량 음식 뉴스

### 달콤한 나의 인생



온라인에서 '음료수에 들어간 당분의 양'을 실제 설탕으로 비교해놓은 사진이 화제였다. “내가 차마시는 걸 다시 생각해봐!”라고 적힌 문구와 함께 올라온 이 사진의 주인공은, 설탕을 담은 비닐백이 터질 듯 뽕뽕한 레드불과 마운틴듀. 안 그래도 원자력 폐기물을 연상시키는 그 누르스름한 색소가 맘에 안 들었어.

### 쓰레기도 남남

중국은 역시 상상 그 이상이다. 얼마 전 공업용 폐기물에서 뽑은 젤라틴으로 약용 캡슐을 만든 중국 내 공장 지역이 적발됐다. 여기서 중국 내 캡슐 약의 3분의 1을 생산한다니 중국인치고 자기가 버린 가죽 벨트와 신발을 안 먹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참고로 이를 장기간 섭취하면 간과 신장 손상과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중국 중앙병생국국의 설명.

나도 먹어봐



### 뭘 그리 놀래?

이게 처음이 아니다. 대륙인들은 전에도 쓰레기 가죽 젤라틴에 댄 적이 있다. 2004년 신동 성, 허베이 성, 원자우 사에서 폐기물로 젤라틴을 만들다 적발됐고, 2009년엔 이를 식용으로 쓴 농물이 잡혔으며, 2011년엔 '가족 우유' 파동이 일어났다. 이미 당신도 지난 화이트데이애 그녀에게 한 움큼 받아서 좋다고 처음 처음했을 거야.

너, 중국산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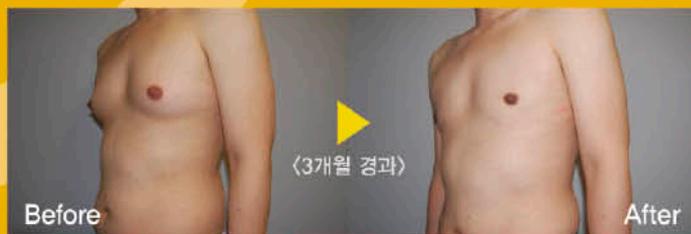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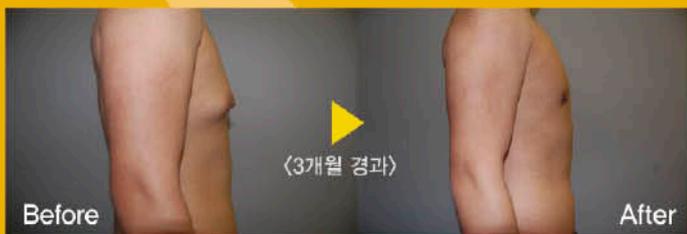


### 브라질리안 인육 만두

지난 12일 브라질에서 3명의 개싸이코들이 여자 2명을 죽인 뒤 인육을 먹고 나머지는 만두로 만들어 팔다가 잡혔다. 부부 1쌍과 남자의 정부 1명으로 구성된 용의자 3인은 어떤 책요리책은 아니다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이 최소 5명은 죽였을 거라고 경찰은 추측 중이다. 최소한 만두에 거시기 털은 없겠네요.

# 2012년, 자신감 있는 바디 실루엣을 찾아라!

여성형 유방증,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만나보자.



## 여성형 유방증이란?

여성형 유방증이란 남성의 가슴이 비대하게 발달, 유방처럼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성형 유방증은 남들과 달리 큰 가슴을 가져 목욕탕이나 수영장 등에서 위축되기 쉬우며 심각할 경우 사회 생활의 자신감마저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보통 운동을 통해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면 가슴을 축소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여성형 유방증은 가슴 안에 유선 조직이 발달하여 운동만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유선 조직을 제거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수술이 복잡했으나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수술로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 수술 후 부작용으로 혈종 또는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루엣 성형외과의 여성형유방증 클리닉을 찾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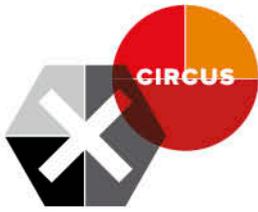
1. 풍부한 시술 경험 YES!
2. 유두에 작은 구멍을 통한 시술로 흉터 걱정은 적게
3. 혹시 모를 재발 위험, 재수술 가능
4. 당일 수술, 당일 치료 가능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진료 분야:  
가슴 성형, 여성형유방증,  
합몰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현) 실루엣성형외과 대표 원장  
서울 아산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수료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MAXIM 독자가 뽑은 가장 데이트하고 싶은 걸그룹은?



**1** 위

**걸스데이** (34.4%)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올 봄에 가장 데이트하고 싶은, MAXIM에 출연한 걸그룹이 누구인지 독자들에게 물었다. 응, 응, 우리도 당신들 마음 다 알아. DESIGN 전은경



**2** 위

**시크릿** (29.3%)



**3** 위

**달샤벳** (23.8%)

봄이 되면 풋사과 같이 귀여운 걸스데이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 지. 지난 4월호 커버를 장식한 달샤벳의 선전도 대단하다. 그녀 들 가는 길에 누가 꼴이라도 발라놓은 건가 앞으로는 더욱 승승 장구하길 바란다. 4위, 5위로는 섹시함과 감쪽함을 넘나드는 라니아(7.8%)와 농염한 누나들 브이걸(4.8%)이 각각 차지했다.



**POLL  
RIGHT  
NOW**

**19대 총선 최대 루저는?**

지금 MAXIM 홈페이지 메인 화면 설문조사에서는 "19대 총선 최대 루저가 누구인지"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독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한다!



VS



**WORLD  
RANKING**



머리에  
피슬러.

**전 세계 매춘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나라는?**

- |                  |                        |
|------------------|------------------------|
| 1위 중국 (730억 달러)  | 4위 독일 (180억 달러)        |
| 2위 스페인 (265억 달러) | 5위 미국 (146억 달러)        |
| 3위 일본 (240억 달러)  | 한국은 어땠나고? 120억 달러로 6위! |

## USELESS NUMBERS



세계 최초의 햄버거 체인이 생긴 년도. 미국 캔사스주의 위치카라는 과상망측한 이름의 도시에서 화이트 캐슬이라는 버거 체인이 탄생했다. 아무리 들어도 모델 이름인데... 고기를 부드러운 원가에 끼워 먹는다는 점에선 크게 다르진 않지만 말이야.

**68**

미국에서 어머니의 날에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가는 자식농들의 퍼센티지. 약 2억 1,280만 통 정도의 전화 통화가 이뤄진다. (이중 그냥 용돈이나 뜯어내려고 징징대는 전화 수는 빼야겠지만)

**80%**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셀러브리티 커플의 평균 이혼율. 이걸 듣고 전지현이 시집 가는 뉴스를 보니 왠지 마음이 그리 아프진 않았어. 지현아, 난 너 기다린다.



그, 그만 벗겨



# ELEVEN

소 한 마리를 벗겨서 만들 수 있는 농구공의 수.

**ZERO**

만약 소가 어딘가에 꼭꼭 잘 숨어있다면 말이지. 애처럼.

# NOISES OFF

by Michael Frayn

뒤죽박죽 황당 백스테이지 실황극

노이즈 오프

★★★★★

영국 Evening Standard Theatre Awards 'Best Comedy' 수상  
미국 Tony Awards 'Best Play' 수상

스캔하고  
티켓 받으러  
가자!



“공연, 세 번! 말아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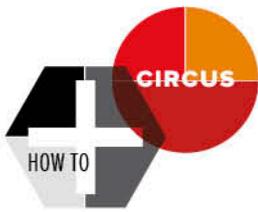


2012.5.4(Fri) ~ 6.10(Sun)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평일 8시 | 주말 및 공휴일 3시, 7시 | 월, 화, 목 5, 29회 공연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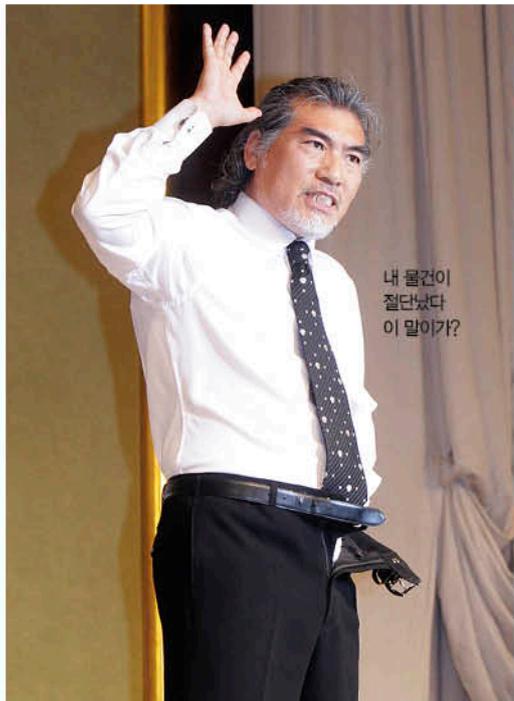
원작 마이클 프레이ن(Michael Frayn) | 번역 김승완 | 연출 백원길 | 출연 서현철 황정민 안신우 장현성 전배수 김동근 백원길 김루사 정의욱 김광덕 이주원 방현숙 김나미

제작 적도 ㈜적도 홍보마케팅 ㈜이다엔터테인먼트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이다엔터테인먼트 02)762-0010



# 나훈아 기자회견에서 발견한 카리스마 프레젠테이션 비법

할 말 제대로 하는 남자 앞에서 그녀와 나머지 수컷들은 녀를 잃을지니. 남자의 존재감을 확실히 살려주는 카리스마 발표 비법을 훈아 형에게 전수 받자. BY 전철웅 DESIGN 신숙희



내 물건이 절단났다 이 말이가?

“오늘은 제가 이야기 할 차례입니다.”

### 보여 주면 믿겠습니까!

1960~70년대 남진과 라이벌 구도를 이루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나훈아.

그는 특유의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두터운 팬층과 굳건한 캐릭터를 구축한 존경 받는 가수이자,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해온 원로 가수였다. 많은 사람이 그가 대중에게 충격을 줄 만한 문제와 얽히지 않을 거라 믿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게 된다. 2008년 1월 25일 금요일, 대한민국 엑설런트 프레젠테이션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나훈아의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돌연 취소되고 그가 종적을 감추면서 황당한 루머의 서막은 시작된다. 사실 그의 해명에 따르면 그건 직원의

전철웅 프레젠테이션 마스터  
신조선유혹공작단 단장  
woongism@paran.com



실수가 빚어낸, 말 그대로 '기삿거리도 안 되는' 해프닝이었지만, 대관 취소의 당사자가 나훈아라는 점 때문에 투병실과 와병실, 급기야 사망설로까지 번지게 된다. 하지만 그가 직접 기자회견까지 자청하게 만든 이유는 다름 아닌 '신체 절단 훼손설' 때문이었다. 제임스 본드 시리즈의 히어로 다니엘 크레이그(Daniel Craig)는 모 잡지와 한 인터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 이냐"는 질문에 '페니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 정도로 남자에게 '물건'에 대한 모독이나 루머는 참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그 황당하고 모욕적인 루머에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두 명이나 언급되었으니 나훈아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 필살 전략 1 닥치고 들어라!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나훈아는 기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한다.

“끝까지 질문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원래 기자회견이라는 게 모두 발언이 끝나면 질의응답이 있게 마련이다. 기자들은 그러기 위해 오는 것이고, 그게 싫다면 보도 자료만 돌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나훈아는 애초부터 기자들의 질문은 받을 생각이 없었다. 왜? 이견 기자회견이 아니라 목표 청중을 계산한 프레젠테이션이니까.

### 필살 전략 2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라!

나훈아는 1시간가량 계속된 기자회견 동안 엉덩이 한 번 들쭉이지 않았다. 감정의 기복도 없었으며 심지어 자신에게 집중된 온갖 추잡스런 루머를 해명해야 하는 불편한 자리임에도 미소를 지어 보이기가까지 했다. 그런 루머를 방지, 확대 재생산한 원망스러운 기자들 앞에서 말이다.

그의 미소가 불러온 분위기는 진지했으며 평온했고, 때론 엄숙했다. 물론, 이런 분위기는 결정적 한 방을 위해 연출된 것이었다. 그래야만 비장의 무기인 애니메이션 효과가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그가 책상 위로 올라가 바지를 내리려는 순간, 회견장의 모든 에너지는 나훈아에게로 빨려 들어갔다. 나훈아 본인만 빼고 회견장의 모든 기자와 팬, 소속사 직원, 생중계 중인 카메라 기자까지 모두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이었다. '책상 위로 올라가자'라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효과 하나 때문에 이날의 승자는 나훈아가 된 것이다.

### 필살 전략 3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라!

공황 상태에 빠진 기자들이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 나훈아는 오늘의 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치밀하고 극적인 시나리오의 산물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멘트를 날린다.

“제가 오늘 나온 이유가 바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상 위로 올라가 지퍼까지 내리려 한 원로 가수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라고 소리치는데 누가 감히 한 눈을 팔 수 있으며, 누가 토를 단단 말인가.

수십 년간 직접 콘서트를 기획하고 연출한 베테랑 원로 가수에게 1시간짜리 프레젠테이션은 가벼운 습작이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당사자가 아니니 그의 생각과 속마음은 알 길이 없다. 확실한 건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그 어느 매체에서도 나훈아의 위험한(?) 루머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MAXIM POINT:**  
섹시한 남자는 루머마저 섹시하다.

# 쌍꺼풀 없이 크고 시원한 눈성형 남성들을 위한 눈 성형수술로 가능하다!

## 작은 눈, 남자라는 이유로 포기해야 하나요?

### 작은 눈, 남성은 그냥 살아야 하나

“작은 눈, 쌍꺼풀 수술로도 못하고, 평생 이려고 살아야 하나요?”  
어려서부터 눈이 작아 ‘와이셔츠 단추 구멍’ 등 놀림을 자주 받는 사람들은 TV에서 작은 눈이 매력 있다는 남성 배우들이나 가수들을 볼 때마다 짜증이 많이 난다. 주위 사람들이 “요즘 작은 눈이 인기라는데, 넌 여자친구도 없냐?” 고 자주 물어보곤 하기 때문이다.  
물론 꼭 눈 때문에 여자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작은 눈이 콤플렉스인 사람들은 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고 털어 놓는다.

### 쌍꺼풀 수술? 남성이 무슨...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그만큼 눈이 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작은 눈은 인상이 흐려질 뿐 아니라 계승츠레 뜬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피곤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화장으로 눈을 커 보이게 만들 수도 없고, 쌍꺼풀 수술은 잘못된 소위 ‘느끼한 이미지’ 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가중된다. 특히 쌍꺼풀 수술 자국이 남으면 여성과 달리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어 매우 어색해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눈 작은 남성들을 위한 대책은 없을까? 있다.  
바로 ‘눈 성형술’ 이다.



〈눈 성형술 6개월 후〉



〈눈 성형술 8개월 후〉

“남성의 눈 성형은 여성의 눈 성형과는 많이 다르다. 여성의 눈 성형이 화려하게 보이도록 쌍꺼풀을 만들어주고, 앞 뒤를 터 주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남성은 이미지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자국을 남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눈이 작아 보이는 남성들을 분석해 보면 주로 눈의 윗꺼풀이 눈의 검은자위를 많이 가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눈 성형술은 눈꺼풀 피부교정을 통해 눈꺼풀의 뜨임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거해 검은자위가 잘 보이도록 해 주는 것이다. 필요하면 눈꺼풀을 치켜드는 힘을 보강해 주기도 한다.

검은자위가 잘 보이면 일단 눈이 커 보일 뿐 아니라 인상이 또렷해진다. 쌍꺼풀은 없지만 시원하고 큰 눈으로 또렷해 보이는 인상을 주고자 하는 남성이라면 바로 ‘눈 성형술’ 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바뀐 눈은 강한 자신감을 줄 것이고, 술로 탈출, 취업 모두 잘 풀리지 않을까?

- \* 드물게 수술 후 좌우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드물게 수술 후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 성형외과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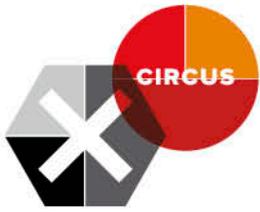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 원장



상담 전화

02-3445-4514

http://www.medoctor.co.kr



# CHEERGIRL OF THE MONTH



## 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 경성대 전지현 김연정

롯데, 똑똑히 들어! 올해엔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거야 알겠네!

IMAGES OSEN, 롯데 자이언츠 페이스북, 한화이글스 홈페이지  
DESIGN 신속희

### 2012년 롯데 자이언츠 최고의 영입

롯데가 과자랑 새우버거 잘 만드는 거 말고 또 잘하는 게 있다면 바로 치어리더 선정이다! 이미 박기량이라는 출중한 미모와 아름다운 미소의 치어리더 팀장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응원단이 또 대어를 낚았다.



여기가 명당일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상큼할 수 있던 말인가아아...

### 전지현, 민효린이 울고 가네

일명 '경성대 전지현', '대전 민효린'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이 귀여운 열쌍 치어리더 김연정 덕에 2012 팔도 프로야구는 지난해 프로야구 총 관객 수 600만 명이라는 기록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고도 남겠다. 와우, 이제 팔도가 전국 야구 구장에 왕뚜껑 덮어주는 거지? 그치?



### WHO IS SHE?

**김연정**

**생년월일**

1990년 11월 23일

**신체**

키 172cm, 몸무게 48kg

**소속**

롯데 자이언츠 치어리더

**별명** 연쫄이

**경력**

이래 봐도 벌써 6년차



다음 달엔 나!



롯데에 김연정을 넘겨준 한화는 닭다리나 빨며 우울해질 거라고? 전혜! 한화엔 전지현 못지않은 귀여움의 최절정체인 금보아 양이 있어!

역사의 **맥**을 짚어주는  
핵심 교양강좌

역사속  
색기발랄  
고대신라  
**화랑세기**편  
By 굽시니스트

고대신라 조상님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디버옵시다!  
그 열쇠는 바로  
금단의 고서  
화랑세기!!!

화랑도  
연대기다!

실존된 것으로 알려졌던  
화랑세기! 1989년에  
그 필사본을 발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화랑세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드라마  
선덕여왕이 제작되었고

이 책을 통해  
화랑도가  
고대사 최대의  
게이파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내가  
선덕여왕  
이다!

우크릉  
우크랑!

I wana take you  
to a 화랑도!

신라귀족층의  
온갖 불륜, 근친,  
집단 사사  
막장 개죽보가  
펼쳐지는데-

이부남매인데  
결혼

이부형제인데  
게이커플

조카딸과  
결혼

화랑세기는  
화랑색기인가!

그 중에서도 암권은 '마복자(磨腹子)' 라는 풍습으로  
임신한 아내를 지위가 높은 권력자에게 보내서 동침하게 하고

정상위는  
안되겠네요

당연히 후배위죠

아이가 나오면 그 권력자가 그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준다는 거.

아저씨,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내 일부분과  
만난거란다.

한 번 더  
만나볼래?

끼아아악!!

다행히도(?)  
역사학계는  
화랑세기  
필사본에 대해  
조작된 위서  
라고 판단  
하고 있다

\* 미실이  
보증을  
그렇게 출산

# 花郎世記

신라시대  
금제 장신구  
A급 이미테이션  
경주박물관  
기념품점  
8만원



연극전문

상상초월 포복절도  
러브코미디

BY Koki Mitani

# 너와함께라면



 문화회식 40% 할인!

10인 이상 예매 시 적용가능  
(인원 미달 시, 현장에서 차액 지불)

 커플할인 30% 할인!

티켓 수령 시, 남녀 커플 동반 수령은 필수!

※인터넷 예매 시에만 적용!

스캔하고  
공연보기!



2012.4.20<sup>FRI</sup> ~ 6.10<sup>SUN</sup>

KT&G  
상상아트홀 삼성역

작가 미타니 코우키(三谷幸喜) 번역 김태희 연출 민준호 출연 안내상, 이정은, 최진석, 김진수, 김동현, 이갑선, 최대철, 손희승, 윤영민, 이지혜, 김혁, 류혜린, 이현웅, 김민혁, 장유리

제작  ㈜연극열전, 상상아트홀 제작지원 PARCO 협찬  IBK기업은행 예매 인터파크1544-1555  www.thebestplay.co.kr 문의 02-766-6007

# STUFF

## 니가 그렇게 재밌어? SONY PlayStation Vita

남들 벚꽃놀이, 봄나들이 갈 때 사무실에 처박혀 있던 우울한 에디터의 두 손에 안전하게 안겨 온몸으로 기쁨조가 되어준 PS Vita 사용하기

BY MAXIM 편집부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정  
COOPERATION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02-6001-6200)

### COOL BLACK

소니에서 막 보내온 박스를 여는 순간 주변에 모인 MAXIM 직원들의 구강이 히드라처럼 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손에 착 감기는 슈퍼 오벌(Super Oval) 디자인과 특유의 블랙 색상 외관, 간지 나는 5인치 OLED 디스플레이와 2개의 아날로그 스틱에 아미라야제가 뭉을까 걱정스러웠다. 침 묻혀서 반납하면 욱하겠지?



### 까탈스러운 MAXIM 에디터의 게임 기어 비교 분석 다 까주겠어!



SONY PS VITA

아이폰은 반칙이다!



NINTENDO 3DS

좀 꺼줘.



APPLE iPhone 4S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카메라	조작감	광고 모델
CPU ARM Cortex A9(쿼드코어) GPU SGX543MP4 <b>패작하구나!</b>	5인치 OLED 960X544 터치스크린 <b>사이즈는 중요해</b>	30만 화소	콘솔 컨트롤러에 가장 가까움. 2개의 아날로그 스틱으로 슈팅 게임에 최적. <b>역시 게임은 니가 뎀</b>	없음. MAXIM이 하나 찍어줄까?
구세대 PSP와 별 차이 없음	상단 3.55인치 800X240, 하단 320X240 듀얼 스크린	30만 화소	아날로그 스틱이 1개라 아쉬움. 외장 액세서리로 추가할 수 있으나 표준 장비가 아니라는.	김병만. 그냥 마리오로 해!
1GHz 듀얼코어 A5	3.5인치 960X640 300dpi 레티나 디스플레이	800만 화소 F2.4의 밝은 렌즈, 최적의 화질 <b>셀카는 너로 한다</b>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버추어 게임 패드. 명불허전 아이폰!	뉘집 애, 애 아무지, 배칠수 목소리. 실마 배칠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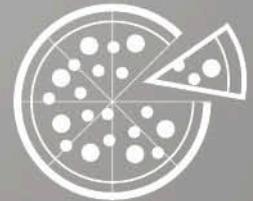
## PERFECT GAME

뭐니 뭐니 해도 이 녀석의 최대 장점은 게임에 최적화된 성능이었다. 전면의 터치스크린과 후면의 터치패드, 전면 좌우 2개의 아날로그 스틱에 6축 자이로가 게임 하는 손맛을 짝짝 살려준다. 그리고 퀴드코어 프로세서가 게임을 빠르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다. 여기에 확장 현실(AR)을 이용한 게임 플레이와 PS3와 연동이 가능한 점 역시 매력적이었다.

## FULL ENTERTAINMENT

3G와 와이파이 환경에서 편리하게 페이스북, 트위터, 스카이프 등의 SNS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박아넣었고, 자체적으로 유저들이 꿀릴 만한 각종 게임 소식과 정보를 알아서 싸준다. 당연히 요즘 스마트폰 기기에 다 있는 음성, 영상, 사진 파일 지원과 카메라 기능은 갖추고 있으니 게임하는 척하면서 앞에 앉은 예쁜 여자 가슴을 찍는 것도 가능하... 아, 봄인데 이런 얘기 계속 해야 하나!

PS VITA 가격 국내 와이파이 모델 기준 36만8천 원



182.0 x 18.6 x 83.5mm (가로 x 높이 x 세로).  
대략 패밀리 사이즈 피자 1조각 크기.

가격	대표 소프트웨어	휴대성	싫어요	좋아요
와이파이 모델이 36만8천 원. 기본 액세서리를 포함한 백류팩이 46만8천 원(4GB 메모리 포함). 메모리카드 가격이 애미없다!	언차티드, 모두의 공포(치미를 더 짧게 만들어라!) <b>업도착형 그래픽!</b>	생각보다 무척 가볍지만 길이는 다소 길다. 주머니에 안 들어간다.	후면 터치 기능은 사족이네	가장 강력한 하드웨어로 가장 좋은 비주얼을 구현한다!
22만 원 <b>가량 저렴!</b>	마리오, 젤다, 포켓몬으로 대동단결	플링 방식이라 화면 긁힐 걱정이 없어서 좋네.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 한국 독자 코드 구동으로 정식 발매 게임만 가능한데 당체 발매가 돼야 말이지.	깊이감을 주는 무안경 3D 기능 등으로 새로운 게임 체험의 장이 열리...려나?
16GB 기준 89만 원대	죽으나 사나 앵그리버드	가장 가볍고 얇아 항상 휴대 가능. <b>근대 닌 스마트폰이잖아!</b>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도통 게임에 집중이 안 됨(아, 그럴 일 없다고?). 에러 나서 다운되고 튕기는 것은 컴퓨터랑 똑같다.	뛰어난 집근성과 저렴한 게임 가격으로 캐주얼 게임 유저(=돈줄)를 다 빼앗아간다. 게임기 회사 다 말아먹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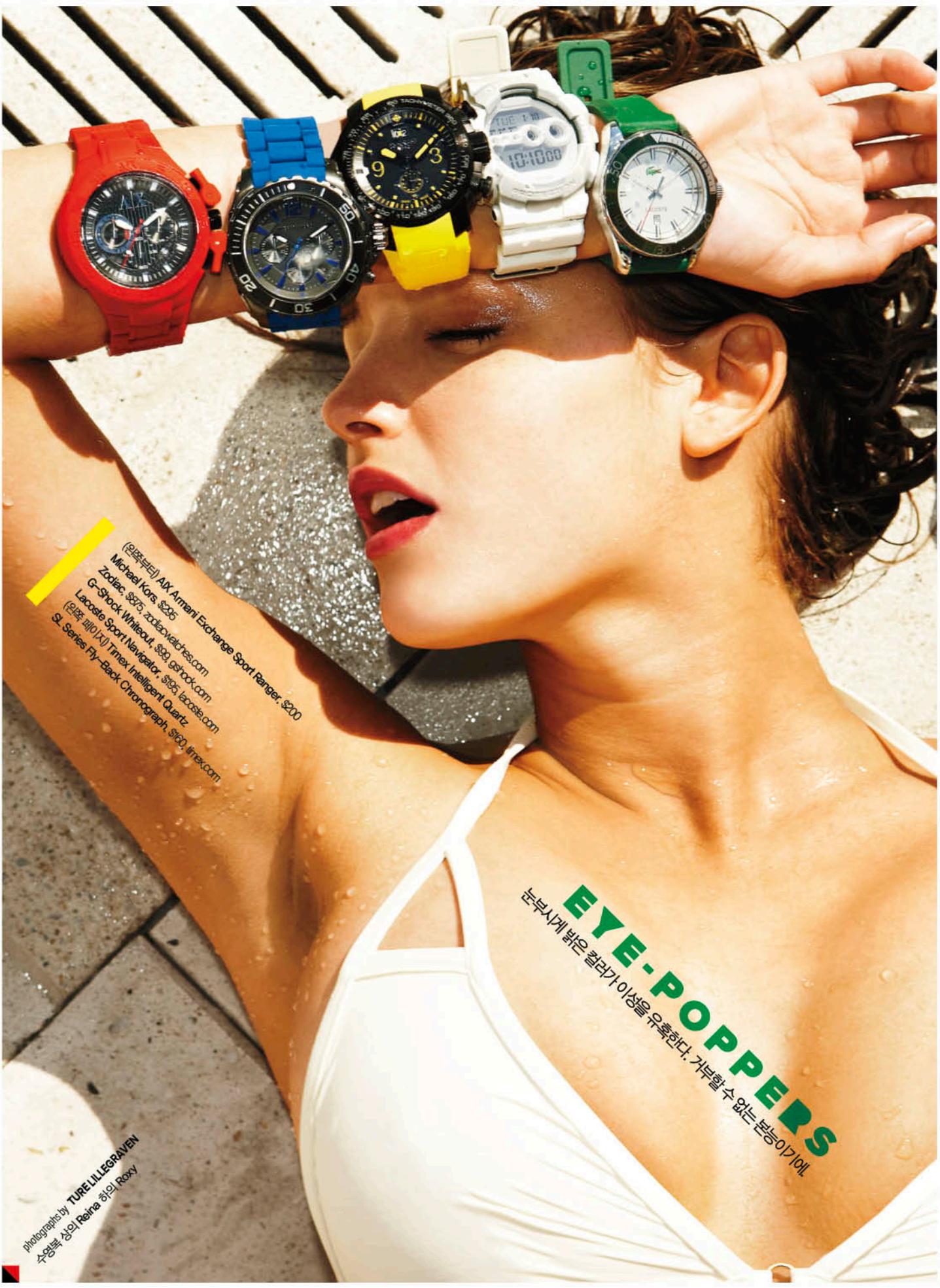


**WORKS**

**WATER**

좋은 방수 시계를 준비하라!

예쁜 아가씨들과의 수영장 파티에 늦지 않으려면 말이다.



(왼쪽부터) AX Armani Exchange Sport Reneger, \$200  
Michael Kors, \$235  
Zodiac, \$975, zodiacwatches.com  
G-Shock Whiteout, \$99, gshock.com  
Lacoste Sport Navigator, \$195, lacoste.com  
(왼쪽부터) (시) Timex Intelligent Quartz  
SL Series Fly-Back Chronograph, \$120, timex.com

**EYE-POPPERS**  
눈부시게 밝은 컬러가 이성을 유혹한다.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기에

photographs by **TURE LILLEGRAVEN**  
주요특 상의 Reina 81의 Roxy



# METALHEADS

멋진 메탈 시계를 사랑하는 타이밍-작업의 열사



Breilng Avenger Seawolf, \$3,700, Breitling.com  
(원조, 10기, 원조부식)  
SEIKO Sportia Alarm Chronograph, \$475  
Morado Bold, \$485  
TAG Heuer Aquaracer, \$3,550, US.tagheuer.com  
Omega Seamaster Planet Ocean  
600M Chronograph, \$8,000  
Diesel, \$240, dieseltimepieces.com



사진 Susan Holmes



# 이게 웬 독 (Dock)?

방 한 칸만 한 크기의 베링거 아이누크 초대형 아이폰 독으로 네 이웃을 '지리게' 하라.

ILLUSTRATION 전영준

**+** 딱 보면 모르겠나? 초대형 아이팟 독이다  
 쓸데없이 출력이 어마어마하고 욕 나올 정도로 비싸기만 한 건 아니다. 투자 대비 정확이 확실한 놈이니까. 중국 어디 시골 마을이 풀 파워로 소모하는 전력을 이놈이 한 방에 소모하고 나면, 건물을 뒤 흔드는 1만 와트의 사운드와 경찰서에서 보내온 수많은 고소장을 득템할 수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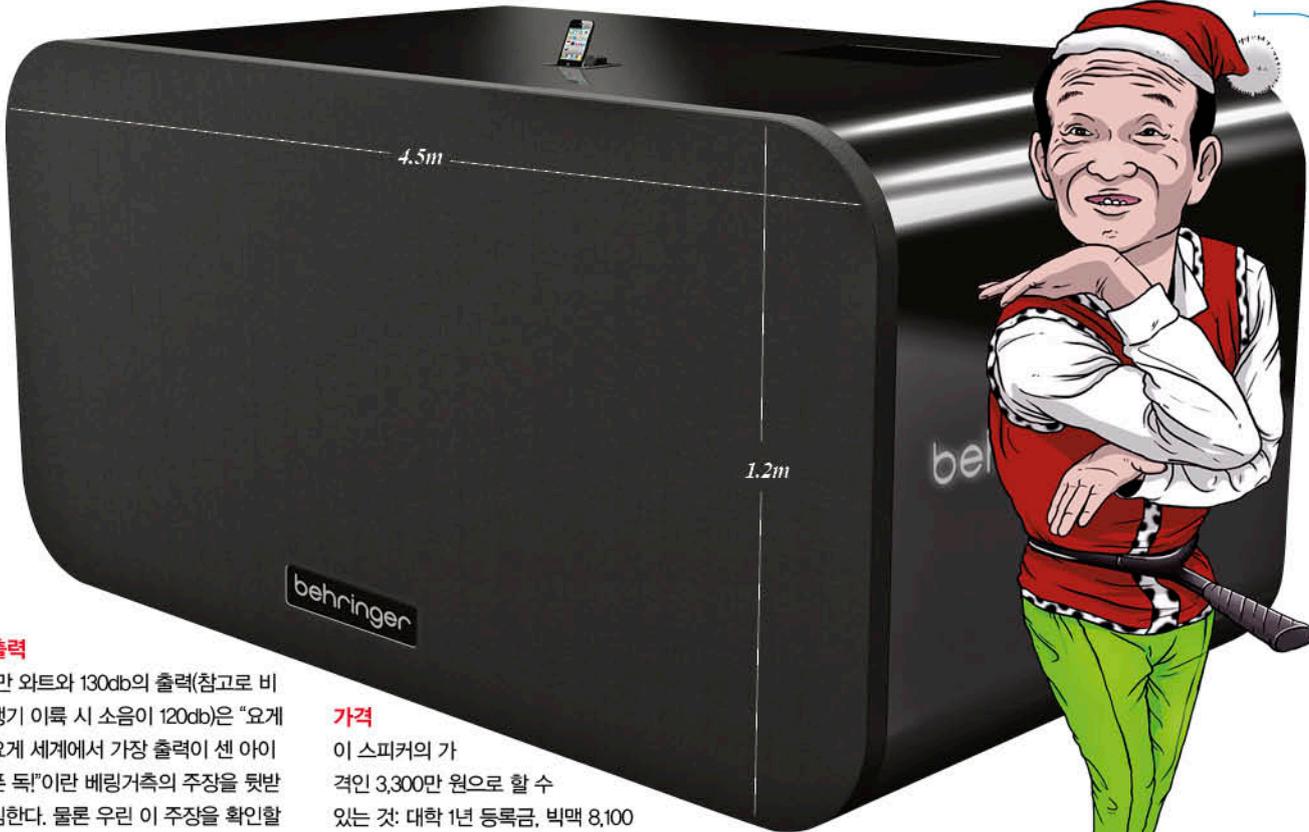


## 크기

가로, 세로 4.5mX1.2m 크기의 이 '스피커'는 최홍만이 누울 침대 2개는 가뿐히 들어갈 만한 공간을 차지한다. 300kg짜리 새끼 코끼리가 차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지. 무지막지한 스피커 덕에 당신의 아이폰이 한층 러블리해 보이는 것은 덤.

## 소리

베링거는 "라이브 공연에서 들을 수 있는 생생한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그 라이브 공연이라는 게, 아마 서울 광장에서 밤새 광란의 클럽 파티를 하는 걸 말하는 거라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 출력

1만 와트와 130db의 출력(참고로 비행기 이륙 시 소음이 120db)은 "요게 요게 세계에서 가장 출력이 센 아이폰 독!"이란 베링거측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물론 우리 이 주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MAXIM 수습사원의 고막은 너무 연약해서 실험해볼 수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경찰이 무서워요).

## 가격

이 스피커의 가격이 3,3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 대학 1년 등록금, 빅맥 8,100개, 아님 소녀시대 고음질 음원 평생 이용권. 이 돈으로 소녀시대를 살 순 없어. 영영!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아저씨 (본명: 이양승) 159cm

## 지구에서 가장 시끄러운 것들



### 가장 시끄러운 비행기

#### 우주왕복선

대기권을 뚫고 발사할 때 무려 170db의 로켓 소음이 하얀 김을 세계 뿜으며 이렇게 외친다. "나 우주로~ 갈 것 같아~!"



### 가장 시끄러운 동물

#### 흰긴수염고래

울음소리가 188db에 이른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앵앵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



### 가장 시끄러운 동네

#### 경기도 화성

2011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환경 소음이 가장 심한 곳이 경기도 화성이라고. 아해! 그래서 길이 열리는 곳아구내!



### 그 외 가장 시끄러운 레전드급 소음

#### 화산 폭발

1883년 크라카토아 화산 폭발은 역대 발생한 소음 중 가장 시끄러운 것으로 꼽힌다. 이렇게 화끈한 여자 어디 없네!

2경향판타지

PAMA Production  
Miracle Theater

# 미라클

THE MUSICAL

미라클 공짜  
티켓 받으러  
가자!



since 2003 3,000회 돌파!  
20만 관객이 확인한 대학로의 스테디셀러!!



OPEN RUN 공연중 | 평일 8시 토요일 4시,7시 일요일 3시,6시 (월요일 쉼) | 일반 30,000원 | 대학로 미라클 씨어터 1관  
제작 (주)PAMA프로덕션 | 예약 및 문의 02.742.7261/2 |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옥션티켓 1566-1369

# GEAR OF THE MONTH



## 파나소닉코리아, 아웃도어용 터프 디카 루믹스 TS4

한층 업그레이드된 파나소닉의 터프 카메라 파나소닉 루믹스 TS4가 등장했다. 방수, 방진 및 충격 방지는 기본, 촬영한 사진이 지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기능도 갖추었다. LCD상에 현재 위치의 위도나 경도는 물론 고도, 수심도 표시해주며 GPS 시스템도 내장되어 여행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디지털 노마드 민족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줄 루믹스 TS4, 당신은 나의 동반자~!  
 가격 499,900원  
 문의 파나소닉코리아(02-533-8452)

## 레이저(Razer™), 왼손잡이용 나가 마우스 출시 예정

짤짜버거와 예뻐공주에게 이런 희소식이 또 있을까? 레이저의 왼손잡이용 나가 게임 마우스는 MMO 게임에 특화된 17개 버튼으로 수천 가지 명령어를 설정할 수 있다. 또 사용자가 직접 편집 가능한 MMO 게임용 애드온 인터페이스로 스킬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장시간에도 사용해도 편안한 왼손잡이용 레이저 마우스로 레벨 업!  
 문의 레이저(kr.razerzone.com)



## 두가지 펜 기능을 갖춘 뱀부 스타일러스 듀오

아이패드와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터치펜과 프리미엄 잉크 볼펜을 내장해 일반 종이에도 쓸 수 있는 잉크펜이 와콤에서 나온다. 뱀부 스타일러스 듀오는 부드러운 필기감을 지녀 사용 만족도가 높다. 아이패드 용 뱀부 페이퍼(Bamboo Paper) 앱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안드로이드용은 5월 중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적 감성이 공존하는 뱀부 스타일러스 듀오(Bamboo Stylus duo)로 개성을 더해보자.  
 문의 와콤(www.wacom.com)

## 에이서, 멀티터치 지원 올인원 PC 아스파이어 Z3801 출시

메탈 소재의 세련한 터치스크린 PC가 떴다! 에이서(Acer)의 아스파이어 Z3801은 멀티터치가 지원되는 정전식 21.5인치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올인원 PC다. 10개의 포인트를 동시에 인식하는 터치스크린과 에이서 터치 포털(Touch Portal), 터치 워젯, 메모 워젯, 터치 앱 등을 제공해 터치스크린의 재미와 유용성을 경험할 수 있다. 에이서 Z3801은 인터파크에서 300대 한정 판매하니 품절 되기 전에 얼른 지르러 갑세. 가격 799,000원  
 문의 에이서(www.acer.com)



## 비즈니스맨의 필수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소니코리아가 주변 소음을 98.2%까지 줄이고 스타일을 살려주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MDR\_NC100

을 출시한다. 또 프리미엄급 사운드를 재생하기 위해 S-마스터 디지털 앰프를 탑재해 왜곡이 없는 원음 음악 청취가 가능하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특히 엔진 소음이 있는 기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 잦은 소비자들 많이 찾는 제품이다. 블랙, 화이트, 블루, 브라운 컬러가 중 선택하라. 당신 옆모습에 그녀가 반하는 건 시간문제다!  
 문의 소니코리아(080-777-2000)



## 손 안의 프리미엄! 휴대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PlayStation®Vita

손 안에 또 다른 세계를 만나고 싶다면 주목! PlayStation®Vita는 최고의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사양으로 전 세계적으로 7,500만 대 이상 판매되어 인기가 좋다. 또 와이파이 연결을 제공하고 다양한 조작 방식을 내장했다는 것이 장점. 5월 중순까지 서울 및 수도권 대학교 24개교를 상대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게임 할 때만큼은 1시간도 1분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하시라!  
 가격 368,000원(Wi-Fi 모델) 문의 플레이스테이션(www.playstation.co.kr)

# WATCH OF THE MONTH



## 5년 동안 갈고 닦은 시계, 그랜드 세이코(Grand Seiko) HI-BEAT 36000

1960년에 탄생한 럭셔리 워치 브랜드 그랜드 세이코가 5년간의 준비 끝에 첨단 모델을 출시했다. HI-BEAT '36000'라는 모델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밸런스 휠의 3만 6,000번 진동수로 시계의 정확도를 높인 제품. 진동수란 무브먼트의 밸런스 휠이 1시간에 진동하는 횟수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더 정확한 시각을 표시해 시계 기술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부품의 경량화와 정밀도 향상으로 편의성도 높이고, 가격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당신에게 어필한다.

가격 850만 원 문의 세이코 부티크 스타시티점(02-454-8400)



## 브라운(Braun) 워치 0035 시리즈, 2012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유럽풍 감성 워치 브랜드 브라운이 2012년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부문을 수상했다. 1953년부터 이어진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의 레드 닷, 굿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시상식 중 하나로 손꼽힌다. 브라운이 수상한 0035 시리즈는 감각적인 크로노그래프를 채택하고, 1회 날짜 지정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페추얼 캘린더를 내장해 디자인과 기능의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시계. 상 좀 받아본 엄친 시계는 얼마나 좋은지 구경 좀 해볼까?  
문의 유로타임(02-3397-7100, www.eurotime.kr)



## 아디다스 오리지널 캠브리지 워치 시리즈 출시

상큼한 디자인에 가격 부담이 없는 시계를 찾는다면 아디다스 워치를 만나보자. 아디다스 오리지널 워치가 2012년 여름 시즌을 맞아 산뜻한 컬러의 캠브리지 시리즈를 선보인다. 다이얼에 새겨진 익숙하면서도 상큼한 아디다스 오리지널 볼꽃 마크가 매력 포인트. 비싸지 않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크로노그래프 기술을 채택해 가격대비 고성능을 추구한다. 가벼운 소재로 활동성을 높여 운동할 때 착용하기 좋다.

가격 140,000원

문의 파슬코리아(02-3440-6500)



## 심해에서도 강한 워치, 오리스(Oris)의 아퀴스 타이탄 크로노그래프

바다거북을 꿈꾸는 당신, 오리스에서 다이버를 위한 강한 시계, 오리스 아퀴스 타이탄 크로노그래프(Oris Aquis Titan Chronograph)에 주목하라. 심해로 잠수할 때, 시계에 유입되어 고장을 일으키는 헬륨을 자동으로 방출하는 자동 헬륨 밸브를 장착해 다이빙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보장한다. 또 자동으로 외부의 빛을 흡수하는 슈퍼루미노바(Superluminova) 기술을 시계 바늘에 적용하여 컴컴한 환경에서 가시성을 높였다. 티타늄과 텅스텐을 조합한 케이스로 내구성은 기본이요, 크로노그래프 기능까지 넣어 최고 성능을 자랑한다. 그냥 방수 시계가 짱 먹는 건 코 찢질일 때 이야기!

문의 밀림시계 (02-757-9866,

www.milimwatch.co.kr)



## 루미녹스 NEW Chronograph Steel Colormark 3180 시리즈

루미녹스가 세계 최고의 시계 박물관인 바젤 월드에서 블랙컬러를 포함한 여섯 가지 스타일의 워치 라인인 크로노그래프 스틸 컬러마크 3180 시리즈를 선보였다. 근육질의 울퉁퉁한 44mm의 스테인리스스틸 케이스는 극한의 상황에서 높은 퍼포먼스를 보장하며,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네랄 유리를 채택해 내구성을 높였다. 스트랩은 외부 충격에 강한 스테인리스와 루미녹스 방패 로고가 새겨진 폴리우레탄 중 선택할 수 있다. 개성이 제각각인 여섯 가지 모델을 모으면 용신님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주...진 않겠지.

문의 밀림시계 (02-757-9866, www.milimwatch.co.kr)

# MISS OF THE MONTH MAXIM

2012 MISS MAXIM CONTEST  
THE 1ST  
SEMIFINALIST

김보민

2012 MISS MAXIM 콘테스트 예선 1회차의 우승을 거머쥔 주인공 김보민 양은 외모만큼이나 성격도(몸매도) 시원했다. 그녀는 잡지 모델이 되고 싶은 꿈을 MAXIM에서 이뤄줘서 고맙다며 연신 하트를 날려댔다. "아휴,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FILM 서현우 HAIR&MAKEUP 이현정 DESIGN 전은경 ASSISTANTS 조웅재, 손안나, 이진영

스트라이프 브라 마루 이너웨어

40 MAXIM MAY 2012

COOPERATIONS 마루 이너웨어(02-2117-7510) 컬러핀(02-547-5707) 포터즈컴바인 이너웨어(02-2117-7336) 슈즈원(02-3443-1703) 뉴에타(070-4411-5950)

핑크 브라 칼라짚  
구두 슈즈원



“  
    **맘에 들면**  
    **당당하게 고백해요.**

”

» PROFILE



**김보민**

**생년월일** 1987년 5월 19일

**직업** 회사원

**주요 서식지** 강남역

**이성에게 자주 듣는 말** “귀엽다.” 얼굴 말고 하  
는 행동이 귀엽다고 하던데?

**집에 혼자 있을 때** <무한도전>을 본다.

**고민거리** 머리를 계속 기를지 단발로 자를  
지 고민 중이다. 뭐가 더 어울릴지 알려줄 사  
람 어디 없나?

**내가 해본 가장 나쁜 짓** 동생이랑 싸운 뒤 동  
생이 가장 아끼는 차마를 찢은 일

**내 생애 가장 큰 일탈** 수능 끝나자마자 나이  
트 가서 밤새워 놀았다.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  
허벅지. 허벅지가 굵은 사람이 좋다!

**별명** 스누피. 닳았다는데?



### 마음에 드는 여성이 나타났을 때

일단 목소리 톤부터 바뀌겠지? 그리고 살짝 눈웃음도 짓는다.

### 이성을 유혹하는 나만의 필살기

상대가 당황할 정도로 당당하고 솔직하게 "좋아한다"고 말한다.

### 첫 키스

스무 살 때 학교 선배가 집에 데려다주는 차 안에서. 둘 다 키스는 처음이라 하고 난 뒤 어색했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다.

### 주량

소주 한 잔. 내숭이 아니라 진짜 술을 잘 못 마신다. 정말이라나간!

### 마음에 드는 여자를 사로잡는 법

무뚝뚝한 자상함이 필요하다. 여자들은 신경 안쓰는 척하면서 뒤에서 물레 챙겨주는 남자를 멋있다고 느끼거든.

### 어린이날 계획

회사에서 당직을 하게 될 것 같다. 흑흑.



아찔했던  
촬영 현장



“  
첫 키스는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다.  
”

모자 뉴에라  
파란색 브라 코데즈컴바인 이너웨어

★  
2012  
**MISS  
MAXIM  
CONTEST**

★  
**세계적인 남성 잡지 MAXIM에서  
모델 데뷔의 기회를 잡아라!**



1.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디자이너, MAXIM 스태프  
들과 함께 판타스틱한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

2.

온라인 예선 통과시 MAXIM 다음월호  
한국판 화보 촬영

3.

MAXIM PARTY 포스터 모델 및  
MAXIM의 PARTY GIRL로 활동!

4.

총 상금 600만 원  
(온라인 예선만 통과해도 상금 10만 원)

5.

최종 우승시 34개국 MAXIM이 경합을  
벌이는 MISS MAXIM 세계 대회의  
참가 후보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세계 대회 일정은 MAXIM 미국 본사의 대회  
개최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컨테스트 진행 방법

MAXIM 홈페이지에서 20일 간격으로 열리는 온라인 콘테스트에서 MAXIM 독자들로부터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은 참가자가 예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예선 통과자가 누릴 수 있는 뽕뽕한 특전은 위에 다 적혀있으니 다시 읽어보도록!

예선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콘테스트는 20일마다 열리니까. 콘테스트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자동적으로 다음 회차에 진출하게 됩니다. 매 회차 예선 콘테스트 우승자는 2012 MISS MAXIM 준결승(또는 준준결승) 콘테스트에 자동 진출. 단계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콘테스트 상금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 참가 신청 방법

#### 1. 홈페이지로 신청하기

MAXIM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와 색시함을 잘 표현한 사진을 10장 이상 업로드 한 뒤 MAXIM 독자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씁니다.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면 끝~

#### 2. 이메일로 신청하기

홈페이지 신청 방법이 귀찮다면 간단한 프로필, 연락처, 본인 사진을 alice@maximkorea.net으로 보내주세요. 에디터가 대신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은 10장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 문의

이메일: alice@maximkorea.net  
전화: 02-323-1182



# RATE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 어벤져스 고민 상담소

어벤져스로 출동할 최고의 히어로들이 4월 26일 개봉을 앞두고 큰 고민에 빠졌다. 그 고민 MAXIMO이 해결해 주겠어! BY 송종민 DESIGN 서윤정

마지막  
예고편



난 누구?  
여긴 어디?



### 브루스 배너 (헐크)

**고민:** 토니가 자꾸 화나게 만들어요. 내가 헐크가 되는 걸 보고 싶나 봐요. 아오 쥐 팸 수도 없고.

**답변:** 성격은 다르지만 근본은 똑같은 공돌이예요. 친하게 지내요.

주목받는 것을 즐기고 제멋대로인 토니와 소심한 배너 박사는 전혀 다른 성격이지만 묘하게 닮은 점이 있으니 바로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열정적인 과학자라는 점이다. 배너는 직접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토니는 하늘을 나는 수트에 거침없이 몸을 맡길 정도로 미쳐있다. 결국 서로에 대한 호기심으로 둘은 친한 친구가 될 확률이 높다.



차라리  
안 불란다

### 닉 퓨리

**고민:** 이 프로젝트에 4년이나 공들였는데, 정작 본편에서 내 역할이 없을 것 같아 고민이에요.

**답변:** 원래 국장은 현장 뛰는 거 아니예요.

2008년 개봉한 <아이언맨 1편>에 처음 등장한 이후 온갖 마블 작품에서 단역 알바를 뒀었던 닉 퓨리. 허나 정작 <어벤져스>에서는 제멋대로의 성격인 히어로들을 달래느라 짜증나고, 상부에는 예산 타내느라 머리 빠지는 이 시대 서러운 부장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머리가 하나도 없어.



### 호크 아이

**고민:** 온갖 먼치킨들이 지랄하는 이 세계에서 시체나 온전히 건질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답변:** 당신의 역할은 싸움이 아니예요. 로맨스예요.

블랙 위도우와 아이언맨 사이의 삼각관계를 담당하며 히어로물로도 막장 멜로 드라마를 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자. 하지만 경쟁자가 막장 드라마에 항상 등장하는 재벌 2세(아이언맨)기 때문에 그를 이기려면 고생 좀 해야 할 거다. 그의 난잡한 여성 편력을 집요하게 몰고 늘어저라!



### 캡틴 아메리카

**고민:** 시차 적응이 안 돼요. 친구들도 다 노인이고, 그리고 내 꼴꼴이를 자꾸 놀려요.

**답변:** 참아요. 이미지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특히 당신처럼 뿔도 없을 때는 말이지.

그가 어벤져스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목적 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평화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항상 불타고 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벤져스의 힘이 꼭 필요하다. 이런 애들 데리고 일하려면 유재석의 진행 능력을 배워라. 당신, 유머 감각이 너무 부족해.



**블랙 위도우**

**고민:** 딴 놈들은 번개 망치 몰니르에 비브라늄 방패에 아이언 슈트에 온갖 템빨 받는데 난 달랑 권총 두 자루?

**답변:** 당신은 가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원래 그런 캐릭터인데 어떡해? 원작에서는 정의로운 호크 아이의 모습에 감동해 개과천선해 설드로 들어왔지만 그와 헤어지고 데이데블, 헤라클레스, 캡틴 아메리카, 심지어 아이언맨과도 염문설을 뿌리는 진정한 할매 피탈(느리게 늙는 능력으로 2차 대전 때부터 그 얼굴로 거듭난다. 그녀에겐 미묘야말로 진정한 무기!

연우야,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로키**

**고민:** 혼자 다구리 당하는 느낌이에요. 나도 친구 붙여줘요.

**답변:** 제작비가 부족해서... 영웅 모으는 것도 힘들었어. 이번 편 대박 나면 생각해볼게.

아버지가 웬만 사랑해서 뺨이 쳐 있을 때, 하필이면 자신이 원래 거신족 상공 출신이라는 출생의 비밀을 알아내는 바람에 열등감 폭발했던 로키. 양명군에 빙의되어 형 토르에게 이를 박박 갈았다. 그런데 지구 정복 계획이라는게 영... 외계인 군대만 엄하게 나와서 차례로 깨져나갈 듯. 다음 편에는 레드 스컬 연합 같은 강력한 빌런(약량) 진영을 보길 원한다!

**토르**

**고민:** 다른 히어로들이 내 동생보고 쌍놈이래요. 난 누구 편이어야 해요?

**답변:** 머리 쓰는 건 당신에게 안 어울려요. 미국 대장 말을 들어요.

로키가 나쁜 놈이라고는 하지만 토르에게는 가족이다. 그런 로키가 다른 히어로들에게 쥐 터지는 것을 그가 보고만 있을 수 있을까? 토르는 다른 어벤져스 멤버들과 심한 갈등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심각한 백치미를 선보였던 전작의 이미지를 볼 때 미국 대장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고 묵묵히 백의종군하는 게 제일 속 편해 보인다.

**아이언맨**

**고민:** 흥행으로 보나 인물로 보나 누가 봐도 내가 주인공 이냐? 어디 흥행도 못해본 것들이 나랑 팀을 해보겠다고...

**답변:** 너도 2편 충분히 말아먹었거든?

히어로 탄생 과정이라는 보장된 흥행 공식에서 벗어나자마자 방향성을 잃었던 토니. 언제까지 슈트 버전 업글질과 망장난으로 버틸 수 있을까. 솔로로 활동하기에는 벌써 신선함이 없다. 그에게는 꼭 어벤져스 팀이 필요하다. 헐크와 티격대고 고지식한 미국 대장을 도발하는 그의 모습, 벌써 (아이언맨 3)보다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



# 백설공주 VS 백설공주

백설공주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개봉하는 두 편의 백설공주 영화 누가 과연 진정한 포스트 백설공주인지 맞짱 한 번 떠보자  
BY 송종민 DESIGN 신숙희

백설공주의 아름다운 자태



**릴리 콜린스**

백설공주 5월 3일 개봉

**크리스틴 스투어트**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 5월 31일 개봉

블라인드 사이드, 프리스트, 어브덕션	과거	트와일라잇1, 트와일라잇2, 트와일라잇3... 등?
백설공주야 아시안 프린스야?	신체적 특징	백설공주야 뱀파이어야?
디즈니 랜드 st	패션 스타일	잔다르크 st
진짜 난쟁이. 한국계도 한 명	난쟁이	사냥꾼과 아이들
어리바리 귀여우다.	백마 탄 왕자	천둥신 출신 사냥꾼 때문에 찌리로 전략
난쟁이들에게 배운 귀여운 검술	전투력	사냥꾼으로부터 하드 트레이닝. 인간 병기로 거듭남.
아빠가 가수 필 콜린스, 남친이 잭 애프론, 허버드 출신, 백설공주가 안 부러운 레알 엄친딸	특별한 능력	트와일라잇의 연인 로버트 패틴슨과 실제 연인 시나리오 작가인 어머니를 담아 촬영 내내 소설을 집필해 출판을 앞두고 있는 오덕녀
거울이 거울이지 인마	미러 미러	액체 터미네이터 T-1000
사랑의 연적	왕비와의 관계	내 심장을 노리는 용왕님
백설공주와 왕비가 한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사랑과 전쟁)	동화와 다른 점	왕비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호전적인 백설공주
이기면 왕자 지면 독사과대!	웃긴 광고 카피	아름다운 나의 힘

## 왕비 vs 왕비

줄리아 로버츠	VS	샤를리즈 테론
공적적, 해학적	성격	마녀
새똥 크림 팩, 닥터 피쉬 각질 제거, 입술 붓침 등 민간요법	미모 유지 비결	마을 처녀들을 셀처럼 흡수
사치로 왕국을 재정을 파산 지경으로 만들	미움 받는 이유	마을 처녀들을 흡수한다니까
왕자와 결혼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왕자가 백설공주에게 넘어감. 어린 것이 요망하게 내 남자한테 꼬리를 쳐?	백설공주가 싫은 이유	안 그래도 나보다 이쁘서 싫었는데 거울이 그녀의 심장을 먹으면 처녀 앵벌이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해서 거짓말이면 너 깨버린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수상	공통점	주인공보다 출연료를 더 받는다.

## SF가 풍년이네

### 맨 인 블랙 3

1997년 개봉 이후 점점 양복 듀오의 대명사를 <블루스 브라더스>에서 <맨 인 블랙>으로 만들어버린 전설의 그 영화가 돌아온다. 2편 이후 자그마치 10년 만의 귀환이라 반갑기는 한데, 윌 스미스는 더 이상 지나가는 합합 스타가 아니고 토미 리 존스는 너무 늙었다. 거기에 지구인인 착하는 유명 스타 패러디, 기어 소거 장치 등 차린 밥상도 뻥하다. 이를 타계하고자 베리 소넨필드 감독은 젊은 시절의 K를 찾으려 간다는 <백 투 더 퓨처> 스토리까지 더했다. 과연 젊은 시절의 K(조쉬 브롤린)가 극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을까?

5월 24일 개봉



### 락아웃: 익스트림 미션

올여름은 우주 SF 영화를 기다렸던 팬들에게 보물 같은 시즌이 될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부터 <토탈 리콜>까지, 오랜만에 대규모의 SF 영화가 줄줄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여는 것은 워너브라더스 제작의 <락아웃!> 범죄자를 아예 우주로 추방하기 위한 우주 감옥 MS ONE이 수감자들의 폭동에 접거됐다. 뭐 그냥 쏘아 떨어뜨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이쁜 대통령 딸내미께서 잡혀 계시단다. 뭐 어찌겠어, 구해야지, 패쇄 공포증을 자극하는 우주선과 도망칠 곳 없는 공간적 제약은 심분 활용한 화려한 액션 영화가 될 것이다.

5월 17일 개봉



## 정바비가 만난 귀여운 마녀 오지은

마녀라길래 혹시 파이어 볼을 맞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을 무렵, 까만 고양이 같은 그녀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낸다. 소탈하고 귀여운, 하지만 사뭇 진지하게 음악을 하는 그녀의 생활을 살짝 엿보기로 했다.

BY 정바비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서윤형 LOCATION 카페 소스(02-322-2176)

참, 여러 의미로 사람 심란하게 하는 목소리와 가사였다. 오지은, 내 취향이 아니라고 피하려 했지만, 어느새 곳곳에 그녀의 글, 그녀의 언어, 그녀의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집에서는 안 먹겠노라 선언한 반찬을 친구네서 시침 똑 떼고 시도하듯 그녀의 책을 사 읽어보았다. 재미 있고 몽클했다. 그런데 나처럼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투항한 사람이 꽤 많았던 모양이다. MAXIM 역시 벌써 두 번째로 귀중한 지면을 내주었으니 말이다. 이번 인터뷰는 특별히 가나다순의 키워드별로 정리해보았다. 기타 팝 밴드 '오지은과 늑대들'로 활동했던 상큼한 외도를 마무리하고 새 앨범을 준비 중인 오지은, 그녀와 키워드별로 나눠본 알토란 같은 대화를 MAXIM 독자에게만 공개한다!





이야~ 그림 좋다?

## 김윤아

〈나가수〉에 자우림이 출연하면 무렵 누군가 ‘저 계열의 보컬 중 김윤아가 정파라면 오지은은 사파’라고 얘기한 걸 봤어요. 재미있다고 생각했죠.

일리 있네요. 언니를 처음 본 게 1990년대 중반 흥대 앞이었어요. 언니가 ‘헤이 헤이 헤이’로 데뷔하기 전 클럽 무대에 섰을 때인데, 이미 호흡이나 발성, 자세가 잘 되어 있으셨어요. 사실 저도 그런 공부를 시도한 적은 있는데 하다 말았죠.(웃음) 기술적인 부분보다 노래 안에서 감정을 증폭시키고 터뜨리는 데 집중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 인디 여성 보컬의 선구자적인 뮤지션이고, 아티스트와 엄마로서 정체성을 잘 양립시키고 있죠.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 늑대들

〈오지은과 늑대들〉 앨범이 완성되어갈 무렵, 여전히 팀 이름이 없는 상태였어요. 한편으론 불과 반년 후에 정중업(기타)이 속해 있는 다른 팀인 장기하와 얼굴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적이었고요. 다급한 마음에 홍보 면에서 좀 득을 볼까 싶어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저를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들 오지은 1, 2집의 연장선상에서 〈오지은과 늑대들〉 앨범을 받아들이더라고요. 후폭풍이었죠. 다시 한다면 그냥 ‘늑대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암늑대, 다른 멤버들은 솫늑대.(웃음)

## 덕후

애니, 게임,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 ‘덕력’을 과시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최근에 탐닉 중인 것은 뭐죠?

독자들은 “이런 새빨간 입술의 여자가 덕후라네!” 하시겠네요.(웃음) 음, 〈슈퍼로봇대전 재세편〉이 곧 나와요. 이미 나왔나? 사실 음악을 끊고 다른 데로 간다면 유일한 길은 게임이에요. 그 밖에 사람을 만나고 책이나 영화를 보는 그런 일들은 저로 하여금 음악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몰고 가는데, 게임하는 동안엔 아예 음악에 대한 전원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앨범 작업 중엔 게임을 안 하죠.

## 랄라스윗

소속사에 처음 생긴 여자 동생들이에요(랄라스윗은 2012년 4월호 MAXIM에 등장한 여성 듀엣 뮤지션). 친하기도 하고 애착이 많이 가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저한테 감정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고맙고 제가 도움이 된다는 것도 기쁘고요. 랄라스윗의 노래는 너무 예쁘지도 서럽지도 않은 리얼한 보통 여자아이의 정서를 잘 녹여낸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개네가 스트리트 출신이잖아요. 30대 이후가 기대되는 아이들이라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웃음)

## 무의식

어떨 땐 무의식이 치는 장난에 끌려가며 산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핀란드에 갔다 온 것도 그렇고, 올 초 스페인을 다녀 온 것도 그래요. 의식적으로는 ‘어? 왜 갑자기 가고 싶지?’ 싶으면서도 무의식이라는 게 시키는 대로 했더니 어느샌가 고생하고 있고.(웃음) 한편으로는, 가끔 잠을 16시간씩 자는데, 그러는 동안 무의식이 저 대신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죠. 어느 순간 꽤 많은 단계의 생각이 갑자기 완성된다든지, 어떤 경로인지 모르게 곡을 써버렸다든지 하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 보통열차

첫 단행본인 〈훗카이도 보통열차〉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어린 글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 만든 노래처럼 남사스럽기도 하고 어쩔 이런 것까지 썼을 까 싶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가치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읽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기에 순도가 높은 글이에요. 처음 쓸 땐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표지라든지 최종 결과물을 보니 뭐랄까, 귀여운 책이 되었다더라고요. 남이 보면 별 대단하지도 않은 일에 엄청나게 절망하고 방황하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하는 여자애의 모습이 담긴 귀여운 책 말이에요.

## 스페인

전공이 서어서문학과인데 아직 수료상태거든요. 스페인어 시험을 봐야 졸업하는데 가서 두어 달 지내다 오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바르셀로나에 갔어요. 그러던 중에 또 욕심을 부렸죠. 곡도 쓰고 글도 쓰고 스페인시 기타도 배우자, 뭐 그러다 결국 하나도 제대로 못 하고.(웃음) 이상하게 서울에 오니 다시 글이 써지더라고요. 발붙인 땅에서 더 잘하고 더 잘 즐기 위해 낙원 같은 곳까지 가서 고민만 잔뜩 하다 돌아온 꼴이었어요.



오지은의 음악은?



## 인터뷰

수년간 다양한 매체와 인터뷰를 해왔는데 대부분 뮤지션 오지은은 몰라도 그 자체로 흥미진진한 읽을거리라고 생각했어요.

20대 초반에 잡지사 어시스턴트 일을 했어요. 일본어가 늘면서 분에 넘치게 소설가 요시다 슈이치나 만화가 니노미야 토모코 같은 거물을 인터뷰하기도 했고요. 재미없는 질문에도 근사하게 대답해주는 분들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컸죠. 그러다 음반을 내고 인터뷰당하는 처지가 되니 자연스럽게 모든 자리에 성실히 임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엔가 인터뷰어들의 재미, 파헤치고 벗길 수 있는 권리를 제가 빼앗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요.

## 크리틱

언젠가 음악계 모 선배님에게 평론가들이랑 너무 각세우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어요.(웃음) 비평가들과 한 인터뷰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저를 어떤 틀에 넣어놓고 “너는 이런 뮤지션이잖아, 네가 이런 걸 왜 해?”라는 식이면 특히 그렇죠. 이를테면 “신인 밴드였으면 좋은 평을 썼을 텐데 오지은과 늑대들이어서 좋은 평을 못 주겠다”는 얘기는 음악 비평이 아니라 오지은 비평이잖아요. 전략 비평의 차원에 음반을 놓고 아티스트와 비평가의 두뇌 싸움으로 몰고 가면 좀 답답해지죠. 한편으론 많이 생각해서 열심히 쓴 리뷰를 보고 해당 창작자가 한마디로 헛소리라고 단정 지으면 그것도 불편하지만요.

## 핀란드

작년 여름 핀란드에 갔다 오면서 핀란드 여행을 쓴다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는데, 실은 그동안 책 콘셉트가 바뀌었어요. 알고 보면 <훗카이도 보통열차>도 훗카이도 여행 정보와 거리가 멀잖아요? 이번 책은 그런 점이 더 도드라져서 아예 중간에 한 번 책을 엮고서 핀란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는 산문집으로 다시 기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 ‘지은’

1집과 2집 타이틀이 제 이름과 같은 ‘지은’이잖아요. 너무 일기장 같은 앨범이고 곡 하나하나가 내 얘기다 보니 앨범 타이틀로 멋부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번엔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까지 자전적이었다면 이번엔 좀 더 픽션 같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프로듀스는 여전히 제가 하지만요. 기술적으로는 소리가 풍부하고 그루브도 적당히 있으면 싶어요. 예전엔 버터나 설탕기를 어떻게 다 들어낼까 고민했는데 이번엔 안 그러려고요. 그렇다고 딸기 장식을 할 건 아니지만.(웃음)

## 트위터

사실 트위터가 진지한 얘기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홍보 수단으로 쓰는 사람도 많고, 140자라는 공간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쿨하고 멋진 생각을 하는지 보여주는 무대 같아서 유치한 반발 심리로 먹는 얘기랑 헛소리만 하는 것 같아요.(웃음) 진지한 얘기를 하기에 너무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이고, RT라도 하면 무조건 타임 라인에 떠버리는 점이 폭력적이란 느낌도 들어요. 축축한 글이 누군가의 일상에 단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긍정적인 면을 애써 무시한다면 그것도 위약이지만요. 근데 사실 제 팔로어 중 상당수는 제가 가끔 올리는 신재평(페퍼톤스)이나 정준일(메이트)의 사진을 보려고 절 팔로우하고 있어요.(웃음) 진짜라니까.

## 해피로봇

참 고마운 게, 2집 때는 제 작업을 처음 소속사에 들려준 시점이 이미 마스터링까지 끝난 상태였어요. 회사 입장에서 어찌 보면 돈만 댄 거죠.(웃음) 물론 절 믿어주시기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주시니 실망 안 시키려고 저 자신을 몰아붙이게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세 번째 앨범이고 하니 더욱, 앨범 콘셉트에 관한 한 해매는 모습이나 설익은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 축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무대가 결혼식 축가죠. 음향, 조명, 관객 몰입도 다 최악인데, 바로 앞에 선 사람들한테는 인생의 순간이잖아요. 원래 평소 라이브 때 안 떠는 편인데, 축가는 다리가 떨려서 서 있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양하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좋아하는 소설가 김애란 씨의 부탁으로 그분 결혼식에서 3집에 들어갈 신곡을 불러드렸어요. ‘네가 없었다면 나는 도화지의 작은 점’이란 가사가 후렴이죠.



등 전체가 색시한 시스루인 의상 (관심법을 쓰면 보인다).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던 나날, 갑작스레 찾아온 봄비가 분위기를 한층 더 운치 있게 만들어주었다. 거리를 거닐기도 어려운 날씨였지만, 해맑은 목소리로 우산을 접으며 들어온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열심히 인터뷰에 응했다. 별명에서 느껴지는 ‘마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철부지 공주님마냥 시원시원하고 솔직한 그녀의 목소리와 웃음이 오랜 음악 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아닐까.



 **LOVE**

# 여자의 마법에 대한 궁금증 BIG 3

여자에 그 날에 대해 수컷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만 모았다.  
BY 김희성 DESIGN 신속희



그날, 다른 말로는 마법, 생리, 멘스가 있다.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볼드모트란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하고 '어둠을 먹는 자', '그 자'라고 빙빙 돌려 칭한 것과 같이 생리하는 날을 '그날', '마법에 걸린 날'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인 듯 하다. 여하튼 여자의 그날은 한 달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난자가 미처 수정되지 못

해 밖으로 나오는 슬픈 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난자의 주인인 여자들도 극도의 상실감과 우울감을 느낀다. 여자들이 그 날 왜 우울하고 민감한지에 대한 푸념과 해명은 여기까지. 에디터가 여기서 굳이 그 이유를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자의 그날에 대해 수컷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들을 알려주려 한다.



## 수컷들의 궁금증 1.

### » “왜 여자들은 그날을 그날이라고 말하지 못하나요?”

#### 그날을 그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1.

##### 사실 나도 하고 싶었어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다. 평소 같으면 허락했을텐데 마법에 걸린 날이라 눈물을 머금고 거절했다. 만약 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나는 평생 그의 머릿속에 피쟁이로 기억되는 거잖아?

에디터가 아는 남자 사람들에게 “이번 달 칼럼 주제는 ‘여자의 그날’인데 뭐 궁금한 거 있냐”고 물었더니 “왜 여자들은 그날이면 그날이라고 말을 못하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던졌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오빠 나 생리해”라고 말하면 편하고 쿨하고 좋다. 하지만 이젠 어디까지나 상대가 섹스 파트너, 남친일 때만 쉽게 튀어나오는 말이다.

원래 알던 남자나 호감을 가지고 있던 관심남, 아는 오빠, 클럽에서 방금 만난 남자 등 이제 막 진도를 나가기 시작한 남자에게 그 말을 하는 게 어려울 뿐이다.

사실 여자들의 축이란 대단히 발달해 있어 누군가 저녁을 먹자고만 해도 오늘 같이 자게 될지 아닐지에 대한 감이 온다. 가장 애매할 때가 마법에 걸린 날 평소 호감이 있던 수컷이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할 때다.

“분명 저 수컷은 오늘 나에게 섹스를 하자고 할거야”라는 직감이 들지만 마법에 걸린 날이라 상대 수컷의 섹스 제의를 거절해야 할 것이라 길 미리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지 저녁밥을 함께 먹자고 한 수컷에게 “오빠, 저 그날이에요”라고 굳이 말하는 것도 매우 이상한 그림이다. 결국엔 저녁을 먹고 나서 상대방이 본격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야 다른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만다. 우리도 무척 기다렸던 순간인데 말이다.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가슴을 만지는 것까진 허락한 그녀가 삼입만은 완강히 거부한 적 있지 않나?

다른 건 다 허락해 놓고 왜 섹스만은 싫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 적이 많았을 거다. 그 단계쯤 가면 우리도 끝까지 가고 싶대 하지만 그날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거절하는 거다. 물론 당신에겐 다른 이유를 댈겠지.

그녀가 다른 곳은 다 허락해도 아랫도리만은 사수한다면

그 이유는 대체로 그날이기 때문인 거다.

당신은 괜히 엉뚱한 데 힘빼지 말고 그녀를 매너있게 보내 주면 된다. 그리고 마법이 끝날 때쯤 다시 연락하면 된다. 그녀가 매우 반갑게 전화를 받을 거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NO!”를 외치는 건 당신이 마음에 안들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꼭 다시 연락해♡

##### 사실 나도 안 괜찮아

#### 그날을 그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2.

괜찮다고, 괜찮다고 해서 진짜 괜찮은 줄 알았더니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시츄에이션은 뭐지?

전쟁이 한바탕 지나간 자리 실컷 하고 나서 불을 켜보니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 쪽팔려.

그렇다고 해서 오래 만난 섹스 파트너, 남친과는 그날에 관계를 갖는 것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생리 중에는 아무래도 냄새도 나고 또 뒷감당이 안되니까 가능하면 그날은 피하려고 하는 거다.

하지만 상대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오래된 파트너에게 마저 완강히 “NO!”를 외치는 이유는 하고 나면 꼭 후회가 되기 때문이다.

이유는... 굳이 말 안해도 알 거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당신도 후회한 적 많지 않나?

그날에 하는 섹스는  
“ 하고 나서 100% ”  
후회한다





?

### 수컷들의 궁금증 2.

» “그렇다면 여친이 ‘오빠, 나 생리해’라고 말하지 않아도 곧 그날이 닥쳐 올거라는 걸 미리 아는 방법은 없나요?”

#### 얼굴에 여드름이 난다

평소에 여드름 같은 건 절대 안 나는 피부라도 꼭 그날이 되면 턱이나 이마에 여드름이 하나, 둘 정도 생긴다. 보통 그녀는 거울을 보면서 무척 상심하거나 화를 낸다.

#### 화장이 뜬다

얼굴에 뭘 아무리 바르고 자도 피부가 거칠다. 한 달 중 가장 못생겨지는 시기다.

#### 배가 나온다

허리가 끼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다. 웬만하면 식사 약속을 잡지 않는다.

#### 식탐이 증가한다

호르몬의 노예가 되어 먹고, 먹고, 또 먹는다. 평소에 안 먹고 싶던 것까지 먹고 싶어진다. 그래서 배가 더 나온다. 그리고 더 화를 낸다.

#### 자름신이 내린다

영국 허트 포드셔대학 발달심리학과 카렌 파인 박사 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날을 앞둔 열흘간 여성들은 총동 구매욕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한다. 월경을 시작하기 전 열흘 정도의 ‘황체기’에 여성들은 쇼핑을 더 많이하며, 필요없는 물건을 사고 후회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때는 우리를 안 만나는 게 좋을 걸?

#### 가슴이 아프다

평소 가슴 애무를 해주는 걸 좋아하던 여친이 갑자기 인상을 찌푸린다면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다.

?

### 수컷들의 궁금증 3.

» “여친이 생리대를 사오라는데 도대체 뭘 사야 하나요?”

..... 며칠 전부터 징조가 있더니 갑자기 마법이 시작됐다.

..... 그런데 당연히 집에 있어야 할, 있을 줄 알았던 생리대가 없는 것이었다. 밖에 나갈 수 없는 나는 급한대로 근처에 사는 남친을 호출해 생리대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마침내 남친이 구세주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검정색 비닐봉지를 딱 내밀었는데... 그 안에는 ‘대형’라고 적혀 있는 생리대가 들어 있었다. “자기야, 내가 그렇게 똥똥해 보여?”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 알아 맞춰봐

여친이 생리대 사달라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예상외로 너무 다양한 종류의 생리대가 포진하고 있어 당황했던 경험 한 번씩은 있을 거다. 그냥 옷 고르는 것처럼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골라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의약품처럼 그날 그날의 상태에 맞게 신중하게 사야 하는 건지 크기는... 모양은...

하지만 당황스러운 건 당신 뿐만이 아니다. 당신이 고심끝에 골라온 생리대를 받아든 우리의 마음도 꽤나 복잡하다. 수많은 생리대 중에 당신이 왜 굳이 그걸 골랐냐에 대한 온갖 생각이 다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취향을 100% 맞출 수도 없고 생리대 취향까지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생리대 심부름을 해주고도 욕 먹는 일이 다반사인 생리대 심부름에서 최소한 그녀가 빠치는 건 면해야 하지 않겠어?

**향**

무향, 라벤더향, 썩향, 허브향에서부터 도대체 무슨 향인지 감이 안 잡히는 후레시 라이너향. 기분이 좋아지는 향까지 다양하다. 여기서 무조건 피해야 할 건 썩향이나 허브향, 그리고 '한방'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모든 생리대다. 생리대에서 썩향이 나거나 한방 성분이 들어 있으면 웬지 여친의 소중한 몸을 지켜줄 것만 같은 기

분이 들어 여친을 위하는 마음에 한방 생리대를 덩싹 집어들기 쉽겠지만, 이걸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아이템이라 모 아니면 도다.

이건 써 본 사람만이 아는 건데 한방 성분이 들어있는 생리대의 향이 진짜 장난 아니게 강하거든. 가뜰이나 냄새에 민감해진 여친의 후각을 자극하지 말 것.

**BAD CHOICE** 거의 모든 한방 생리대  
**BEST CHOICE** 무향 생리대

**모양**

자, 이제 후보군이 좁혀졌다. 생리대 모양은 크게 날개형, 일반형으로 나뉘지는데 여기서 날개형을 집어 들어야 한다. 날개형 생리대는 이름 그대로 생리대 양쪽에 날개처럼 접착면이 붙어 있어 고정도 잘되고 옆으로 생리혈이 새는 것도 막아준다. 일반형 생리대는 날개형 생리대에서 날개처럼 생긴 접착면이 없는 거다.

접착력이 좀 약한 생리대의 경우 팬티에 제대로 붙지 않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일반형 생리대는 누가 사냐고?

생리대의 날개면 때문에 피부가 쓸리는 약한 피부를 가졌거나 양이 적은 날이라 설 걱정이 별로 없는 날 사는 거다. 여친이 당신에게 생리대 심부름을 시킬 정도면 양이 많을 때니까 무조건 날개형으로 골라야겠지?

**BAD CHOICE** 일자형  
**BEST CHOICE** 날개형

**사이즈**

당신은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될 거다. 생리대 포장지에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이라고 사이즈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음, 여친은 좀 엉덩이가 큰 편이니까 소형이나 중형은 좀 작을 거야"라는 생각에 대형이나 초대형을 집어 들면 절대 안된다. 생리대 사이즈는 옷 사이즈처럼 44, 55, 66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 크기나 몸무게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다. 생리대 사이즈는 생리혈의 양에 비례하는 거다. 보통 여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중형'이니 당신도 중형을 집어들 것. 그리고 평소 편하다는 이유로 대형을 사용하는 여친이더라도 막상 당신이 대형을 골라오면 '내가 그렇게 돼지같이 보이냐', '나 요즘 살짤' 등 온갖 상상을 다하게 되니 닥치고 중형!

그래도 정 모르겠으면 종류별로 골라 집어라.

**BAD CHOICE** 대형  
**BEST CHOICE** 중형

결국 당신이 사야 할 건 '무향+날개형+중형' 생리대다. 여친이 빠질 일도, 사다주고도 욕 먹을 일도 없는 **베스트 초이스!**



## 세계 맥주 기행: 벨기에 편

애들은 흥합에 와플만 먹는 거 아니었어?  
BY 이효복 (대표이사 / www.wabar.co.kr)  
DESIGN 신숙희

### 맥주의 천국, 벨기에

면적 3만 1,000km<sup>2</sup>에 인구 1,000명이 사는 조그만 나라 벨기에. 하지만 벨기에는 수많은 양조장과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갖추고 있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게 맥주야?" 싶을 만큼 좀처럼 맥주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특이한 것도 많다. 많은 바에서 다루는 맥주 상표의 가짓수만 해도 수백 종에 달해 벨기에 맥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한참 고민에 빠지게 된다. 안트베르펜의 퀴미나토르(Kulminator)만 해도 메뉴에 수록된 맥주 수가 400개를 넘는다. 이쯤 되면 벨기에양조업협회(CBB)가 벨기에를 '맥주 천국(Beer Paradise)'이라고 부르는 것도 자백이 아닌 듯 싶다. 이 협회의 공식 사이트 도메

인 역시 [www.beerparadise.be](http://www.beerparadise.be).

### 강한 도수의 벨기에 맥주

벨기에 맥주는 유럽 다른 나라의 맥주보다 강한 편이다. 아마도 이 나라만큼 독한 맥주를 스스럼없이 마시는 곳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맥주의 알코올 도수는 5%(abv)이지만, 이는 벨기에에선 가장 약한 편에 속한다. 대부분은 7~8%고 10~11%도 드물지 않다. 다행히 주로 용량이 작은 잔에 나오긴 하지만 벨기에에 갈 일이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Craft beer) 열풍으로 유럽의 진귀한 맥주들이 다시금 주목받는 가운데 맥주 스타일의 보고로서 벨기에 맥주는 단연 연구 대상 1호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유행에도 의외로 벨기에 바깥에서 이 나라 맥주를 접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도 호가든(Hoegaarden)이나 레페(Leffe) 등 서너 종류가 소개되고 있을 따름이다. 새 발의 피라고나 할까? 현재로서는 벨기에 맥주를 맛보기 위해서는 천상 직접 그곳에 가는 수밖에 없다.

### 묵힐수록 맛이 좋은 벨기에 맥주

훌륭한 벨기에 맥주의 대부분은 병 속 숙성 맥주(Bottle-conditioned beer)다. 병 속 숙성이란 말 그대로 병 속에서 계속 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자연 탄산의 생성과 함께 더 깊은 맛과 향을 낸다. 이러한 과정은 병 속에 남아 있는 생 이스트(living yeast)에 의해 진행된다.

병에 담기 전에 살균을 위한 열처리와 여과를 거치면서 이스트를 죽이고 걸러낸 후 이산화탄소를 인위적으로 맥주에 녹이는 보통 일반적인 맥주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김치나 와인처럼 묵히면 묵힐수록 맛이 좋은 맥주, 그것이 벨기에의 맥주다.

하지만 열처리와 여과를 거친 맥주가 투명하고 깨끗한 반면, 병 속 숙성 맥주는 이스트에 의한 침전물(sediment)이 생기는 흠(?)이 있다. 맥주는 깨끗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믿음과 이스트 침전물이 몸에 해롭다는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침전물이 생기는 이러한 맥주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 유리잔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1850년대 이전에는 맥주의 투명함을 만드는 사람이나 마시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맥주 양조의 장구한 역사에서 보면 정말 최근의 일인 셈이다. 이스트를 먹는 것 역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엔 드물지만 서양 음식에서 이스트는 빠질 수 없는 재료다.

안트베르펜의 펠그림(Pelgrim) 카페이션 근처의 데코닉 양조장(De Koninck)에서 가져온 여분의 이스트를 맥주를 마시는 손님들에게 작은 잔에 별도로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작은 잔을 들어 이스트를 훌쩍 들이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맥주에 부어서 마시기도 한다.



요즘 제일  
집 나가는  
맥주는?



## 7천 년의 역사와 중세 유럽의 비밀을 간직한 벨기에 맥주

독한 맥주를 스스럼없이 마시기도 하지만 벨기에의 주당들은 다른 종류의 맥주를 마시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다. 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의 주당들이 1년 동안 한 종류의 맥주를 계속 마신 반면, 벨기에 사람들은 같은 기간 평균 일곱 종류의 다른 맥주를 마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정도면 유럽 최강의 주당들 아닌가! 벨기에의 맥주는 종류마다 특색이 있지만 람빅(Lambic) 계열은 아주 독특하다. 람빅을 만드는 자연 발효 방법은 그 기원이 7,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집트나 인더스 문명 사람들이 곡식을 발효할 때 사용했던 방법인 것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갓 만든 맥아즙(wort)을 냉각조에 담아 놓고 밤새 공기가 자유롭게 통하는 곳에 놓아 두면 공기 중의 야생 이스트가 그 안에 내려앉는다. 야생 이스트와 함께 온갖 종류의 미생물이 이 과정에 참여한다. 냉각이 끝난 후 발효조로 옮기면 람빅 양조업자는 다음 세 가지 일을 빼고는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긴다. 원재료를 고르는 일, 맥주의 산도를 바꾸는 일, 발효 온도를 조정하는 일이 그것이다. 람빅은 대부분 드래프트(draught)로, 양조장 소유의 작은 카페에서나 맛볼 수 있다. 신맛이 강하지만 숙성 정도에 따라 와인처럼 그 풍미가 많이 다르다. 보통은 3년 된 것을 마신다.

비록 람빅이 독특하지만 벨기에 맥주를 전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에일(Ale)이다. 에일의 전통이 강한 것으로 따지면 영국과 아일랜드도 빠지지 않겠지만 벨기에와는 약간 다르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에일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드래프트 에일이 주종이라면, 벨기에에는 알코올 함량이 높은 것을 중심

으로 그 범위가 넓고 병맥주(bottled ale)가 대부분이다. 맥주 맛으로 구분하자면 영국 쪽은 크게 마일드(mild)나 브라운(brown ale), 비터(bitter)나 페일 에일(pale ale), 포터(porter)나 스타우트(stout) 세 가지가 전부인 반면, 벨기에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마시는 방식도 다르다. 영국과 아일랜드 사람은 맥주를 큰 잔에 찰랑찰랑할 정도로 가득 담아서 단숨에 들이켜는 데 반해, 벨기에 사람들은 맥주에 맞는 잔을 잘 챙기고 맛을 음미하는 편이다. 단순히 묘사했지만 맥주에 대한 두 지역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트라피스트 에일(Trappist ale)은 맥주 종류 이름이 라기보다 바티칸(Vatican)으로부터 맥주 양조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6곳의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를 가리킨다. 이들은 중세 이래 지금까지 양조를 계속 해온 수도원으로 현재 다섯이 벨기에에, 하나는 이웃 네덜란드에 있다. 중세의 신비를 간직한 트라피스트 에일은 맛과 향이 매우 깊고 오묘하다. 수도하는 마음으로 맥주를 만드느라



를 수밖에!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만들고 또 즐기는 벨기에에서도 대부분 유럽 국가가 그렇듯 맥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순한 라거다. 그래서 맥주 한 잔(a beer) 달라고 하면 웨이터들은 군말 없이 라거를 들고 나온다. 아니, 벨기에까지 갔는데 기껏 우리나라에서도 마실 수 있는 라거를 마셔야한 말인가! 노, 노, 벨기에에선 자기가 원하는 맥주를 주문할 때 분명히 상표를 말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맥주가 있고 그 종류에는 무슨 상표가 유명한지 알아두면 유익하다. 요즘엔 다양한 세계 맥주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있으니 유용하게 써먹도록! 🍷



트라피스트 에일만이  
쓸 수 있는 고유 로고



## 벨기에의 맥주 스타일

### ▼ 람빅(Lambic) 계열

람빅 (Lambic)	야생 이스트를 사용한 자연 발효로 신맛이 강한 밀맥주, 브뤼셀과 센 강 계곡에서 만든다.
파로(Faro)	람빅에 황설탕을 첨가한 것
괴즈 (Gueuze)	묵은 람빅과 갓 만든 람빅을 섞어 2차 발효시킨 것
과일 람빅 (Fruit Lambic)	덜 숙성된 람빅이나 괴즈에 체리나 라즈베리를 넣어 2차 발효시킨 것

### 에일(Ale) 계열 ▶

트라피스트 에일 (Trappist Ale)	바티칸이 공식 승인한 6곳의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 독점적으로 'Authentic Trappist Product' 로고를 사용한다.	골든 에일 (Strong Golden)	라거에 대응하기 위해 1970년대 개발한 에일. 두블(듀벨)이 대표적.
수도원 맥주 (Abbey Ale)	과거 수도원에서 만들던 전통 맥주를 상업화한 것	벨지언 에일 (Belgian Ale)	1920년대 필스너에 대응하여 만든 에일. 벨기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즐긴다.
밀맥주 (Wheat Beer)	코리안더 열매 같은 아국적인 향신료를 사용한 밀맥주. 호에가르덴과 루뱅 지역에서 만든다.	세종 (Saison)	겨울에 만들어 저장했다 여름에 마시는 농촌 맥주. 알로니아 등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만 만든다.
브라운 에일 (Old Brown) / 플레미시 레드 에일 (Flemish Red)	맥주를 참나무 통에서 숙성시키는 전통 제조법을 이용한 에일. 동플랑드르 오데나아 인근의 것은 브라운 에일(올드 브라운), 서플랑드르의 것은 플레미시 레드 에일로 구별된다.		

6	개월 정기구독	정가 <del>33,600원</del>	▶	할인가 30,600원	3천원 할인 + 1000씩 적립
12	개월 정기구독	정가 <del>67,200원</del>	▶	할인가 60,200원	7천원 할인 + 2000씩 적립
24	개월 정기구독	정가 <del>134,400원</del>	▶	할인가 119,400원	15천원 할인 + 4000씩 적립
36	개월 정기구독	정가 <del>201,600원</del>	▶	할인가 171,600원	3만원 할인 + 6000씩 적립
48	개월 정기구독	정가 <del>268,800원</del>	▶	할인가 218,800원	5만원 할인 + 8000씩 적립

요모조모 참 쓸쓸한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아싸 흥구내!

사은품 확인  
하러 가기




TASK 액티브 모이스처라이저



마누스 그립 컬렉션



맨즈 클래식 더블 이펙트 B.B크림



반8 언더웨어



과월호 1년 패키지 [1~12호]

# MAXIM

## 정기 구독 신청 안내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결제 방법**  
1 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2무통장 입금  
(예금주\_주식회사 와이미디어)

하나은행	569-910012-00904
국민은행	185801-01-004866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락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락=1원)



당신도 이제  
MAXIM 패밀리다!

# 젖어도 좋은 입 안의 스틱

MAXIM 기획회의 회의록 중에서...

BY 김희성 PHOTOGRAPHS BY ARC STUDIO WORDS 유승민 DESIGN 신숙희 ASSISTANT 손안나

**에디터SM** 편집장님, 이번달 기획안에 섹드립이 좀 부족한 거 같은데요, 그녀의 입안에 처넣고 삼은 것들이라는 주제로 아이টে을 한 번 모아보면 어떨까요?

**편집장** 섹드립이 부족해? 뭔데 말해봐.

**에디터SM** MAXIM에서 다룬만한 제품이나 아이টে을 중에 입안에 넣어도 괜찮은 거나, 입안에 넣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들을 모아보자는 거죠.

**에디터NR** 그런 게 있나요?

**에디터JM** 음... 입안에 넣는 용품이 콜렉션?

**에디터SM** 그렇지, 일단 아이스바 같은 걸 넣고 시작하는 겁니다.

**에디터HS** 그게 입 안에 있으면 빛을 발 하나요?

**에디터SM** 여자 입에 꽃힌 아이스바는 제 자리를 찾은 듯 안정감있어 보이거든요.

**편집장** 계속해 봐.

**에디터SM** '두 남자를 한 입에' 쌍쌍바나 그녀를 SCREW! 할 것같은 드릴모양의 아이스바도 좋겠어요.

**에디터JM** 그럼 비나너도 빠질 수 없겠네요. MAXIM에서 비나너를 다루려면 비노기와 광고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편집장** 포경수술 광고를 실지는 거냐?

**에디터JM** 괜찮지 않을까요? 의외로 2030 차도남 중에도 고래를 잡지 않은 남자가 적지 않아요, 남성지가 놓치고 있는 블루오션이죠.

**에디터SM** 청담동에 있는 비노기과는 아무래도 좀 더 멋스럽게 수술하지 않을까요?

**에디터NR** 그런데 왜지 광고비 대신 수술을 해준다고 할 것 같아요, 그보단 맥스봉 같은 식품 쪽이 좋겠어요.

**편집장** 어찌 제품 모양들이 일관성있게 가느 거 같다?

**에디터HS** 근데 그걸 누구 입에 넣게요?

**에디터SM** 당연히 예쁜 모델이지!

**에디터NR** 선배는 그냥 그것들을 모델 입에 넣는 게 목적인 거 같은데?

**에디터HS** 그런 칭그러운 것들 좀 말고 막대 사탕같이 달콤하고 귀여운 것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편집장**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침이 묻었을 때 녹아버리거나, 흐물흐물해지는 것들이잖아? 반대로 침이 묻어도 끄덕 없는 아이টে을은 없나?

**에디터SM** 있죠! 침을 묻히면 더 뻗뻗

해지는 가족스틱이...

**에디터JM** 그게 아이টে을이나?

**에디터HS** 그럼 담배 쪽은 어떨까요? 요새 단단한 필터로 주목받는 담배들 있잖아요?

**에디터NR** 맞아요, 최근에 나온 담배 중에 레종 에어로같은 건 침이 좀 젖어도 원형이 거의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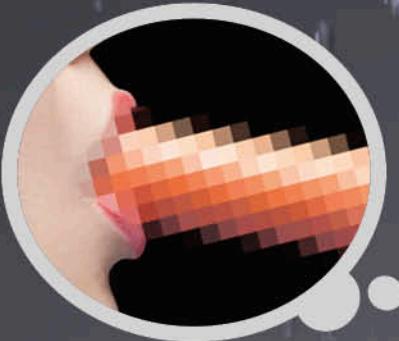
**에디터JM** 레종 에어로? 그건 필터 속이 비어있는 담배잖아? 젖으면 필터가 더 쉽게 찌그러지지 않나?

**에디터NR** 보통의 공간 필터 담배들은

그렇지, 그런데 레종 에어로는 기존의 공간 필터 담배들이랑 달라, 물에 강해서 침이 묻어도 흐물흐물해지거나 잘 찌그러지지 않더라고.

**편집장** 그래? 그거 한 갑 사와 봐, 야, 너는 이런 걸 좀 생각해오란 말이야, 이상한 거나 모델 입에 넣을 생각하지 말고 병신아.

**에디터SM** 네... 단단한 아이টে을들로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류비 가격미정  
츄피츄스 300원  
비나너 스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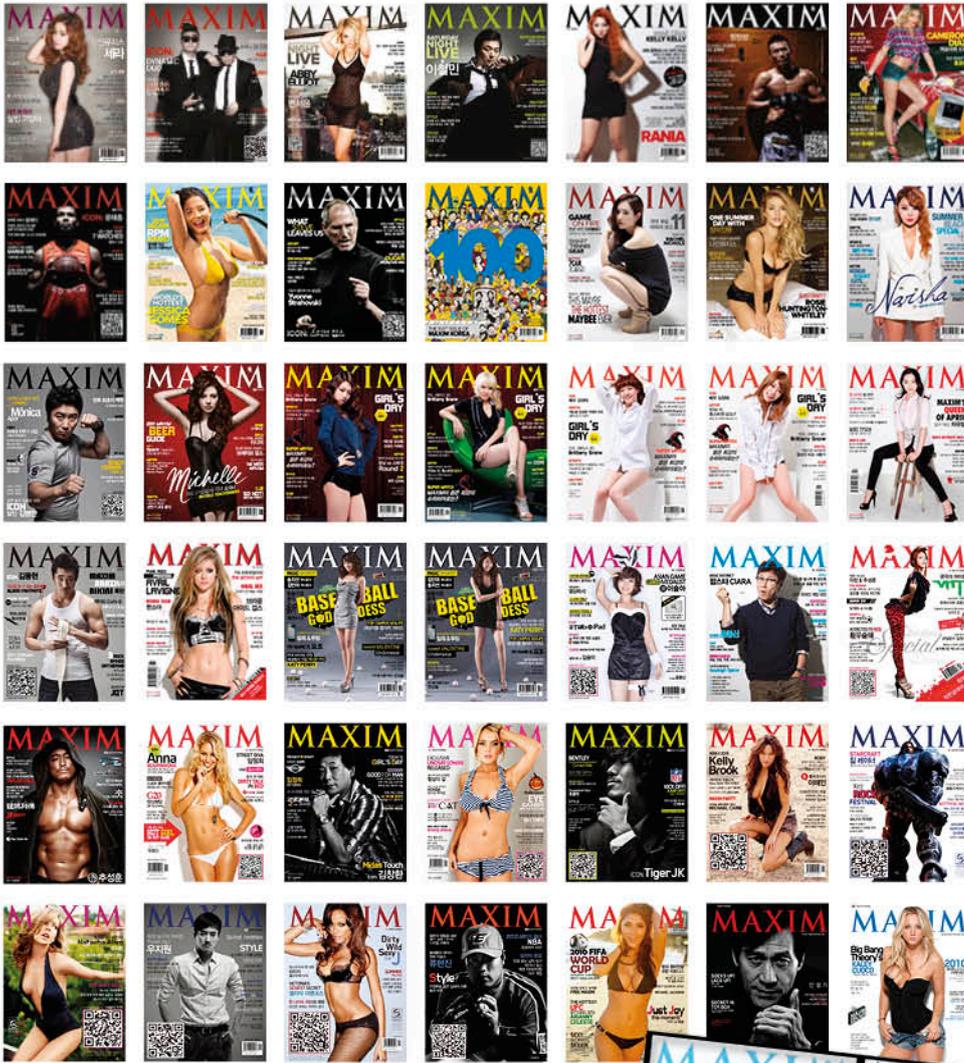
니, 담배  
가꾸로 물었다.

누가나  
좋아하나?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탈아민, 니코틴,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고: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탈아민, 니코틴,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MAXIM ONLINE STORE

지난 호 MAXIM을 놓쳤나?

목숨과도 같은  
당신의 MAXIM 컬렉션에  
이빨이 빠졌나?

서점에서든, 인터넷서점에서든  
MAXIM 과월호를 구할 순 없다.

좌절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으로 오라!

## MAXIM 과월호 총알 배송!

(총알을 드리진 않아요.)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구매 메뉴  
로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온 MAXIM  
매거진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녀가 품절되기 전에  
어서 장취하시길!

\*평일 오후 4시 이전에 입금하시는  
독자금께서는 당일 발송 가능합니다.  
일부 과월호는 품절되었을 수 있습니다.  
진지현처럼 말이지(진장).



하루이틀의 배송기간도 당신에게 너무 길다면? 해외에서  
주문하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면? 사려던 MAXIM 과월호가  
절판되었다면? 종이 매거진보다 저렴하게 MAXIM을 즐기고  
싶다면? 잡지 속 영상과 함께 생생한 화보를 감상하고 싶다면?

## MAXIM E-MAGAZINE 에 주목하라!

MAXIM 홈페이지의 과월호 메뉴에서 e-매거진 구매를 클릭하시면  
권당 1,500원에 MAXIM의 E-매거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e매거진 1권 이용권 **1,500원**
- e매거진 6권 이용권 **8,100원 (10% 할인)**
- e매거진 12권 이용권 **15,300원 (15% 할인) + 1000씩 적립**
- e매거진 24권 이용권 **28,800원 (20% 할인) + 2000씩 적립**

\*이용권은 1권당 첫 열람 시점부터 30일 동안 유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MAXIM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MAXIM DIGITAL CONTENTS

그대 진정 MAXIM의 마니아인가?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마!

- 1 수시로 터지는 이벤트와 쏟아지는 선물 세례
- 2 MAXIM 고화질 화보와  
올페이지 다운로드 서비스
- 3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의  
MAXIM e매거진 보기
- 4 활영상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화보 공개
- 5 잡지엔 없는 미공개 화보
- 6 다음달 MISS MAXIM을 당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MISS MAXIM 온라인 콘테스트



# POWER OF NAME

내 이름 석자를 걸고!  
BY 유승민 DESIGN 서운정 ILLUSTRATION 전영훈



## 이름의 힘 : 책임

누구나 한 번쯤 자기 이름을 건 일에 몰두해 본 경험이 있다. 그게 직업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고, 학창 시절에 백일장에서 써냈던 글짓기에 관한 기억일 수도 있다. 그 때 당신이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집중력을 발휘해 완성도를 높였던 건 왜일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보통의 책임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인터넷 실명제 하에서는 댓글을 남길 때에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글을 쓰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 이름의 힘 : 신뢰

그렇게 누군가의 이름, 그것도 실명을 달고 나온 물건은 묘한 마력을 갖게 된다. 특히 쏟아지는 제품들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힘은 더욱 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자본주의에서 시장에 내놓을 어떤 제품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다는 건 품질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과 장인정신이 수반되어야만 쓸 수 있는 '배수의 진'과도 같다. 왜냐고? 이름이란 건 쉽게 버리고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명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브랜드와 달리 포기할 수가 없다. 그 '이름'이 지닌 영속성을 상품에 각인했을 때 그 제품은 영속적인 보증수표를 달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신감의 표현에 간혹 더 많은 돈도 망설임 없이 지불하곤 한다. 슬픈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우리는 그만큼 정제 불명의 업체들이 '치고 빠지는' 불안하고 못 믿을 세상을 살고 있다는 얘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품에 당당하게 새겨진 아무개의 이름을 보고, 그것이 비록 처음 듣는 이름일지라도 그 이름 석자에 대한 '신뢰'의 대가를 망설임 없이 지불하는 것이다.

## 이름 석자의 정공법: KT&G

요즘 마트에 가 보면 과일, 채소와 같은 먹거리에 개별 생산자의 실명을 박아서 소비자들에게 내놓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매일유업 상하치즈의 생산자 표기제나 농산물 먹거리 안심 실명제가 소비자들에게 반향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이름을 통한 책임-이름을 향한 신뢰가 강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건 먹거리 뿐만이 아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KT&G의 제조실명제 담배다. 눈썰미 있는 독자는 이미 본 적이 있을 테지만 KT&G는 담배 회사로는 세계 최초로 자사의 모든 제품 케이스마다 생산자의 실명을 새겨 넣는 파격적인 시도를 단행했다. 실제로 공정에서 손질이 달았던 얼굴 없는 주인공들의 이름을 새긴다는 건 하나하나의 제품, 매 순간이 새로운 '약속'이자 무한 책임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마치 좋은 와인에 와이너리의 시그니처를 새기는 것처럼 말이다. 다국적기업들의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담배 시장에서 KT&G 담배 생산자의 이름 석자는 어떠한

광고 문구보다 강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담배를 한 개비 꺼내 물 때마다 마치 옆집에 살고 있는 아저씨 일 법한 구수하고 친근한 이름을 되뇌이며 그가 여기에 담았을 정성과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이 이름의 주인공들에겐 상당히 부담되는 결정이었겠지만, 담배업계 최초의 품질실명제는 제품 하나하나에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겠다는 KT&G의 약속이자 의지의 표명이다. 기술 혁신이나 디자인적인 감성뿐 아니라 이와 같은 경영 혁신으로 KT&G는 고객 만족도를 한 단계 높이고, 제조 공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더 높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와중에도 그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를 다지는 KT&G가 또 어떤 혁신으로 다가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HOW ABOUT US?

MAXI에다터가 밤잠 안자고 엑기스를 쥐어짜는 이유도 어쩌면 같다. 만약 기사에 'BY 아무개'라고 이름이 안 들어간다면? 편집장한테만 OK받으면 끝이지. 하지만 이 'BY 아무개'를 달면 얘기가 달라진다. 마누라가 내민 이혼서류보다 독자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니 말이다. (사장님, 오타냈을 때 행복하게 칼 좀 사주세요)



# ROAD FC 007

## RECHARGED!!

문답무용! 말이 필요 없다!

BY MAXIM 편집부 DESIGN 신속희 COOPERATION&IMAGE ROAD FC(www.roadfc.com)



전투력이 풍부한 몸매로군.

유 아스틴 마이 남바엔 라운드걸 주다하가 우월한 몸매를 뽐내고 있다. 그 밑에서는 베지터(또는 라데츠)로 추정되는 남자가 신형 스카우터로 그녀의 전투력을 측정 중.



데니스 강의 동생 토미 강(왼쪽) vs. 손혜석 선수의 동생 손규석(오른쪽)

결과는 펀치와 멧집이 앞선 토미 강의 깔끔한 2라운드 KO승!



지면 집에 가서 출라 팸 거야.

승리 후 형 데니스 강이 "아이구, 우리 동생 이쁘다~ 우썬썬" 를 해주었지.



니 내랑 함 불자!

한편 손혜석 선수는 "쉬밤, 내 동생을 패? 내 맘이 찢어진다!"며 데니스 강과 링 위에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쳤지. 실제상황!



갑시다!



컴컴한 체육관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개회 선언 중인 박상민은 로드FC 임원으로 활동 시작!



살벌하고 화끈한 한바탕 전쟁이 지나고,  
라운드걸 김하늘은 우릴 보고 웃네.  
다음엔 강원도 원주에서 보자고!



쌍칼 아저씨도  
즐거워 보여.  
아님 오즘이  
마려운가?



경기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고, 라운드걸의 애교  
와 조명 때문에 눈이 부셔 실명하는 줄 알았어.  
입구에서 지팡이나 선글라스 같은 거 나눠주나?



이따 올라가서 시토 소코를  
상대로 2라운드 암바 서브  
미션 승리할 것 같아.

그렇싸해...

한편 선수대기석에서는 출전하는 선수들이 모여 한담을 나누었지. 참고로 강경호 선수(가운데)는  
배우 뺨치게 생겨서 인기가 많아. 아, 진짜 뺨을치고 다닌다는 건 아니야.



해설위원 3인의 위용.  
종합격투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개그맨 이승윤(오른쪽)은 키가 안 맞아서  
콜라 상자를 밟고 서있어.  
그래도 니가 호빗 중에 제일 크대!



격투 경기장에 오는 여성 관객이  
많이 늘었어. 데이트 장소로도 최고  
야. 그녀가 피를 보면 흥분하는 타  
입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

사내새끼가 뭘 힘이  
그래 없노? 요래 요래  
강냉이를 확 털어베래!



## 이겼네 김석모

목포에서 올라온 김형률 선수를 상대로 이날 멋진 킥을 선보이며 1라운드 TKO승을 거둔 김석모 선수를 만났다.

### 파이트머니는 어디에 탕진했나?

그동안 날 응원하고 도와준 분들 선물을 샀다. 맘에 들어하면 좋겠다.

### 화끈한 1라운드 TKO였다. 전날 폼자리가 좋았나?

무슨 소리. 평소 컨디션이 아니었고 손가락 부상도 때문에 불안했다. 경기 중에 상대가 움찔하는 모션을 보였고, 그 찬스가 아니면 힘들 것 같아 그냥 밀어붙였다.

### 다 이겨놓고 컨디션이 안 좋았다니, 구라 까지 마라.

최악이었다! 손가락은 바로 일주일 전에 탈골돼서 인대도 성치 않았고, 심지어 날씨도 안 좋아서 온몸이

육싹육싹 쑤셨다.

### 대단히 빠르고 위협적인 타격이었다. 경기 전 게임 플랜은 잘 먹혔나?

늘 연습하고 생각하던 패턴이었다. 공격 들어가는 순간 기억을 잃었다. 몸이 움직이는 대로 따랐을 뿐.

### 상대 김형률처럼 한방이 있는 사람과 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절대 상대의 경기 흐름에 끌려가지 않도록 앞으로 치고나가면서 공격하는 훈련을 많이 했다.

### 상대가 피를 흘리는 걸 보면 기분이 어떤가?



뭔가 내가 이긴 것 같지만 피 흘리는 부위를 다시 공격하는 건 좀 미안하기도.

### 반대로 당신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게 느껴지면 어떤가?

찬스라고 생각한다! 출혈이 있는 데미지를 입은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반격해보면 상대는 분명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생각할 거다.

### 유튜브에서 '로기를 하다 뼈가 3자로 부러진 선수' 영상을 봤다. 당신은 어떤 부상이 가장 두렵나?

어떠한 부상도 두렵지 않다. 하지만 부상 입은 동안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큰 고통이다.

### 뭐 이리 멋진 말만 해!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정말 피해야할 음식 3가지만 꼽는다면?

치킨, 과자, 탄산음료. 피해야 하지만 절대 피할 수 없... 🍷

## ROAD FC 008 FINAL 4 BITTER RIV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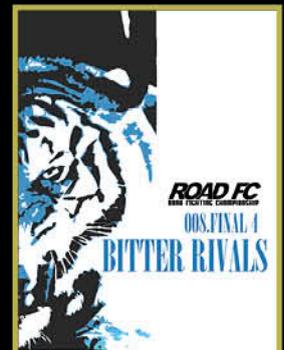
아시아 최대의 종합격투기 대회로 자리잡은 로드FC 8회 대회가 오는 6월 16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다. 그동안 백센 토너먼트를 거쳐 4강에 오른 앤드류 레온, 강경호, 문제훈, 송민종이 중 1인이 초대 뱅텀급 챔피언이 될 예정이다. 이 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경기는 '슈퍼코리아' 데니스 강의 대회 복귀다. 지난해 12월 로드FC 005에서 오야마 슌고에게 충격적인 TKO패를 당하며 자존심에 스크래치 짝짝



난 데니스 강. 그의 상대로는 007 대회에서 동생을 두고 언쟁을 벌인 손해석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레알 수컷 레알 남자인 북파공작원 출신 파이터 김중대, <남자의 자격> 합창단으로 카메라 마사지 좀 받으신 멋진 파이터 서두원이 각각 외국인 선수와 붙는다. 거기에 메인 이벤트보다 화끈한 신인들의 격전 '영건스' 대회도 펼쳐진다. 티켓 예매는 4월 24일 오픈 예정.



일시: 6월 16일(토) 18시  
장소: 강원도 원주시 치악체육관  
문의: (주)로드(033-766-7666  
roadfc@roadfc.com)



**FX**  
남자의 모든 것

KANE



# EXTREME RULES

FX채널 맛보고  
선물받기



## WWE Monthly Special 2012 익스트림 룰즈

5월 19일(토) 밤10시 국내최초방송

t.cast

Echannel SCREEN DRAMACUBE FOX FOXlife FX

[www.fxchannel.co.kr](http://www.fxchannel.co.kr)  
Copyright FXChannel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 삼국지 최고의 미인은 누구?

2006년 이후 6년 만에 찾아온 코에이 삼국지 그 열두 번째 이야기! 탐내나는 무장들로 오염된 당신의 안구를 정화시켜줄 꽃다운 삼국지의 여인들! 과연 당신은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질 것인가. 투표 좀 해라 제발! BY 송종민 DESIGN 전은경



4월 20일 일본에서 발매되는 <삼국지 12>는 전작으로부터 무려 6년 만의 신작이다. 필수 팬들에게는 <디아블로3>가 출시된 것과 동급의 충격이겠지만 아쉽게도 그 사이 코에이 코리아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해 한글화 정식 발매 가능성은 무척 낮은 편이다. 총 7가지 시나리오 모드와 독특한 카드 배틀 방식의 온라인 대전을 제공한다.

여장부

**손상향** 적과의 동침

너 같으면 과부 되고 싶겠냐

손권의 이복 여동생으로 유비와 정략결혼을 하지만 마음에 들어 했다. 손권이 모친이 위독하다는 허보를 보내 오나라로 다시 불러들이지만 유비에게 다시 돌아가길 원했다고 한다.

**촉융** 짐승녀

남만왕 맹획의 아내. 제갈량의 남벌 당시 남편이 하도 잡혀가서 횡김에 출전한다. 장역과 마총을 사로잡았으나, 위연과 조운에게 쥘 잡힌다. 능욕 당할 줄 알았는데 봐줘서 감동 먹음.

유부녀도 재 활용이 되나요?

**추씨** 과부 마니아 조조

중고 아니에요 빈티지에도요

조조는 전쟁 중 항복한 미망인 추씨에게 반해 추씨 속소의 죽돌이가 된다. 그 대가는 반란이었고, 난리통에 명장 전위와 둘째 아들 조앙이 죽는다. 이기고 이게 뭘 망신이며.

**전씨** 선착순

조조가 기주성을 함락하자 조비가 먼저 원소의 지택을 기습해 원소 아들의 처인 견씨를 보고 아내로 삼았다. 나중에 조조가 견씨를 보고 아까워서 입맛만 다셨다고 한다.

**대교, 소교** 유부녀 매니아 조조

제갈량이 주유의 화를 돌워 적벽대전에 참전 시키려고 조조가 대교와 소교를 탐하러 한다는 소문을 퍼트려 뜻을 이룬다. 조조의 뚜렷한 유부녀 취향은 이미 전국구로 유명!

조선 흥행한 삼각관계



서시, 왕소군, 양귀비와 함께 중국의 4대 미인 가운데 한 명. 왕윤의 수양딸로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한다. 결국 여포를 움직여 동탁을 살해하게 만드는 고대의 팜므 파탈!

왕이 즐지에 악처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마초에게 빼앗긴 기성을 되찾으려는 동료들과 합류할지 고민하는 남편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설득한다. 하지만 마초에게 패해 일족은 몰살. 운 좋게 그녀만 살아 남았다.

팜므 파탈

믿어지지 않는 가족 관계

장씨 DNA 무시



엄마 닮아서 구사일생

장비의 장녀로 어머니는 하후씨. 유선이 죽었을 때, 열일곱 살의 장씨를 제갈량이 황후로 만든다. 하지만 단명해서 여동생이 또 유선의 황후가 된다. 이젠 뭐 자매뎌법도 아니고.

하후씨 남치!



하후연의 사촌이자, 하후패의 사촌 여동생. 유선의 황후, 장씨의 어머니다. 열세 살 때, 나무하러 갔다가 장비에게 잡혀 아내가 된다. 죽에 망명한 하후패를 도와 차기장군까지 올렸다.

관은병 딸 바보



관우의 딸. 손권의 아들과 혼담이 오갔으나 관우가 범의 딸을 어떻게 개의 아이에게 줄 수 있느냐며 개드립을 치는 바람에 손권의 분노를 사, 전쟁의 원인이 된다.

왕원희 슬데없는 만렙



여덟 살 때부터 (시경)이나 (논어)를 독파하는 등 학문이 뛰어났고 품행이 방정했기 때문에 조부 왕림이 그녀가 사내로 태어나지 않았던 것을 아까워했다고 한다.

황월영 공명정대 제갈량



공수레 공수거, 불량수레 어떤색히

제갈량의 아내. 용모는 흥했지만, 천문, 지리, 병법을 통달한 재녀. 제갈량은 이름처럼 인재 등용하는 데 외모를 보지 않았던 공명정대한 남자였다!

스마트 뷰티

이 정도라면 나도 끼어 볼 만한데?



쥬유

# 진 연희+몽상 소녀대전★삼국지연의

PC용 어드벤처 게임으로 시작하여 가정용 이식, 애니메이션, 코믹 등 다수의 미디어 믹스를 전개하고 있는 '연희몽상 시리즈'가 드디어 아케이드용 격투 게임으로 등장! BY 스텝로케이(김경문 기자) DESIGN 서윤정



## 촉나라



### 장비

악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관우와 함께 여행 하고 있다. 관우와 호각으로 싸울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주 실패해서 관우에게 혼이 나곤 한다. 엄청난 먹보.

### 관우

서민의 삶을 지키며 각지를 여행하고 있는 소녀. 이상가(理想家)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날이 분투하고 있다.

### 조운

신장이라고 불리며 관우·장비에 필적하는 실력을 자랑하는 무장. 냉정하고 침착하지만 이따금 엉뚱한 면을 보인다. 아름다움에 대해 자신만의 독특한 고집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미의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좋아하는 것은 죽순 절임.



### 손권

손가 자매의 둘째. 언제나 진지하며 융통성이 떨어진다. 당주인 언니 손책이 원술의 영향 아래에 있는 현재,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다.

## 오나라



### 감녕

손권의 호위 역으로 언제나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충의의 가신. 오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검술실력이 출중하며, 부대 통솔 능력도 뛰어나다. 특히 수군을 다루는 솜씨는 오군에서도 최강.

### 손상향

손가 자매의 막내. 건방진 성격의 말괄량이 소녀. 본인은 오나라 부활의 힘이 되고 싶지만, 언니들은 그녀가 전장에 나서서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 GAMER'Z



위나라

## 조조

전반의 세상을 자신의 손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천명으로 여기는 소녀. 위의 왕이자 냉혹한 책략가. 완전 제멋대로에 언제나 자신만만한 인물이지만, 충신에게는 정이 깊다.

## 하후돈

하후연의 쌍둥이 언니이자 척안의 장수. 몸과 마음을 전부 조조에게 바쳤다. 조조에게 적대하는 자는 상대가 누구든 죽이지 않으면 분이 풀리지 않는다. 격정적, 저돌맹신, 천연 바보, 욕제피.

## 하후연

하후돈의 쌍둥이 여동생. 역시 몸과 마음을 전부 조조에게 바쳤다. 언제나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로 언니를 보좌하지만, 실은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고 있다.



재야

## 여포

비교할 상대가 없을 정도로 강한 삼국 최강의 무인. 너무 강하기 때문인지 아무도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아, 언제나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다. 평소에는 싸울 때와 정반대로 어방한 성격이며 고양이와 강아지와 노는 걸 좋아한다. 애마가 아닌 애견 '세키토'가 있다.



## >>> 각 나라 군사들





기종 PS3  
 개발/발매 이쿠아틀러스  
 장르 연애 어드벤처  
 발매일 2011년 9월 22일 발매  
 레이팅 CERO D(17세 이상 권장)  
 프로듀서 시모키와 나오키  
 캐릭터 디자인 미츠미 미사토, 이마즈유  
 타츠키, 카와타 히사시, 나카무리 타케시

# 미소녀게임열전

## 투 하트 2 디럭스 플러스

친구도, 친구 어머니도, 로봇도, 귀신도, 외계인도 여자라면 모두 내꺼!

BY 스펀로케이(김경문 기자) DESIGN 전은경

### 두 게임이 하나의 패키지

〈투 하트 2 디럭스 플러스〉는, 2004년 PS2로 발매된 이후, PC와 PSP로도 아식되었던 〈투 하트 2〉와, 2008년에 PC로 발매되었던 〈투 하트 2〉의 후일담을 그린 작품 〈투 하트 2 어니더 데이즈〉를 PS3로 이식한 작품이다. 한 장의 디스크에 두 작품 분량을 수록하고 추가 캐릭터까지 넣었기 때문에, 전체 공략 가능 히로인이 19명에 달하는 전대미문의 볼륨을 자랑하며, PS3의 머신 파워를 이용해 게임의 모든 그래픽이 1080p의 풀 HD 급으로 진화했고 16:9 화면 비율을 지원한다. 그러나 그래픽 강화를 제외하면, 게임의 내용 자체는 캐릭터 한 명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기종으로 즐긴 사람에게는 큰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모두 커버하고, 다른 기종 버전을 무색하게 만

드는 궁극의 강화 포인트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모션 포트레이트.

### 모션 포트레이트의 기적

PS3로 리메이크되어 환골탈태한 〈화이트 앨범〉에서 화제가 되었던 '모션 포트레이트(Motion Portrait)' 시스템은 한 장의 사진에서 자동적으로 3차원 모델을 생성해 다채로운 표정이나 얼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다. 이로 인해 이벤트 CG가 아닌, 일반 정지 화상 장면에서도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크게 상승했다. 덩으로, 음성에 맞추어 각 캐릭터의 입이 움직이고 눈이 깜빡거리는 기능도 추가되었다. 그야말로 화면에서 부티가 난다고나 할까. 오히려 모션 포트레이트가 적용되지 않은 정지 화상을 그대로 사용한 이벤트 CG가 더 뒤떨어져 보일 정도니 말 다했다.

### 주인공과 그의 할렘 후보들



지금부터 코노 타카아키라는 이름의 인간자석과, 그의 마수(…)에 걸려드는 히로인을 소개한다. 참고로 캐릭터가 워낙 많아 페이지가 모자라는 관계로, 타이틀에 약자를 사용하고(투 하트 2 - TH2, 투 하트 2 어니더 데이즈 - TH2AD) 인물 소개도 축약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 바란다.

### 유즈하라 코노미 (柚原このみ)



한 살 연하의 소꿉친구. 아직 어린아이 같은 면이 남아 있으며, 머리광도 잘 부리는 편. 언제나 게임 패키지 중앙에 등장하는 메인 히로인 포지션이지만, 너무 어린 성격 탓인지 인기는 별로. 여동생 보살피는 기능이다. 그냥 소꿉친구 엔딩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있으며, TH2AD의 코노미 & 타마키 루트는 이 엔딩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 유즈하라 하루카 (柚原春夏)

주인공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귀여워한다. 평소엔 상냥하지만, 화가 나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진다. TH2AD PC판 시절에 이벤트 CG를 통해 숨은 몸매가 공개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나나코와 함께 공략 불가 캐릭터라서 많은 유저들이 아쉬워했다. 담당 성우를 생각하면 아마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다. 물론 이번에도 공략은 불가능.

## 코사카 타마키 (向坂 環)



한 살 연상의 소꿉친구. 어른스러운 분위기를 풍기지만 장난을 좋아하는 아이 같은 면이 남아있다. 누나처럼 행동하며 주인공을 귀엽게 여긴다. 운동, 공부, 집안일 등 못하는 게 없는 초인. 집안이 일종의 명가로, 흔히 말하는 부잣집 아가씨. 본인 루트에서는 언제나 타카아키를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다른 히로인 루트에서는 오히려 그녀의 뜬금없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 코마키 마나카 (小牧愛佳)



같은 반 친구. 부반장이지만 무슨 이유인지 반장(委員長)이라고 불린다. 노력이며 남 뒷바라지도 잘한다. 명실공히 <투 하트 2> 최고의 인기 캐릭터로, 본인 루트에서는 타카아키는 여성공포증을, 마나카는 남성공포증을 극복하려고 도서관 뒤의 창고에서 매일 밀회를 하는데... 인기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설정이다.

## 코마키 이쿠노 (小牧郁乃)



선천성 병 때문에 다리가 불편해 이동할 때에는 휠체어를 사용한다. 병원에서 오래 지냈지만,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곧 퇴원할 수 있을 듯. 언제나 쌀쌀맞은 듯 해도 언니에게 나쁜 짓을 하는 녀석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쿠노의 스토리는 언니 마나카 엔딩에서 이어지며, 이 게임에서 공략이 가능한 히로인 중 유일하게 주인공이 아닌 다른 남자(이름은 플레이어가 설정)와 이어진다.

## 나나코 (菜々子)



근처의 학교에 다니는 소녀. 마법이나 주문 같은 판타지 설정에 약하며, 순진해서 그런지 뭐든 쉽게 믿고 고집도 세다. 덤으로 요령도 서툴다. 타카아키를 '오빠'라 부르며 따른다. PC판에서는 공략 자체는 가능했으나, 차마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

## 루시 마리아 미소라 (ルーシー・マリア・ミソラ)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 나타난 소녀. 수업에는 마음 내킬 때만 나오지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특기는 동물과의 대화... 라고는 하는데, 옆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말을 걸고 있을 뿐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는 것 같지는 않다. 정체는 우주인.

## 쿠사카베 유키 (草壁優季)



주인공과 같은 학년. 밤에 학교에 찾아갔다가 만나게 되는 신비한 분위기의 소녀. 분명 같은 학교 학생인데, 왠지 평소에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다. 언제나 노트를 가지고 다니며, 뭔가 떠오르면 노트에 적는다. PS2판 에서 숨겨진 캐릭터로 등장. 게다가 전용 보컬도 있다. 그녀의 정체는... 유령?

## 쿠스가와 사사라 (久寿川ささら)



학교 학생회장. 주인공보다 한 살 연상의 선배. 공사를 혼동을 하지 않고, 타인과 매사에 거리를 두는 타입이라 지나치게 차가운 인간으로 인식되기도. 실은 사람 사귀는 것이 서툰 것뿐, 한 번 자기편으로 인식하면 엄청나게 기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PC판 추가 캐릭터로, 기존 캐릭터들을 몰리치고 인기를 독차지한 전례가 있다.

## 하네사키 미오 (羽根崎美緒)



PS3판 유일의 추가 캐릭터.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같은 반 친구 (당연하지... 기존 버전에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았으니). 우연히 타카아키와 부딪혀 면식을 트게 된다. 타카아키와 만난 것을 계기로, 무언이 없는 방송부에 들어가게 된다. 안경 히로인의 철칙답게 벗으면 미인.

## 코노 하루미 (河野はるみ)



어느 날 타카아키 반으로 전학을 온 수수께끼의 소녀. 등장과 동시에 호감도 레벨 3 상태로 타카아키를 따라다닌다. 사실 그녀의 정체는 TH2에서 이름만 등장했던 메이드로봇 3세대 중 차녀, HMX-17b 미르파. 꿈 인형이던 시절 타카아키에게 반해, 그의 노예(...)가 되기 위해 타카아키의 취향에 맞는 보디를 손에 넣고 그에게 육탄 공세를 날린다.

슈팅 명가 케이브 for ios

도돈파치 대왕생



케이브를 대표하는 탄막 슈팅 게임의 대명사. 도돈파치 대왕생은 느끼게 퍼져나가는 탄막 사이의 틈을 파고드는 재미가 있는 다른 탄막계 게임과 달리 적의 탄속이 굉장히 빠른 것으로 유명한데, 이는 기판상의 한계로 수많은 탄을 화면에 표시할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여자책이었다. 덕분에 게임 난이도는 사상 최악! 거기에 2주치의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나타나는 숨겨진 보스인 히바치의 악독함은 제작진에 대한 살인충동을 일으킨다.

데스 스마일즈 -윙스크롤 게임



탄막계 슈팅 게임에 흔치 않은 윙스크롤 방식을 채용한 것은 물론, 앞이 아닌 뒤에서도 적들이 쏟아져 나오는 등 케이브 게임으로는 색다른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 초심자를 배려해 스테이지 순서를 선택한다거나 라이프 게이지를 도입하여 한 방에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 무엇보다 RPG적인 요소를 추가해 미소녀 캐릭터 각각의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차별점이다. 그래서 조금 더 대중적이 됐다...는 개별! 여전히 적의 탄막은 환 공포증을 자극한다. 저 스샷 한 번 봐!

# 손 끝에서 펼쳐지는 초탄막 슈팅, 벌레공주 후타리

아이폰이 슈팅 게임에 이렇게  
어울릴지 상상이나 했었나!  
BY 송종민 DESIGN 신숙희

가슴으로  
느끼는 탄막의  
위용



일러스트 보고 반했다고? 벌레공주 후타리(두 사람)는 미소녀 게임이라고 해도 믿을만한 아름다운 캐릭터 디자인과 화사한 일러스트를 자랑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미지일 뿐! 본 게임은 화면을 온통 뒤덮는 압도적인 적탄을 피하기 위해 일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악독한 난이도의 정통 케이브계 탄막 슈팅 게임이다. 2006년 아케이드로 발매된 이후 가정용으로는 2009년 XBOX360과 이번 ios로 이식 될 것이 유일! 콘솔버전은 7천 엔이 넘는 고가지만 ios판은 고작 6,99달러라고!



아름살 꼬마왕자 팜

### 애미없이 부정적인 스토리 라인

전작에서 숲의 신 아키에게 제물로 바쳐질 운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신을 때려잡고 스스로 숲의 신이 된 주인공 레코(방년 15세). 그런 그녀에게 이를 갈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키의 어머니이자 왕국의 여왕인 라사였다.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첫 번째 왕자 아키를 죽인 레코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장 어린 8번째 왕자 팜에게 그녀를 자신에게 데려오라는 임무를 부여한다. 팜은 어머니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기쁘게 모험을 떠나지만 라사에게 팜은 수많은 왕자들 중 한 명일 뿐,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팜은 숲에서 길을 잃은 척 레코에게 접근해 자신의 마을이 공격받고 있다고 도움을 청하고, 고심 끝에 레코는 팜과 함께 여정에 오르게 된다.



이번 작품의 원흉!  
보면 건적 나오지?

### 지문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터치!

가장 궁극할 조작감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만족! 1픽셀의 차이로 적탄을 피하느냐 마느냐의 정교한 컨트롤이 과연 터치로 가능할까 하는 걱정은 말 그대로 기우였다. 손 끝에 달라 붙은 듯 일체감 높은 조작감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다. 단점이라면 촘촘한 탄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흘린 땀 때문에 컨트롤이 점점 뻑뻑해질 수 있다는 것. 터치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지문 방지 필름이 있다면 한결 좋겠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자꾸 아이폰드 지름신이 강림하신다. 질러래!



이직, 이직은 버릴 수 있어

이달의 도전 과제



치킨도 좀 시켜주면 안 되나?

YS.com

말풍선 달러가기



● BEAT THIS CAPTION ●

WINNER

지난달 우승자



이런다고 합의해줄줄 알아? 저 차가 얼마짜린데. -육군하사-

김 여사의 습격을 받아 본 적 있는가? 얼마 전, 담당 에디터는 상가 건물 주차장을 오르던 중 느닷없는 초보운전 김 여사의 후진 어택으로 보닛 전체를 싹 갈아엎었다. "D에 넣을 줄 알았지"라며 깔깔깔 웃으시던 해맑은 초보 아주머니(이, 이 상황이 웃겨?). 4월의 우승은 잠들어 있던 악몽을 끄집어냄과 동시에 훌쩍 뛰어버린 보험료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 육군하사 독자님이다.

AND LOSER

이 패배자들!

벌렁벌렁거리나  
ID 째뚜  
원래 내가 니보다 벌렁벌렁했다 아이가.  
MAXIM

키높이 깔창 넣어야겠지? 그래야겠지?  
ID 칼리버  
깔창은 범죄가 아니야. 당당해지라고!  
MAXIM

지퍼도 내릴까?  
ID 킴ㅋㅋㅋ  
왜, 다른것도 내려보시지?  
MAXIM

응모하기

- 1 솔직한 캡션을 써라! 솔직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 2 응모는 우편으로 (121-841)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달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이름, 연락처를 빼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3 가장 MAXIM스러운 말풍선을 다는 독자에게 **스웨거 블블레이커 사워젤**을 선물로 주겠다.



# TRAVEL

## 2012 도쿄 애니메이션 페어

우주 최대의 애니메이션 축제 도쿄 애니메이션 페어에 가게 된 에디터. 정줄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애니 성지 순례기.  
 BY 김희성 DESIGN 천은경 COOPERATION 동경관광재단



도쿄 애니메이션 페어. 애니 덕후들에게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이자 먼 나라 덕후들에게는 평생의 숙원인 애니계의 성지! 2002년부터 도쿄에서는 매년 애니페어를 개최했지만 작년 봄엔 지진 때문에 열리지 않았다. 수많은 애니 덕후를 1년씩이나 더 기다리게 한 2012 도쿄 애니메이션 페어가 드디어 울분 다시 열렸다.

2012 도쿄 애니메이션 페어는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도쿄도 오다이바에 위치한 국제 전시장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렸다. 당일 티켓을 사면 어른은 1,000엔, 중고생은 500엔, 예매를 하면 어른 800엔, 중고생 400엔으로 좀 더 저렴하게 입장할 수 있다. 남자 어른인 당신이 예매를 하고 가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1만 1,000원 정도가 필요하단 소리다.

전시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부스가 에디터를 반기고 있었다. 과반수 의석은 일본 애니들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중국, 유럽 등 다른 참가국의 부스도 간간히 볼 수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부스도 볼 수 있었는데, 괜히 반갑고 자랑스러웠다. 보통령, 와라 편의점 등 익숙한 캐릭터 상품들을 보고 있자니 그 한복판에서 애국가라도 부르고 싶어졌다.

금강산도 식후경, 애니페어에도 간식 타임은 필요했다. 정줄 놓고 이 부스, 저 부스를 돌아다니다 보니 한 시간 간격으로 배고픔이 찾아왔다. 다행히 전시장 한편에는 푸드코트(?)가 마련되어 있었다. 아, 배 속 가득 퍼지는 일본의 맛이어.



### 애니페어 부스 열전 BEST 8

애니페어에서 가장 흥했던 부스만 모았다.

#### 1 크레용 신짱

우리나라에서는 <짱구는 못말려>로 잘 알려진 '크레용 신짱'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크레용 신짱의 제작사인 ADK Anime GROUP 부스에서는 20주년을 맞은 신짱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었다. 짱구가 올해로 스무 살이 라니 좀 징그러운데?



#### 2 프리큐어

평소에는 가와이한 교복녀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초자연적인 힘으로 지구를 지켜내는 미소녀들이 나온다. <세일러문> 시리즈와 매우 흡사하지만 <프리큐어> 시리즈는 1, 2편마다 주인공과 배경을 바꿔서 새로운 버전을 내놓는다. 프리큐어 악수회가 열렸는데 프리큐어와 손 한번 잡아보겠다는 인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근데 다리 굵기가 예사롭지 않은 게... 아니겠지, 아닐거야.



## 코스튬 걸 종합 선물 세트

그리고 애니페어에서 당신이 가장 궁금했을 그녀들



## 미소녀 아이템 TOP 4

초레어 미소녀 아이템들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손만 뻗으면 가질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미소녀  
애플티 받기



〈히나코와 함께 트레아링〉의  
히나코 목욕 타월



〈나는 친구가 적다〉의  
코바토 벽걸이



〈케이온〉의  
아즈냥 블라인드



미소녀 애플티

어머,  
이건  
사야 해.



## 3 마계 기사 가로

인간의 탐욕에서 생겨난 마수, 그리고 그와 맞서 싸우는 마계 기사가 등장하는 성인 판타지 특촬물. 특촬물 이라지만 내용이 유치하지도, CG가 허접하지도 않은 제법 퀄리티 높은 TV 시리즈다. 파워레인저나 울트라 맨에 향수가 있는 세대를 열광하게 만들었다.



## 4 AKB0048

요즘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다는 아이돌 AKB48이 2D 애니메이션으로 온다. 4월 29일부터 전파를 탈 예정인데 AKB48의 인기만큼이나 부스 방문객이 많았다. 대부분 남자 어른.



3D의 인간을 이렇게 2D로 만들었다.  
소녀시대가 주인공인 애니는  
왜 안 만드는 거지?



## 8 건프라

건담이 빠지면 섭하지. 유리 너머의 프라모델을 갈구하는 수많은 눈동자가 이끌려 조금 무서웠다.



## 7 일본공학원

애니메이션이라면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에서도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의 커리큘럼이 훌륭하기로 소문난 전문 학교 일본공학원의 부스. 학생들이 제작한 DVD, 동인지, 업서 등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었는데, 그중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건 바로 학생들이 직접 미소녀 캐릭터로 랩핑한 도요타 프리우스였다!



## 6 메론쿠마

멜론으로 유명한 홋카이도의 유바리시에서 만든 캐릭터. 메론쿠마는 주인 몰래 멜론을 훔쳐먹다가 얼굴이 멜론처럼 변한 꿈이다. 일단 실제로 보면 크기도 어머머할 뿐 아니라 사진 찍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크르렁거리며 위협해 수많은 어린애를 울리기도 했다. 동물 농장 이용종 소장 불러? 말어? 하지만 에디터가 그와 사진을 찍기 위해 다가갔을 땐 에디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다른 여자애겐 무뎡뎡하지만 나에겐 상냥하다니. 완전 내 스타이야~



## 5 호빵맨

배고픈 사람에게는 어디든 날아가서 얼굴을 때어주는 국민 호구. 호빵맨 부스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호빵맨과 어떻게든 사진 한번 찍어보려는 여자들과 그 여자들을 구경하러 온 남자들 때문이었다.



알바를 하려거든 이런 알바를 해라.

# MOTOR



## MINI COOPER SD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하나?

BY 유승민 ILLUSTRATION 전영준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 김희성 DESIGN 서윤경  
ASSISTANTS 손안나, 이진영  
COOPERATION BMW KOREA



연비 변화	COOPER SE	COOPER	COOPER S
휘발유 모델 (2등급)	15.3km/ℓ	15.3km/ℓ	14.5km/ℓ
디젤 모델 (1등급)	20.5km/ℓ	20.5km/ℓ	19.9km/ℓ



마력 변화	COOPER SE	COOPER	COOPER S
휘발유 모델	15.3km/ℓ	15.3km/ℓ	14.5km/ℓ
디젤 모델 (D)	20.5km/ℓ	20.5km/ℓ	19.9km/ℓ

### 다 해 먹어라.

지난 해 미니는 컨트리맨으로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다. 100%에 가까운 판매 성장률. 이전 미니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싶던 차에 디젤 라인이 나왔다. 모델명에 디젤의 D자를 달고 있으면 경유자인 거다(쿠퍼 SE D, 쿠퍼 D, 쿠퍼SD). 경유차 미니라니, 기존 모델들이 안고있던 연비의 부담을 감수하고 구입했던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너무한 거 아니냐?” 작년에 적금을 깨고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미니 클럽맨을 질렀던 후배녀석이 미니의 디젤 라인 출시 소식에 별은 한 마디다.

“쿠퍼만 디젤 나오는 거지? 클럽맨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만 이미 미니 전 모델군에 디젤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다. 디젤차를 포기하고 가솔린 미니를 질렀던 사람들에게도 억울한 소식이지만, 미니를 포기하고 다른 디젤차를 산 사람들에게야말로 허탈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한 때 미니는 그저 폭스바겐 뉴비들과 경쟁하는 예쁜 수입 소형차였다. 그러나 이제는 벤, SUV, 쿠페, 컨버터블, 스포츠카, 친환경차, 휘발유차, 경유차까지 커버하지 않는 영역이 없다. (이번에 로드스터까지 나왔지 아마?) 스페셜한 느낌의 BMW 하위 브랜드라는 느낌도 더 이상은 들지 않는다. 무려 7개의 모델군에서 다양한 트림의 차량을 뽑아내고 있는 미니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완전한 거대 자동차 브랜드가 되었다.

### 여전히 스포츠카

귀여운 외모와는 전혀 다른 육중한 차체, 부드러운 승차감 따윈 안중에 없다는 듯 단단한 서스펜션을

통해 전해져오는 노면의 질감, 스포츠 모드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키 스텔론’ 엔진음이 그르렁거리며 예민하고 민첩한 핸들링이 시작된다. 안전 최고속도인 205km/h 근처까지 밟아도 힘든 기색이 없다. 속도계 눈금이 왜 260km/h까지 펼쳐져있는지 알만해진다.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패들 시프트로 수동 변속의 모미도 만끽할 수 있다.

포르쉐 카이맨에 선전포고한 ‘진짜 스포츠카’ 미니 JCW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이번에 신나게 가지고 온 경유차 쿠퍼SD 이야기다. 명색이 ‘고연비 친환경 경유차’라는 녀석이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100km/h에 이르는 시간) 8.4초라니. 성실하고 검소한 남자가 섹스머신인 격이다.

###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D자 달고나온 미니 녀석들 연비가 얼마나 되냐고? 무려 20km/ℓ 를 넘나든다. 국내에서 경유 넣고 굴러가는 차 중에 연비 1위다. 그간 미니를 가슴에 묻고 다른 경유차를 구매한 사람들 속을 썩여 문드러지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다. 쿠퍼 D가 20.5km/ℓ, 고성능 버전의 쿠퍼 SD도 19.9km/ℓ다. 이 숫자가 휘발유도 아니고 경유라면 유지비 면에서 하이브리드를 능가한다는 계산이 설 거다.

고유가의 장기화 상황 속에 자동차 시장도 급격하게 친환경, 고연비 차량 위주로 재편되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하이브리드 버전을 내놓았고, 고출력 스포츠카나 대형 세단들은 뒷서리를 잔뜩 맞았다. 그 상황 속에서도 미니는 폭발적인 판매를 이어나갔다. 미니가 연비가 좋은 차라서? 절대 아니다. 크기로 봤을 때 프라이드나 골프와 경쟁할 법한 소형차 시장에서

겨우 13~14km/ℓ안팎의 연비로 뽑아낸 성과이기에 더 경이롭다. 그랬던 미니가 무려 20km/ℓ의 디젤라인을 꾸려서 나온 거다.

### 어때? MINI 디젤, 좀 팔리겠어?

당연하지. 지난 해까지 나쁜 연비가지고도 저렇게 많은 미니를 팔아치웠다는 건 ‘미니가 아니면 안돼’라고 하는 구매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가. 기름값이 얼마가 들던 미니여야만 하는 사람들이 말이다. 이번엔 공략하게 될 대상은 “미니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소비자들이다. 미니의 디자인과 감성에 반해서 지갑을 여는 사람 말고, 꼼꼼하게 유지비와 성능비를 따져서 구매하는 깐깐한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된 거다.

전자와 후자 중에 어느쪽이 더 다수냐고? 당연히 후자지.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미니를 찾게 될 거다. 더 이상 ‘예쁘기만 하고 비효율적인 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걱정할 게 있다면 오히려 가솔린 모델의 기존 미니 라인업이다. 이 모델들은 여전히 저연비라는 취약점을 안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니는 구매 동기 중에 ‘디자인’이 큰 비중을 갖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연료 효율성과 예쁜 디자인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디젤 모델 쪽으로 구매가 쏠릴 우려가 있다(워, 우리가 우려할 일은 아니고 BMW에서 고민할 문제겠지). 게다가 MAXIM이 미니 쿠퍼 SD를 몰아낸 결과 미니 휘발유차와 비교해서 달리기 성능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렇게 되면 잘 나가던 기존의 미니 라인업이 찬바람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니가 미니를 잡아먹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거다.

MINI COOPER 휘발유 모델의 배기량: 1,598cc  
 MINI COOPER 디젤 모델의 배기량: 1,995cc



**MAXIM 여자들의 CAR TALK ABOUT MINI**

**진영:** 미니 타는 남자라... 대충 그려지긴 하는데...  
**희성:** 전에 만났던 남자 중에 한 명 있어.  
**안나:** 그럼 쉽네. 어땠는데? 키 커?  
**희성:** 아니 키는 별로 안 컸어. 좀 슬림하고 자기 키 174cm라고 했던 거 같은데  
**진영:** 맞아. 미니 타는 남자는 덩치가 클 것 같진 않아. 딱 벌어진 근육남이 미니에서 내리는 거 봤는데 되게 이상하더라. 미니에 어울리려면 마른 듯한 잔 근육남이지.



**희성:** 미니 몰고 다니는 남자치고 차 더럽게 두는 애들 없다? 세차하란 끝내주게 하지.  
**안나:** 듣고 보니 그려네. 직업은 좀 크리에이티브한 필드에 있을 것 같다. 외국계 광고회사나 아티스트?  
**안나:** 나이는 20대. 처자식이 있다면 미니를 사진 않겠지.  
**희성:** 확실히 검소한 스타일은 아니었어. 국산 중형 세단을 살 바엔 수입 소형을 산다고 했거든.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중요시하는?  
**진영:** 잘 생겼어?  
**희성:** 딱 미니랑 어울리게 생겼었어.  
**안나:** 잠깐만, 웬지 그려지는데? 수영 있지?  
**희성:** 어떻게 알았어?  
**안나:** 깔끔하게 수영 다듬고, 피부도 희고, 뽀테 안경을 썼을 거야.  
**희성:** 뭐야, 봤나?  
**안나:** 웬지 딱 그럴거 같자나. 미니 끄는 남자라며, 옷도 실용성보다는 브랜드를 더 따질 거 같다. 남자옷 브랜드 중엔... '제네럴 아이디어'나 '커스텀멜로우'같은 거 입고 다닐 듯.  
**진영:** '프레드페리' 혹은 '폴스미스' 캐주얼 스트라이프 셔츠를 딱 맞게 입어 움직일 때마다 어깨와 등줄기가 드러나는 차림의 남자?  
**희성:** 구체적이기도 하다 ㅋㅋ 스타일리시한 티셔츠에 일자핏 면바지도 잘 입을 거 같은데?  
**진영:** 맞아맞아 '면바지' ㅋㅋㅋ  
**안나:** 시계도 엔틱한 명품보다는 심플한 가죽 스트랩의 알마니 익스체인지나 세이코같은 거.  
**희성:** 기능보단 디자인인 남자? 갤럭시보단 아이폰?  
**진영:** 맞아맞아. 웬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을 쓰리콤보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 기능을 100% 활용 못 하면서도 말이지. 카페에서 자신의 거머 스타일을 완성해야 하거든 ㅋㅋㅋ  
**희성:** 그 아이폰을 열면 여자들 번호가 쏟아지겠네.  
**안나:** 맞아. 여자는 진짜 많을 거 같애. 아는 동생, 아는 친구, 아는 누나, 등등등...  
**희성:** 아는 누나는 별로 없을 듯. 미니남은 연하의

여자만 만날 거 같다. 미니가 또 어린 여자애들한테 먹어주잖아.  
**진영:** 속 썩이는 남자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남자한테 한 번씩은 끌렸잖아?  
**희성:** 맞아. 개도 여친 따로 있었는데 나 만났어.  
**안나:** 어디서 만났는데?  
**희성:** 에덴(강남 리츠칼튼 지하에 있는 클럽)에서.  
**진영:** 미니남은 클럽을 빼놓을 수가 없지. 성격도 외향적이고 한 달에 두세번은 클럽에 출몰할 거야. 개가 먼저 작업 걸어왔어?  
**안나:** 미니남은 플로어에서 뒤에 붙는 하체밀착식 부비부비형은 아닐까 같아. 바에서 계속 눈 마주치다가 보드카 칵테일같은거 두 잔 들고와서 옆에 앉는 식!  
**희성:** 기억 안나. 비슷했어.  
**진영:** 술은 소주나 맥주보다 확실히 앵슬루트 같은 보드카가 미니남이랑 어울려.  
**희성:** 그런데 미니남이라고 하니가 되게... ㅋㅋㅋ  
**안나:** 되게 뭐?  
**희성:** 색시하지 않다. ㅎㅎㅎ  
**진영:** 여자가 많고 섹스를 즐기긴 하는데, 섹스를 아주 잘 할 것 같진 않아. 섹스보단 연애에 능숙한 남자! '치고 빠지는' 데 능숙한? 한마디로 여자들에게 인기 많은 남자지.  
**희성:** 기교있는 남자구만. '여친'을 두기보단 만나는 '여자'를 돌 것 같은 타입이야. 애인은 없어도 섹스파트너는 늘 있을 것 같아.  
**안나:** 섹스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키스를 잘 할 것 같긴 하네.  
**희성:** 원나잇도 거리낌 없이 할 것 같지않아? 그렇다고 아무 여자와 잔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끌리는 여자와 사귀는 타입이라기 보단 끌리는 여자와 잔다는 타입이라고나 할까.  
**진영:** 잠자리 매너는 좋을 것 같아.  
**희성:** 음, 거칠진 않을 것 같네. 근데 그게 좋은 건가?  
**안나:** 잠깐만, 또 얘기가 이렇게 간다. '미니를 탈 것 같은 남자'의 스타일을 뽑아오라고 했잖아.  
**진영:** 야, 이것도 스타일이야. 🍷



# MOTOR OF THE MONTH



## 미쓰비시 스마트 크로스오버 차량 RVR 출시

미쓰비시가 효율성이 뛰어난 2.0L 신형 MIVEC 엔진을 탑재해 12.8km/L의 고연비에, 공간 활용성을 높인 RVR을 출시했다. 또 차체를 최적화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특히 강성 높은 고장력 강판을 채택하면서도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스타 평가를 받은 만한 에어백과 사고 예방 안전 시스템을 갖춰 안전성도 보장한다. 가격 대비 높은 성능으로 빛나는 미쓰비시 RVR!  
**가격 3,190만 원(2WD), 3,490만 원(4WD)**  
 문의 미쓰비시([www.mitsubishi-motors.co.kr](http://www.mitsubishi-motors.co.kr))



## 마세라티 그란카브리오 스포츠 출시

도로 위의 오케스트라 마세라티가 '가장 빠르고 아름다운 4인승 카브리올레'라는 수식어를 달고 그란카브리오 스포츠를 출시했다.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 피닌파리나가 디자인을 맡았다. 4.7L 고성능 V8 엔진과 ZF 6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해 빠른 스피드를 자랑한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450마력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고, 노멀 모드에서는 주행 시 조용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이게 가능해? 모두가 탄낼 만한 최고의 드림카 마세라티. 엔진의 고함을 듣는 순간 모든 이의 눈과 귀는 마비될 것이다.

**가격 2억 4,980만 원** 문의 마세라티([www.maserati.co.kr](http://www.maserati.co.kr))



## 스마트 포투가 4월 구매 고객에 주유권 100만 원 쏜다!

스마트 이 녀석, 크기는 작아도 인심 하나는 끝내준다! 스마트코리아가 가솔린엔진을 장착한 쿠페, 카브리오 2종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주유권 100만 원을 모든 구매 고객에게 제공한다. 소비자의 유지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객에게 주유권을 제공하는 기특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4월 한 달간 스마트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서초 전시장에서 신청하면 시승 완료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도 증정한다니 안 가볼 수 없겠지? 스마트 이 녀석, 크기는 작아도 인심 하나는 끝내주는구먼~

**가격 2,490만 원(쿠페), 2,790만 원(카브리오)**  
 문의 스마트코리아([www.smart-k.com](http://www.smart-k.com))



## 볼보자동차, XC60 2.0 디젤 출시!

볼보자동차는 스칸디나비아만 럭셔리 SUV, XC60의 2.0 디젤 모델을 출시했다. XC60 2.0 디젤의 가장 큰 경쟁력은 합리적 가격이다. 콤팩트한 2.0 디젤엔진을 얹은 XC60은 구매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젊은 고객을 위한 SUV. 거기에 합리적인 연비와 친환경성도 특징. 13.5km/L의 고속도로 연비에 이산화탄소 배출도 적다. 그럼, 파워는 밀릴 거라고? 볼보 특징인 낮은 회전 구간부터 40.8kg·m의 높은 토크까지 훌륭한 성능을 보장한다. 합리적 가격에 환경을 생각하고 게다가 파워까지 넘치니! 자동차계의 엄친아로 인정!

**가격 5,550만 원** 문의 볼보([www.volvocars.com](http://www.volvocars.com))



## 람보르기니 2012 제네바모터쇼에서 아벤타도르 J 공개!

세계적인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 지난 2012 제네바 모터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의 로드스터 아벤타도르 J를 발표했다. 아벤타도르 J는 람보르기니가 생산한 슈퍼카 중 차체가 가장 낮아 드라이빙할 때의 짜릿한 승차감이 기가 막힌다고, 이 녀석은 루프와 윈드 스크린이 없는 형태의 완전 오픈형 로드스터로 전세계 단 한 대만 제작한 특별한 모델이다. 게다가 컨버터블임에도 최고출력 700마력, 최고속도 300km/h 이상의 폭발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문의 람보르기니(02-3438-6400)



### 혼다코리아가 선사하는 4월 한정판 프로모션

혼다코리아가 2012년 4월 한 달간 혼다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우선 혼다의 베스트셀링 모델인 어코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신형 3D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를 무상 장착해준다. 400만 원의 현금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 CR-V 2WD, 시빅, CR-Z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4년 8만km 무상 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CR-V 2WD 모델이나 시빅 전 모델 구매 고객에게 거치형 3D 내비게이션을 증정한다. 혜택, 뭐 이리 주는 게 많아?

문의 혼다코리아(080-360-0505 [www.hondakorea.co.kr](http://www.hondakorea.co.kr))



### 렉서스 콘셉트 카 LF-LC 공개

토요타자동차가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중국 베이징 중국국제전람센터(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되는 제12회 베이징 모터쇼에 콘셉트 카 LF-LC를 공개한다.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렉서스의 스포츠 쿠페 LF-LC를 필두로 한 16대의 토요타 전시 차종이 모두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V), 전기차(EV)다. 이처럼 미래 친환경 차량이 전체 전시 차종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미래 연료 시스템에 기술력을 쏟아붓고 있는 토요타에게 이번 베이징모터쇼는 친환경 기술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 슬라카드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퍼트링' 공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한 바로 그 130년 전통의 명품, 슬라카드 열 차단 필름이다.

- ▶ **응모 기간:** 2012. 4. 22 ~ 2012. 5. 18
- ▶ **상품:** 22만 원 상당의 열 차단 튜닝 시공 (전면 시공, 측·후면 제외)

### ▶ 응모 방법

1. 애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번 호가 나오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멋진 사진을 곁들인다면 완전 좋고

###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과 사연, 연락처를 보낸다.  
- 010-5199-1182(편집부 전화)로 사진을 첨부한 문자를 보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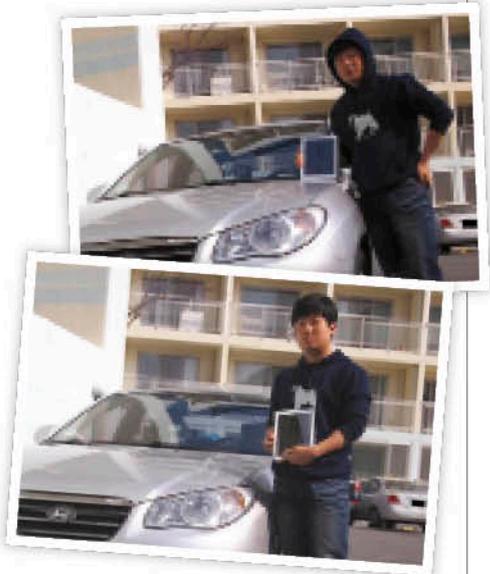
MOTOR  
EVENT

## 제13회 MAXIM 무료 튜닝 당첨 독자는?

안녕하시오. 차가 있다는 것은 분명 애인을 만들기 좋은 조건임에 틀림없지만 난 이미 애인이 있소. 그런데 문제가 있소. 느지막한 저녁, 그녀를 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가 분위기를 잡으려 하면 내 애마의 투명한 유리창이 항상 나를 씩씩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오. 오늘은 반드시 사연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MAXIM을 들고 애마와 함께 포즈를 취했소. 차 안에서 거사를 치르는 것은 남자의 로망 중 하나 아니오? 부디... 우리 커플에게 신세계를 열 수 있는 기회를 MAXIM이 도와주었으면 하오. MAXIM 여러분의 건강과 쾌락이 가득하길 바라겠소.

PS. 사진에서 아이폰패드를 잘 보면 이번 달 표지임을 알 수 있을 것이오. 난 동영상 속에 살아 숨 쉬는 모습이 더 좋아 모바일 버전으로 정기 구독 중이니 혹시나 차별하지 마시오.

제9회 당첨자 조'반메' 독자님의 슬라카드 튜닝 후기



처도 있고, 애인도 있는 그대가 부럽소. 사진 속에서 모두 가진 자의 여유가 보여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신세계를 열고 싶다는 그대의 사연을 뿌리칠 수 없었소. MAXIM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소. 마음 갈아선 치를 한 대 뽑아주고 싶소만 튜닝 당첨으로 대신하겠소. 그대가 바라는 남자의 로망을 꼭 이루시기 바라오. 그리고 MAXIM의 건강과 쾌락을 바라는 그대의 마음에 눈물이 날 지경이오. 하지만 그 둘을 동시에 챙길 수는 없는 노릇, MAXIM은 그대의 쾌락을 위해 건강을 포기하겠소. 부디 쾌락을 맛보도록 하시오.  
PS. 사진 속 아이폰패드 안에 MAXIM이라는 건 잘 보이니 걱정 마시오. 그리고 MAXIM은 모바일 구독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니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오.

# 사상 초유의 표지화보 폐기처분사태

한국에 MAXIM이 상륙한 지 어언 10년. 107권에 달하는 MAXIM 한국판을 만들어오며 다음 달이면 비로소 108번뇌를 깨우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를 예정이었으나, 이렇게 가혹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을 줄이야. 이번 달은 표지모델이 없다. 미안하다. 이번 달 MAXIM 표지는 그냥 우리 에디터 중에 한 명이다.

PHOTOGRAPH ARC STUDIO  
MODEL 에디터 이무개 HAIR/MAKEUP 고영은  
DESIGN 서윤정



# 커버 화보 폐기 처분 폴스토리

## 원래 5월호 표지모델이 대체 누구였는데?

까발릴 수 없는 나를 이해해라. 대나무 숲에 가서 혼자 외칠 거다.

## 뭐가 어떻게 된 건데?

화보 촬영까지 다 끝내놓고 그날 밤 12시에 갑자기 다 없던 일로 하지는 거야. 없던 잡지 될 뻔 했다.

## 왜?

우리가 준비한 콘셉트가 그 느낌 생각과 다르시대. MAXIM 표지 촬영장에서 웨딩 촬영 같은 걸 바라셨나봐. 그래서 촬영 내내 뒤틀린 표정으로 "언제 끝나냐"만 반복 재생하다 3시간 만에 개발림으로 마무리 하셨지. 보통 반나절에서 하루 종일 찍는 메인 화보를 3시간 만에 종내긴 처음이네. 더 잘나가는 대형 스타들도 많이 촬영해봤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나오는 X는 처음이야. 아주 신세계를 보았어.

## 그래서?

파토 낫지! 그래서 급히 새로 섭외하려고 한참 회의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해서는 표지 모델 다시 하겠다는 거야.

## 왜?

글쎄, 우리가 호떡인 줄 알고 뒤집어 봤나 보지. 단, 사진도 자기가 고르고 인터뷰 질문도 맘에 안 드는 건 다 삭제하겠다고. 이거 엄청 비매너잖아.

##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라고 했지. 영상도 쓰지 말고 심지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내지 말라길래 다 알겠다고 했어.

## 김연아 좀 되나?

김연아면 말을 안 하지.

## 그런데 왜 또 없어진 거야?

그렇게 며칠 지났지. 안 예쁘게 나왔다고 시비 걸까 봐 포토샵도 엄청나게 했다. 그런데 마감 코앞에 두고 갑자기 이번엔 개 스폰서가 다 옆으라고 난리난 리인 거야.

## 헐... 그래서?

이러시면 곤란하다고, 갑자기 또 이러시면 처형 이번 달 표지에 뭐 찍어서 내내고 했더니, 안타깝지만 새로 섭외해라. MAXIM 사상 초유의 테러 아니냐. 그래도 표지 핑크는 막아보려고 계속 설득했더니, 정 그러면 잡지 인쇄 다 하고 나서 유통하기 전에 들고 와서 컴뱌를 받으오더라.

## 헉, 맘에 안들면 10만 부 폐기하라고 하겠네?

그래서 그냥 관두시라고 했지.

## 예쁘냐?

아니.

## X 됐네?

된 정도가 아니지.

**소송해. 10년 넘게 이어온 MAXIM 표지를 작살 냈는데, 평균 판매량에 못미칠 경우 손실금액이랑 MAXIM의 명성을 저하시킨데 대한 손해량... 걸 거 많네.**

귀찮다. 고사나 지불라고, 마가 끼었나 봐.

**누군지 되게 궁금하네!!**

## 석고대죄

독자님들아, 정말 미안하다. 표지 모델 핑크라니 MAXIM 생활 6년 차에 이런 일까지 겪게 되었다... 모든 건 내가 뵈 헨터슨을 직접 인터뷰 하겠다고 신나서 애리조나로 날아가버린 사이에 생긴 일이다. 그것도 모르고 쳐 노느라 라스베이거스에서 며칠을 빠칭빠칭하지만 앉았더라도 이 지경까진 오지 않았을 텐데.

표지 화보가 마감 직전에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최악의 사태 앞에 계엄을 선포하고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다. 그래서 표지는 어쩔? 답은 정해져 있었다.

사실 여러 해 전 우린 '표지 핑크라면 에디터라든가 벗고 나올 테니 걱정 마라'는 말을 잡지에 실은 적이 있다. 장난처럼 한 말이 현실이 될 줄이야. (분명 독자 중엔 그 말이 몇 년도 몇 월호에 실렸는지 귀신같이 찾아내는 분이 있을 거다) 말이 씨가 된다더니... 어쩔거냐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표지 화보를 땀땀한 저 뒷모습의 여인은 MAXIM의 미녀 에디터 3인방 중 하나다. 그리고 급조된 이 '에디터 절망 화보'는 순도 100%의 무모정 화보다. 포샵을 할 시간도 없었다. 셋 다 훈훈한 보디와 면상의 소유자이니 셋 중 누구라도 상관은 없었겠지만, 역시 별칙의 묘미는 몰아주기 아니겠나. 이 모델이 누군지 밝혀내는 재미는 독자님들께 드리겠다.

MAXIM 편집장 이영비

XX 씨, 명색이 표진데 다리 늘리고 포샵 좀 해달라고? 안 해도 이쁘잖아! (시간 없어 미안)

## QUIZ

재앙을 맞은 MAXIM 5월호를 위해 살신성인한 에디터는 이 중에 누굴까? 맞춘 독자 중 3명을 골라 최고급 Danish Design 손목 시계를 주겠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호에!)



에디터 김희성

이번에 얼어진 커버 화보의 담당 에디터는 나다. 섭외부터 기획, 스타일링, 촬영 진행까지 내가 담당했었으니 이유가 어찌되었든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징계가 떨어져도 군말없이 받으려 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책임질 수 없어 다행이다. 그래서 가까이 카메라 앞에 섰다. 걸레자루를 움켜쥔 나의 분노가 느껴지지 않나? 무엇보다... 뒷 모습이 딱 봐도 나잖아? 감질나게 뒤테만 찍어 미안하다. 나도 나중에 시집은 가야하니까...



에디터 손안나

몸매에 자신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이번 사태 가장 큰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내가 찍었던 의상이 문제였다. MAXIM 다운 옷을 준비했더니, 그 X는 엘르, 보그에나 나올 법한 아방가르드한 걸 기대했나보다. 실마 했는데 표지 옆어지고 화보가 폐기되는 상황이 되자 콩알만한 이 막내의 엄통이 얼마나 쫄깃해지던지. 자, 이게 나의 최선이다. 찍어라, 내 뒤테로 이번 핑크를 조금이나마 무마할 수 있다면! 얼굴을 까지 못한 건? 요번 남친이 좀 보수적이라...



에디터 이진영

그래, 5월 표지는 핑크다. 그리고 그건 다 나 때문이다. 촬영장 대기실에서 옆에 있던 내가 그녀의 비유를 맞추지 못했던 게 분명하다. 제 길... 그때 문 앞에서 그녀의 인사를 살짝 씁은 것처럼 보였던가? 아, 멍이다. 고생한 모든 스태프에게 죄송하다. 정성껏 다듬어온 뒤테로 사태를 민회할 수만 있다면 책임져야지. 앞테도 기꺼이 공개할 수 있지만, 아마 그러면 부모님께 머리털 다 뽑힐지도...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 호 표지는 나다.

## 응모 방법

1. MAXIM 편집부로 문자 보내기 010-5199-1182
  2. QR코드 스캔하고 댓글 달기
  3. event@maximkorea.net 으로 메일 보내기
- 정답 예사: '5월호 표지는 □□□ 에디터다. 그 이유는 ~~~기 때문이다.'

표지가 핑크데 시계가 다 무슨 소용이야





대걸레와 걸레짜기통 가격 미정  
스트라이프 원피스 있던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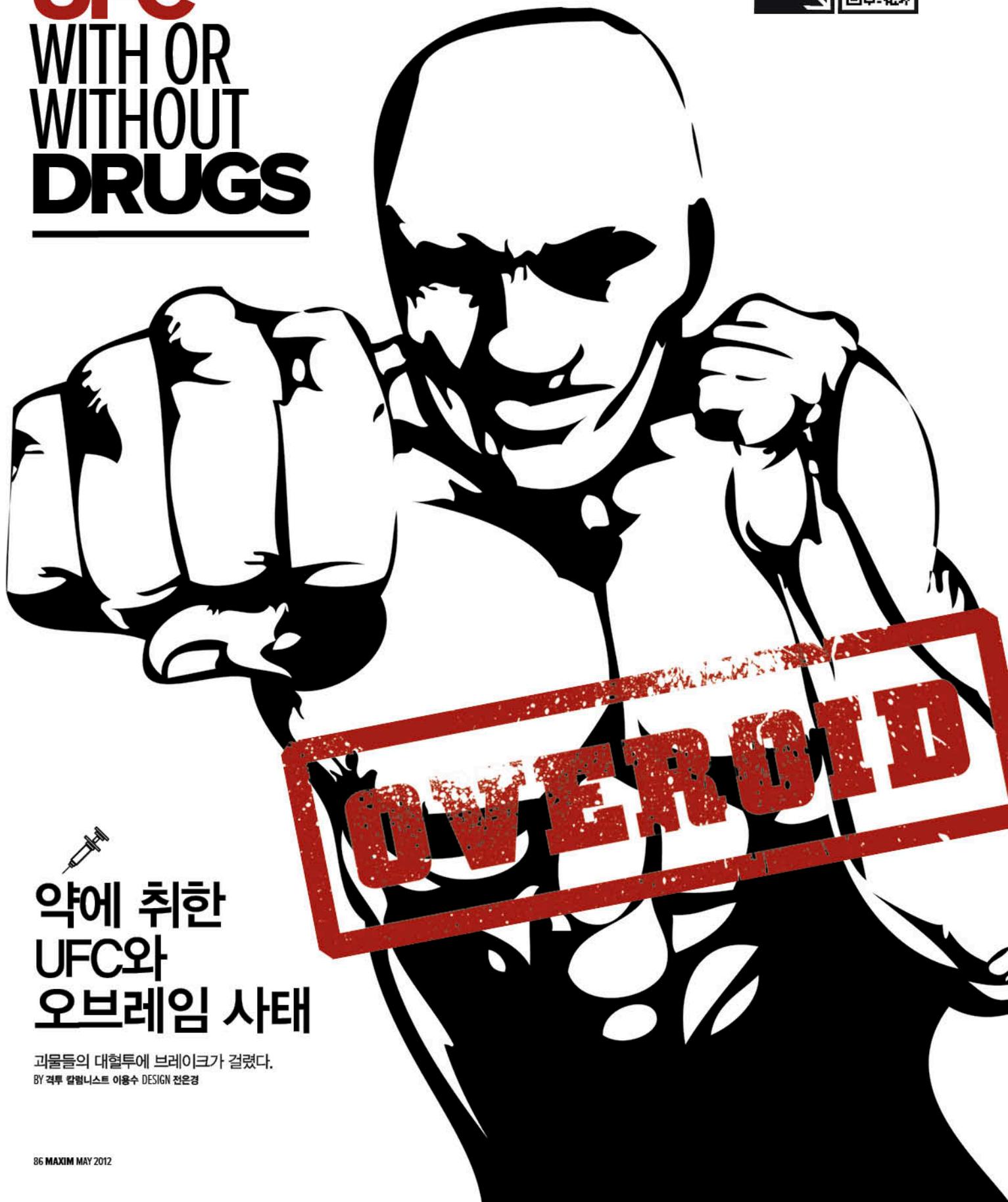
---

# UFC

## WITH OR WITHOUT DRUGS

---

관련 영상  
보기



## 약에 취한 UFC와 오브레임 사태

괴물들의 대혈투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BY 격투 칼럼니스트 이용수 DESIGN 전은경

“소변을 채취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호텔에서 UFC 146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5월 27일(한국 시간)로 예정된 UFC 146은 전 대진이 MMA 헤비급 상위 랭커들로 구성된 초대형 이벤트였다. 마크 헛트 vs. 스테판 스트루브전으로 시작해 가브리엘 곤자가 vs. 셰인 델로스리오, 로이 넬슨 vs. 안토니오 실바 그리고 케인 벨라스케즈 vs. 프랭크 미어, 거기에 세계 격투 팬들이 목 빼고 기다리던 알리스타 오브레임과 현 UFC 챔피언 주니오르 도스 산토스의 타이틀 매치가 벌어질 예정이었다.

문제는 기자회견 직후, NSAC(네바다 주 체육위원회)에서 나타나 산토스, 오브레임, 벨라스케즈, 미어, 실바, 넬슨 이 6명의 헤비급 파이터에게 기습적으로 소변 샘플을 채취하면서 시작된다.

NSAC에서 시행한 검사는 소변에 포함된 '테스토스테론 대 에피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두 호르몬은 소변에서 항상 검출되는 물질이다. 보통 사람의 경우 테스토스테론과 에피테스토스테론의 소변 검출량은 비슷하다. 즉 소변에 테스토스테론이 10이 검출됐다면 에피테스토스테론도 1정도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 만약 소변에 테스토스테론이 에피테스토스테론에 비해 많이 검출된다면 그 사람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호르몬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인위적으로 투여한 테스토스테론이란 보통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의미한다. 이 물질은 강력한 트레이닝의 후유증에서 급속히 회복되는 것을 돕고 근육의 양과 질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능력을 끌어올리는 도핑 약물의 대표 격인 존재다. 개발되고 사용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터라 종류도 다양하고 기능도 세분화되어 있다(물론 부작용 역시 치명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변 검사에서 관계 기관들은 테스토스테론 대 에피테스토스테론의 비율(이하 T/E 비율)을 커트라인으로 4:1까지 정하고 있다. 이는 인종과 체질에 따라 소변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배출되는 양이 다르고 어느 정도 오차를 인정하기 때문에 정한 수치다. 실제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4:1을 넘기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알려져 있다.

4월 10일 Daum에 발표된 김대환 종합격투기 해설위원의 '오브레임은 과연 무슨 약물을 사용했던 것일까?'라는 제목의 칼럼에는 다음과 같은 전문가의 증언이 등장한다.

언이 등장한다.

“보통 사람의 T/E 비율이 1:1이라는 건 백인 기준이다. 동양인이면 보통 0.5:1, 흑인이면 1.9:1까지 나온다고 한다. 여자도 이 수치는 같다. 4:1이니 6:1이니 하는 숫자는 이론 상으로는 '자연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다.”

#### 14:1의 의혹

4월 4일, NSAC는 UFC 146 출전 선수의 소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NSAC는 이 검사의 커트라인을 6:1로 정했는데, 보통의 검사 기관이 기준점으로 삼는 4:1보다는 다소 여유 있는 수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오마, 어페아쓰가임.

나머지 5명의 파이터는 이를 무사히 통과했지만 오브레임은 기준치 이상의 비율을 보이게 된다. 오브레임의 소변에서 검출된 T/E 비율은 무려 14:1이었다. 이것은 오브레임이 어떤 종류의 약물을 사용해 강제적으로 남성호르몬의 양을 증가시켰다는 확고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99년에 데뷔한 오브레임은 주로 -93kg급에서 활동하다 2007년에 헤비급으로 완전히 전향했다. 2007년 중반 오브레임은 약 105kg의 체중으로 세르게이 하리토노프와 대전하는 등 비교적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이로부터 약 1년 후인 2008년 말 오브레임은 115kg에 도달한다. 아무리 신장 196cm의 오브레임이라 할지라도, 불과 1년여 동안 순수한 근육질의 체중 10kg을 증량하고, 파워는 강해지면서 스피드는 죽지 않고 체력도 오히려 나아졌다. 본격적인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다.

2007년까지 오브레임은 MMA에서 26승 11패를 기록하고 있었고 K-1에서는 2승 2패였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기록을 살펴보면 MMA에서는 12전 11승 1무승 경기이며, K-1에서는 10전 8승 2패다. 2007년 이전의 오브레임은 -93kg급에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지만 챔피언급에는 약간 못 미치던 수준의 선수였는데, 이후 MMA와 K-1을 가리지 않고 막강한 능력을 보이는 괴물로 변신한 셈이다. 이러한 와중에 오브레임에게 의혹의 시선이 모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다.

2010년 10월, K-1 2010 그랑프리 16강전을 위해 내한한 오브레임은 유명 K-1 해설자인 마이클 슈벨로의 〈The Voice VS.〉라는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했다(이 시리즈의 오브레임편은 한국에서 촬영했다). 50분가량의 이 프로그램에서 오브레임은 많은 이야기를 했다. 본인 뺨의 상처는 15세 때 일어난 길거리 싸움에서 상대가 휘두른 깨진 병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표도르가 자신과의 대결을 '약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하면서 약물이 적발된 적이 이미 두 차례 있던 바닛과 붙었다고 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비판하는 말도 꺼냈다. 슈벨로는 자연스럽게 오브레임의 약물설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오브레임은 자신의 근육질 체형은 유전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형 발렌타인 역시 같은 체질이며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면, 자신은 단백질 보충을 위해 말고기를 먹는다는 것이다. 슈벨로는 쇠고기와 말고기 요리를 오브레임에게 주고 말고기를 찾아보라는 일종의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요구했다. 오브레임은 양쪽의 고기를 잠시 우물거린 후 간단하게 말고기를 찾아냈다. 이 프로그램에서 오브레임은, 세상에서 약물 검사를 가장 자주 받는 선수가 바로 자신임을 강변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팬 사이에서는 일단 증거가 없는 한 그의 결백을 믿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 피할 수 없는 의혹

오브레임은 2010년 12월 K-1 WGP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011년 6월에는 표도르에게 사실상 최초로 승리를 거둔 파브리사우 배우들을 꺾었다. 마지막 남은 도전은 UFC 헤비급 타이틀이었다. 2011년 하반기 UFC는 오브레임과의 계약을 서둘렀다. 오브레임은 배우들을 꺾고 스트라이크포스 헤비급 토너먼트의 4강에 진출해 있던 상황이었지만 UFC와의 계약이 성사되면

#### ▶ NSAC(네바다 주 체육위원회)

네바다 주에서 벌어지는 스포츠 이벤트의 규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공공기관. 현 이사장 키스 카이저(왼쪽 사진)는 네바다 주지사가 선임한 5인의 위원이 선임한 일종의 대리인이다. 지역 특성상 라스베이거스에서 벌어지는 복싱, kickboxing, MMA 등의 격투 스포츠에 대한 업무가 대부분이며 NSAC는 아예 비무장 격투 스포츠에 대한 관

리만 담당한다. 그 전문성 덕에 NSAC는 전미 비무장 격투 스포츠와 관련해 중대한 위치를 차지한다. 경기 허가, 진행상의 각종 규제 적용, 심판 선임, 약물 검사와 결과에 따른 제재 등을 담당하는데, UFC의 CEO 데이비드 화이트는 가끔 NSAC가 파견하는 심판 중 일부의 능력에 불만을 표출하곤 한다.





오브레임의 맵고기 테스트. 한 쪽에는 맵고기가, 다른 쪽에는 쇠고기 요리가 있다.



오브레임의 약물 복용을 의심하는 인터넷 게시물. 저게 말이 되느냐고, 솔직히...



<룩키 4>에도 소련 선수의 신체 개조 장면이 나온다. 실제 일부 동유럽 선수는 강제로 약물을 투여받았다.



오브레임 약물 사태 이후 <inside MMA>에 출연해 그를 변호하는 마이클 슈벨로(오른쪽), 조 로건(가운데), 조시 바넷(왼쪽)의 모습.

서 오브레임의 자리는 다니엘 코미어가 대체했다. 오브레임은 소속사 골든글로리와 UFC 진출 이후의 수익 분배 문제로 갈등을 겪지만, 소송을 불사하면서 UFC 진출을 강행했다. 현재까지 오브레임과 골든글로리는 법정 분쟁 중이다. UFC도, 오브레임도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의 성사를 서두르고 있었던 상황이 확실하다.

결국 오브레임은 UFC와의 계약에 성공한다. UFC 데뷔 전 상대는 브록 레스너였다. 한편 NSAC는 오브레임의 경기 허가에 조건을 건다. 2011년 12월로 예정된 레스너전에 앞서 오브레임은 NSAC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전 약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NSAC가 오브레임에게 검사 날짜를 11월 17일로 통보하자 그는 모친이 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대며 본국 네덜란드로 날아갔다. 오브레임은 "날짜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국했다"고 해명했고 이 이유는 받아들여졌으며 12월 15일에야 그는 영국에서 테스트를 받는다. 이 진행 과정에서 오브레임에 대한 의문은 더욱 짙어졌다. 비록 12월 15일 검사에서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검사일을 앞두고 벌어진 해프닝은 단지 우연으로 보기에는 괴이쩍은 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해진 날짜보다 한 달여 늦게 검사를 받았는데, 그 사이 약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작업을 했을 것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NSAC는 이 상황에서 오브레임의 경기 허가를 내주긴 했지만, "레스너전 향후 6개월 사이 두 차례 불시 약물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조건을 다시 걸었다.

2011년 12월 30일 오브레임은 레스너와 대전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1라운드 TKO승을 거두었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UFC 데뷔전이었다. 데뷔 전부터 UFC 최고의 흥행 카드인 레스너와 붙어 메인 이벤트에 선 것이니, 오브레임의 위상은 어느 UFC 데뷔 선수와는 확실히 달랐다. 레스너전 승리 직후 데이비드 화이트는 현 UFC 헤비급 챔피언 주니오르 도스 산토스

의 1차 방어전 상대로 오브레임을 지목했다.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산토스-오브레임전을 중심으로 기획된 5월 27일 예정의 UFC 146은 서두에서 밝혔다시피 헤비급 상위랭커들의 총출동으로 엄청난 초대형 기획이 되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오브레임-산토스의 대전이 확정되고, 목적인 메인 카드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격투 팬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대회를 약 2개월 남긴 시점에서 NSAC는 기습적으로 약물 검사를 실시했고, 오브레임은 T/E 비율 14:1로 양성반응을 나타냈다. 이 전까지는 오브레임과 NSAC 사이에서는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였다. 오브레임은 그것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사전 약물 검사는 UFC에서도 극히 생소하다. 소변 검사는 대부분 경기 당일 샘플을 채취한다. 이것은 쉽게 말해 '오브레임 특별법'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다. 그만큼 오브레임의 신체 개조가 극단적이었거나 레스너전을 앞두고 벌어진 해프닝이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오브레임이 약물에 손을 댔다는 사실은 4월 4일(한국 시간 5일) NSAC의 발표를 통해 기정 사실화됐다. 오브레임은 불시에 약물 검사를 실시할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약물을 복용해온 셈이다.

### 오브레임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론은 끓어올랐다. 산토스-오브레임전의 무산은 수많은 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했다. 오브레임 성토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이한 현상이 포착되었다. 상식적인 전개라면 데이비드 화이트는 즉각 산토스-오브레임전의 무산에 대해 발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그는 언론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오브레임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라는 애매한 말을 남겼다. 또 오는 4월 24일 예정된 오브레임의 NSAC 청문회 결과에

따라 사후 처리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토스의 상대에 대해서는 처음엔 "프랭크 미어"라고 했다가 잠시 후 "미어는 그대로 케인 벨라스케즈와 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UFC는 문제가 발생한 초기에는 오브레임을 내리고 미어를 투입할 방침이었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일단 4월 24일 이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UFC가 "산토스-오브레임전이 아직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분위기에 불을 지른 인물은 2010년 10월에 한국에서 오브레임과 대담했던 마이클 슈벨로다. 그는 MMA 전문 프로그램 <inside MMA>에 출연해 오브레임 편에 서서 강한 발언을 쏟아낸다. 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A: 오브레임은 NSAC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NSAC는 오브레임을 테스트할 권한이 없다.

B: 경기가 두 달 남았을 시기이므로, 오브레임은 경기 당일까지 허용 기준치인 6:1 이하의 비율을 맞출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브레임은 속임수를 쓴 것이 아니지 않는가?

슈벨로가 B의 주장을 내세울 때, 진행자석의 바스 루턴은 "사용 자체가 속임수다. 쓰지 말아야 하며, 그것에 손을 대는 순간 사기꾼이 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메인 MC 케니 라이스는 "오브레임의 라이선스가 조건부였고 그 조건에 이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NSAC의 테스트는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언급해 슈벨로의 주장 A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자 슈벨로는 "99%의 선수가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이에 케니 라이스는 "99%라는 숫자는 사실상 전부가 아니냐"라고 다소 황당해하고, 바스 루턴은 자신은 절대 사용한 적이 없다고 과민 반응을 보이기에까지 한다. 한편, 함께 자리한 조 로건은 "금지 약물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발언 아닌



###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약물 디자이너

선수들이 신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쓰는 PED(Performance Enhance Drug)의 대표 격인 이 약물은 1950년대 중반부터 스포츠 경기에서 넓게 사용되었다. 현재 종류는 수십 가지를 헤아리며 각 기능이 미세하게 다르고, 중독에 맞는 약이 따로 있다고 전해진다. 이 약물의 복용 메뉴와 체내 잔류량을 관리해서 약물 사용의 효과를 높

이고 검사를 회피하는 노하우를 지닌 사람들을 '약물 디자이너'라고 하는데, 현재 각종 스포츠계에서 이러한 약물 디자이너들이 상당히 활약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MMA계에도 일부 체육관에서 약물 디자이너를 고용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루머가 나온다. 그릭 잭슨(왼쪽 사진)이 이러한 의심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적인 지도자다.

UFC가 사랑하는 남자  
차엘 소넨

아이 얼라이브!!



가리는 문제를 제기했다.

### 99%의 선수가 사용한다?

마이클 슈벨로는 입식 계통에서는 가장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사람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현재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해 "99%의 선수가 사용한다"고 말한 것이다.

4월 10일, UFC의 김동현도 <스포츠 동아>와 한 인터뷰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현재 UFC에서 활동하는 선수 10명 중 9명은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단지 걸리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오브레임은 운이 없어서 걸렸을 뿐, 이것은 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 자체가 수많은 오브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뉴앙스의 의견을 피력했다.

지금까지 UFC는 불법적인 약물 복용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 발각 즉시 퇴출이라는 공식이 거의 적용됐다. 하지만 차엘 소넨의 경우는 2010년 8월(vs. 앤더슨 실바) 소넨 검사에서 T/E 비율 16.9:1을 기록하며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시 경기가 열린 곳은 캘리포니아주였다. 캘리포니아주 체육위원회는 약물 복용 뿐만 아니라 돈세탁과 위증 혐의가 있던 소넨에게 무기한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NSAC도 이에 동참해 소넨은 공지에 몰렸고, 몇 차례 소송 끝에 출장 정지는 풀렸다. UFC는 출장 정지가 풀리자마자 소넨을 데려갔다. 마치 UFC가 손을 써서 문제를 풀어아가는 것으로 보일 정도였다. 소넨의 사례를 살펴보면 UFC가, '홍행이 되는 선수라면 약물 전과를 눈감아준다는 선례를 남긴 게 아닐까.

4월 11일, 바스 루턴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산토스-오브레임전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는걸?"

하하, 끝내주는군,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

바스 루턴 같은 전문가가 소스 없이 저런 말을 할 리는 없다. 산토스-오브레임전을 강행하겠다는 어떤 조류가 분명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닐까.

4월 12일, 주니오르 도스 산토스는 인터뷰에서 "경기가 열린다면 오브레임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오브레임의 부정행위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매우 흥미로운 상황이다. 경기는 애초에 취소됐어야 순리다. 하지만 UFC는 경기를 되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다. 이에 동조하는 전문가도 있고, 일부 팬 역시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자"고 주문한다. 가장 중요한, 약물 복용자를 상대로 싸우게 되는 챔피언 산토스 역시 "싸울 수 있다"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4월 24일(현지 시간) NSAC의 오브레임 청문회에 달려 있다. 오브레임은 자신의 T/E 비율 수치를 해명해야 한다. 만약 NSAC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라이선스 발급을 거부하며 출장 정지 등의 징계 조치를 가한다면? 경기는 끝이다. 하지만 NSAC가 그 해명을 인정하여 어떤 조정을 거쳐 다른 조건을 부여하고 오브레임이 이 기준을 지키는 조건으로 경기를 재가한다면(아마 경기 전 테스트에서 6:1 혹은 4:1 비율을 맞추는 조건이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경기는 다시 살아난다.

관할권을 가진 NSAC와 대회사 UFC가 힘을 모으면 약물 문제가 있는 선수도, 약물 문제로 무산될 위기의 경기도 살려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UFC가 NSAC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고객이라면, 어떨까? NSAC는 대형 이벤트가 많이 나와야 라이선스 발급과 행정 및 인증 업무로 수익을 낸다. UFC가 NSAC를 통해 네바다 주정부에 지불하는 비용과 세금, 고용 창출 효과 등은 상당할 것이며, NSAC가 소속된 네바다 주정부에서도 은근히 UFC의 편의를 봐주기를 원한다면, 오브로이드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약물에 관한 MMA계 전반과 UFC의 도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결과에 따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산토스-오브레임전은 80% 죽었다고 본다. 하지만 20%의 가능성은 살아 있다. 이토록 화제를 모으면서 이례적인 상황을 유발하는 대전이 또 있을까? 지금 도덕성과 흥행, 성적 향상과 타이틀이 주는 영광, 팬들의 기대와 본인의 양심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오브로이드가 서 있다. ☹

## GUILTY JUICE

### 약물 칵테일

한잔 맡아주세요, 늘 마시던 걸로.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계

난드롤론

효능: 근육 증가 및 강화, 장기간 복용시 근력 및 집중력 향상, 피로 해소

부작용: 심장병, 백내장, 고혈압, 성기능 장애, 쿠싱증후군(얼굴이 동글게 변함), 피부병, 고혈압, 탈모, 여유증 등

단골손님: (야구) 마크 맥과이어, 베리 본즈 (육상) 그리피스 조이너 (축구) 에드가 다비즈, 프랑크 데 보어, 호세프 가르디올라 (UFC) 조쉬 바넷, 호이스 그레이시, 호르헤 오티즈, 선 서크, 카리나 뎀... 너무 많아서 다 적을 수도 없어.

#### 이노제

스피로놀락톤

효과: 이노 작용을 도와 체중 감소

부작용: 여성형 유방, 유방통, 발진 등  
단골손님: (UFC) 티아고 일베스, 2006년 12월 말 토니 테수자에게 이긴 후 도핑 테스트에서 복록남.



#### 진통제

옥시모르폰

효과: 진통 감소, 호흡 원할, 쾌락감

부작용: 중독, 금단 현상

단골손님: (우주대스타) 마이클 잭슨 (UFC) 카로 패리시안은 2009년 1월 김동현에게 이긴 후 도핑 적발, 제임스 어빈은 2008년 앤더슨 실바에게 패한 후 적발, 닉 디아즈, 디에고 산체스(마리화나), 멜빈 길라드(코카인)... 약쟁이 친구 많은!

존나 좋군



###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아냐? 모르나?

흔히 말하는 인공 합성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의 정식 명칭이다. 원래 병약한 환자를 위해 개발됐는데, 근육이 커지고 체력, 집중력을 높여주어 운동선수들이 암암리에 찾아 쓴다. 볼데논, 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드로스타놀론, 플루오사이메스테론, 난드롤론, 에피 트렌볼론, 메타놀론 등이 있다. 남자가 이를 남용하면 여성형 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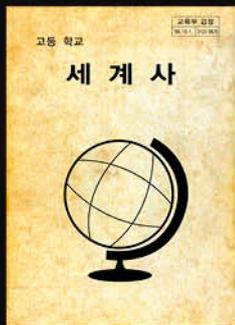
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공격성이 높아지고 흥분을 조절하지 못하며, 살이 찌고 얼굴이 붉는 '달덩이 얼굴' 현상을 겪는다. 유사 당뇨 증상과 소화성궤양, 골다공증, 백내장, 기타 정신병 증상은 덤. 한마디로 잘못하면 X된다. 보약에도 종종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는데, 운동선수들이 모르고 섭취했다가 도핑 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 5.15 스승의 날



선생님 사랑해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보올수록 높아만지네~ 지푸자푸 높아지네, 하얏하얏!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MODELS 2010 MISS MAXIM 최혜연, 조종재, 서현우, 유승민, 원정은  
 HAIR/MAKE UP 이현정  
 ASSISTANTS 손안나, 이진영  
 DESIGN 서운정



8:00 1교시

## 세계사

양귀비 핵심 정리 (楊貴妃, 719 ~ 756)

당나라 현종의 애첩 양귀비는 본래 현종의 며느리다. 서른다섯 살이나 어린 양귀비를 아들에게서 빼앗기 위해 양귀비를 출가시켜 도사로 만든 뒤, 별궁을 만들어 가까이 두고 밤낮없이 그녀를 탐했다. 그러나 양귀비에게 빠져 정치를 등한시하던 현종은 결국 '안록산의 난'을 맞게 되는데, 궁지에 몰린 현종은 양귀비를 요구하는 군사들에게 그녀를 내주고, 양귀비는 군사들에 의해 최후를 맞게 된다. 빼어난 매력과 풍만한 몸매의 소유자였던 양귀비는 고아 출신에서 후궁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결국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다음 시간은 클레오파트라.

안경 케이스워스  
브라 마루 이너웨어  
스커트 탐걸  
구두 슈즈원

여기가  
홍콩이야.

☆BAD STUDENT☆



9:00 2교시



### 미술

르누아르(Pierre Auguste Renoir, 1841~1919)

프랑스 인상파의 대표 화가인 르누아르는 특히 여성의 육체를 묘사하는 데 능했다. 여자의 초상, 나체, 목욕하는 여인을 그린 걸작이 많았다. 특히 붉은색 표현에 뛰어나 근대 최고의 색채 화가로 꼽힌다.



☆BAD STUDENT☆



10:00 3교시



### 체육

#### 세컨드 윈드(Second Wind)

격렬한 운동을 하면 초반에 호흡 곤란, 가슴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상태가 찾아오는데, 이 시점을 사점이라고 한다. 이 사점이 지나면 고통이 줄어들고 호흡이 순조로워지며 심박수가 안정되어 운동을 계속할 의욕이 생겨난다. 이것을 세컨드 윈드라고 한다. 격렬한 운동의 종류에는...

★BAD STUDENT★



전달 사랑  
 수학 문제  
 오늘 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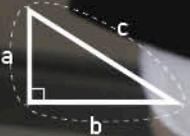
11:00 4교시



수학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 b라 하고 빗변의 길이를 c라 하면  $a^2+b^2=c^2$ 이 성립한다.



☆ BAD STUDENT ☆



13:00 5교시

### 양호 선생님

식곤증이 몰려오는 5교시는  
양호실로 고피 뺏으면 빈 침대가  
없어요.



Q. "그런데 양호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인가요?"

A. X

양호 선생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양호  
선생님이 되려면 간호학과를 들어가서 교직  
과목을 이수한 후, 보건 교사 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보통은 임상에서 간호사로 3년 정도  
실무를 익힌 후 학교로 가니까 양호 선생님은  
간호사인 거죠. 더 좋아?



정신적 쾌락  
주의란? (Epikuros) ← 육체적 쾌락  
의 행복을 위해 감각적 쾌락이나  
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입장  
아타락주의자  
키레네 학파  
SEX  
마약  
떠들대



14:00 6교시

윤리  
쾌락주의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헬레니즘 시대에 접어들면서 공욕주의와 쾌락주의의 두 가지 노력이 등장한다. 특히 쾌락주의에서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학파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키레네학파가 대립하는데, 키레네학파가 추구하는 육체적 쾌락은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이다. 한마디로 섹스를 하고 음주 가무를 즐기며 담배를 피우길 좋아하는 사람은 키레네학파 사상에 기반을 둔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

## 18:00 야간 자율 학습

### 학생주임

#### 학생인권조례 제9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율 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 등 학생 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 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곳은 서울·경기·광주 교육청이다. 교과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각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했다면 야간 자율 학습도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00% REAL!  
0% GURA!

MAXIM  
선정

BEST  
라면

## MAXIM과 누들러가 뽑은 짜장라면 TOP 5

# 나는 네가 블랙데이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솔로인 당신이 외로움에 몸무림 치다 흥대로 밤 빼러 나간 지난 4월 14일 블랙데이 그날 밤, 이대 앞 자취방에서 짜장라면과 입맞추며 블랙데이를 맞은 두 젊은이가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누들러'.  
앞으로 MAXIM과 함께 신랄한 맛 평가로 라면 업계를 뒤흔들 이들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짜장라면'이다. 입가에 묻은 짜장 소스가 한없이 한심하게 느껴지던 그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액으로 가득찬 혈기 왕성한 두 사내는 한참을 면발과 소스를 비비고, 또 비벼댔다. BY 누들러 DESIGN 신숙희



누들러



박스프, 김면발(왼쪽부터)

**김면발** 캡사이신이 잔뜩 들어간 라면을 선호. 좋아하는 라면: 나가사끼. 싫어하는 라면: 치즈 라면. 없는 것: 여자친구. 가진 것: 시간과 정액. 좋아하는 아동 배우: 사토미 슌지.  
**박스프** 달고 안 매운 초딩 입맛을 지향. 하고 싶은 말: "나와 같이 여린 허를 지닌 형제 자매들이여, 김면발의 주장은 다 개소리다. 내 말에 주목하기 바란다."

평가기준

김면발



Fuck! Bad Not Bad Wow Olleh!

박스프



1위

농심 짜파게티



평일엔 안 된다!



WOW OLLEH!

아싸, 일등!



외모

**김면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지만, 붙여본다. 그렇다. 인생은 짧지만 CM송은 길다. 전 국민을 짜파게티 요리사로 만들어버린 짜장라면계의 진로 상담사. 올리브 따위 나지 않는 나라에서 과감하게 올리브까지 첨가하면서 후발 주자들에게 초조함을 선사했다.

**박스프** "일요일엔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라고 그렇게 외쳐대던 고집 있는 녀석. 이 라면 안 먹어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몇 번의 리뉴얼에도 이상아름한 금빛 봉지는 끝까지 고집하는 짜파게티에서는 짐짓 고수의 여유가 느껴진다.

조리 과정



**김면발** 모든 라면에는 저마다 단점이 있게 마련. 하지만 모든 짜장라면류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물 다시 버리다. 집에서 밥 대신 라면 끓여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다고...

**박스프** 설명서에는 물을 600ml 넣고 끓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어차피 물을 조금 남기고 다 버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 물을 얼마나 퍼붓든 상관없잖아. 아무튼 끓는 물에 면과 건더기 스프를 넣은 후 면이 익으면, 물을 8숟가락 정도 남기고 버려야 한다(이게 포인트). 물 양을 지독히 못 맞추는 '물치'인지라 물을 다 버린 후 계량 컵에 물을 8숟가락 퍼서 다시 넣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올리브 유와 분말 스프를 넣고 비벼주자. 침이 고인다.

넌 갖겠어, 허왕허왕~



맛

**김면발** 당신이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아 와서 한글로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라면을 한 번도 안 먹어봤을 리는 없다. 설명해 무엇하리! 잘 끓인 라면 한 봉지 열 파스타 부럽지 않다! 올리브유가 덕지덕지 묻은 면발을 한 입 흡입하면 절로 전효성의 마돈나~돈나~ 춤이 떠오른다. 아야! 그 튀어 오를 듯한 몸짓이란. 양념은 또 어떠한가. 전효성의 사이 보이 안무처럼 달짝지근한 그 맛이랄! 이런 클래식이다. 부단히 리뉴얼을 해온 농심에 박수를 보낸다.

**박스프** 이 세상 어느 중국집에 가도 짜장면은 짜파게티 같은 맛을 내지 않는다. 그렇다. 이것은 짜장맛 라면이 아닌, 그 자체로 고유한 짜파게티다. 기름에 살짝 코팅되어 부드러운 면 넘김! 달콤 짭조름하게 혀를 타고 목젖을 향해 질주하는 탐스러운 소스의 향연! 이쯤 되면 나도 모르게 사춘기 소년처럼 설렌다. 군대에서는 너구리와 함께 짜파구리라는 오묘한 이름으로 변형되어 전해지는, 짜장라면 계의 바이블과 같은 존재.

## 2위 농심 사천 짜파게티



OLLEH! NOT BAD

**김면발** 군 복무 시절, 사천을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오르가즘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가히 멸공의 햇불과도 같은 맛. 두 개를 연달아 먹고, 담배까지 태우고 나면 북한 괴뢰군을 다 휘저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빨간 액상 스프를 면발에 들이붓고 그것을 비빌 때쯤, 모든 시민은 깨닫게 된다. 민주주의가 천천히 도래했듯, 사천의 시대가 점차 열릴 것이라고. 쫄깃한 면발을 목구멍으로 넘길 때 느껴지는 이 매콤한 맛! 마치 전효성에게 빵을 맞은 듯, 환희에 몸이 부르르 떨린다. 하루라도 빨리 짜파게티의 그늘에 가려진 사천의 진면목을 세상에 퍼뜨려야 한다. 유통망 개선이 시급하다. 사나이 가슴을 울리는 건 신라면이 아니라 사천이다.

단언컨대, 모든 짜파게티류의 라면은 사천이라는 완전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박스프**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집 (인연)에는 “더운 여름에 시원한 맥주를 보면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맥주를 못 마신다”는 구절이 나온다. 사천 앞의 내 모습 또한 그러하다. 매콤한 향이 코를 찌를 때면 후루룩 짬짬 면을 들이켜고 싶은 충동이 일렁이지만, 박스프의 혀는 어디디여려서 이처럼 매운맛을 건디기가 쉽지 않다. 매운맛이 들어가면서 짜파게티 특유의 단맛이 줄지만, 군 시절 나 빼고 모든 부대원의 ‘잇(이) 라면’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3위 팔도 공화춘



WOW

**김면발** 분말스프, 건더기, 올리브 오일, 더러는 액상 스프 등이 혼재하는 라면 소스 시장에 일침을 가하는 대마왕 소스. 거의 면과 흡사한 크기의 소스 봉지를 보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숙연해진다. 역시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다. 맛에서도 확실히 짜파게티류와 차별화한 의외의 맛. 맵지 않고 달아 남녀노소 둘러앉아 차이를 거뭇거뭇 물들여도 좋을 듯하다. 면발의 굵기도 제법 안정적. 사천이 당신의 빵을 때리는 양칼진 여자라면, 공화춘은 당신의 빵을 어루만져주는 벚꽃 같은 여자다.

**박스프** 짜파게티의 손길이 험술고 지나간 짜장라면계는 이제 진짜 짜장면 맛에 도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 트렌드의 선두에 있는 라면이 바로 이 공화춘이다. 같은 제조사인 까닭에 팔도 일품 짜장과 비슷한 맛을 보여주지만, 두둑한 소스 인심부터 짜장 특유의 풍미를 고스란히 재현한 점까지, 중국집 배달 짜장면의 훌륭한 대체품이 될 수 있는 아무진 녀석이다.

## 4위 삼양 짜짜로니



NOT BAD

**김면발** 맛있는 라면은 아니다. 적당한 면발, 적당한 흡입력이 있는 양념을 제공한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오래 끓이거나, 적게 끓이면 안 그래도 서러운 블랙데이에 웬 침 뿌리 맛이 나는 라면을 마주하게 된다. 제대로 된 맛을 내려면 마음을 가다듬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야 한다. 본인은 짜짜로니를 끓일 때는 육상 선수의 기록을 측정하는 초시계를 사용한다. 그냥 끓여도 아무나 요리사가 된다는 녀석도 있는데, 짜짜로니는 하ergen 예민하고 바라는 것도 참 많다! 삼양이 소녀시대를 광고 모델로 써서 참는다.

확 북아버린다!



**박스프** 짜짜로니를 두고 비운의 수작이라 평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조리할 때 센 불에서 그녀를 끌어안듯 와락 북아버리는 것이 포인트라고 지적하며, 그들은 “짜짜로니아말로 진정한 짜장라면계의 본좌”라고 말한다. 누들러 역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번번이 요리 실력의 장벽을 느낄 뿐이었다. 누들러가 무슨 에드워드 권인가? 하선정인가? 기동차게 만들어보고 싶어도 주식회사 삼양은 “북아라” 하고 이야기할 뿐이다.

지나친 요리 실력을 요구하는 라면은, 라면이 아니다.

## 5위 오뚜기 북경짜장



BAD

**김면발** 치열한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차별화 전략을 실감할 수 있는 라면. 모두가 올리브유를 택할 때 오뚜기는 과감하게 포도씨유를 선택했다. 그러나 맛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느끼할 뿐이다. 조금의 느끼함에도 소비자들은 경기를 일으키며 예민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조금 느끼해도 괜찮은 건 아동 배우 말곤 이 지구 상에 없다고) 대저 북경의 맛이 무엇인가! 북경에 가본 적이 없으니 확인할 길도 없고... 그저 짜파게티의 아류로 여겨진다.

**박스프** 특정 라면이 좀 잘된다 싶으면 다른 회사들도 부리나케 비슷한 라면을 만들어낸다. 척 봐도 이 역시 그 시류에 편승하려는 라면 중 하나다. 하지만 맛이란 게 복사하기 쉬운가? 맛을 쉽게 복사할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맛집’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짜장라면에 환장하는 박스프지만, 오뚜기 북경짜장을 섭취하고 있노라면 아류라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 이달의 별첨 스프 짜장범벅



네가 나에게 물을 부어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짜장범벅이 되었다. 역시 뭐든지 물을 주어야 하나 보다. 맛은 있지만 이걸 대체 누구 코에 붙이라고 만든 것일까? ‘다이어트용’ 혹은 ‘유아용’이라고 적어야 하지 않을까? 한 줄 평 먹고 있는데 친구가 한입 달라고 하면 때릴 거다.





ICON

KOREAN WARRIOR

# BEN 'SMOOTH' HENDERSON

'전사', '힘', '명예' 그리고 이름 '헨더슨'을 또박또박 한글로 몸에 새기고, 스스로를 '김치파이터'라고 부르며 승리 후 한국어말로 "한국팬들, 사랑해요!"를 외치는 UFC 챔피언 벤 헨더슨. 그를 만나기 위해 MAXIM KOREA가 미국 아리조나 사막으로 날아갔다. 그리고 지열이 펄펄 끓는 벌판에 그를 세워놓고 선인장과 맞짱을 뜨게 했다.

BY 편집장 이영비 PHOTOGRAPH CARTER JUNG RETOUCHING NOVELLA GENELZA DESIGN 전은경 ASSISTANT 이찬영

선인장은 특히  
스탠딩 싸움에 강했다.



챔피언 vs.  
선인장  
승자인?



UFC 라이트급 챔피언

벤 헨더슨

고향: 미국 콜로라도주

생년월일: 1983년 11월 16일

체격: 175cm, 70kg

소속: 글렌데일 MMA LAB

twitter: @SMOOTHone135

챔피언 벨트 2개가 벽에 걸려있었다. WEC와 UFC, 두 대회를 모두 석권한 이 남자의 것이었다. 그가 있다는 미국 아리조나 글렌데일의 MMA LAB에 도착해서 훈련 중인 그를 기다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한국어 인사말이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 챔피언이 서 있었다.

# Champion

## 그 챔피언 벨트는 얼마짜리인가?

대충 듣기로는 9천에서 1만8천 달러 사이쯤 된다는데, 잘 몰라요(한국말로).

## 차엘 소넨이 이베이에서 그 벨트를 샀지?

정말 재밌는 사람이다. 소넨은 정치를 하거나, 부업으로 다른 파이터를 위해 멘트를 써주는 일 같은 걸 해야 해.

## 확장 시절 상당히 따분한 친구였다고?

정확히 표현하자면 아주 조용하고 느긋하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지. 레슬링 연습 아니면 책 읽기... 친구들 다 가는 파티에 가 본 적도 없다. 그래, 솔직히 좀 오덕 기질도 있었다. 하지만 자랑스러워!

## 링 밖에서 싸워본 적이 있나?

난 어른이야. 말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런 일은 없었어. 게다가 술도 안 마시니 싸움이 날 일이 없지. 격투기 하기 전에 딱 한 번, 어릴 때 농구를 하다가 싸운 적이 있긴 하다. 열여섯 살 쯤인가? 친구랑 같이 3명이랑 붙었지. 걔들 3명이 나한테 한꺼번에 덤벼들었어. 그걸 본 친구가 차에서 야구배트를 들고 오니까 다 줄행랑 치더라고. 싸우고 싶던 난 뒤에서 애타게 불렀지. “어딜 가. 가지 마. 돌아 와.” 친구에게 배트를 치우라고 했는데도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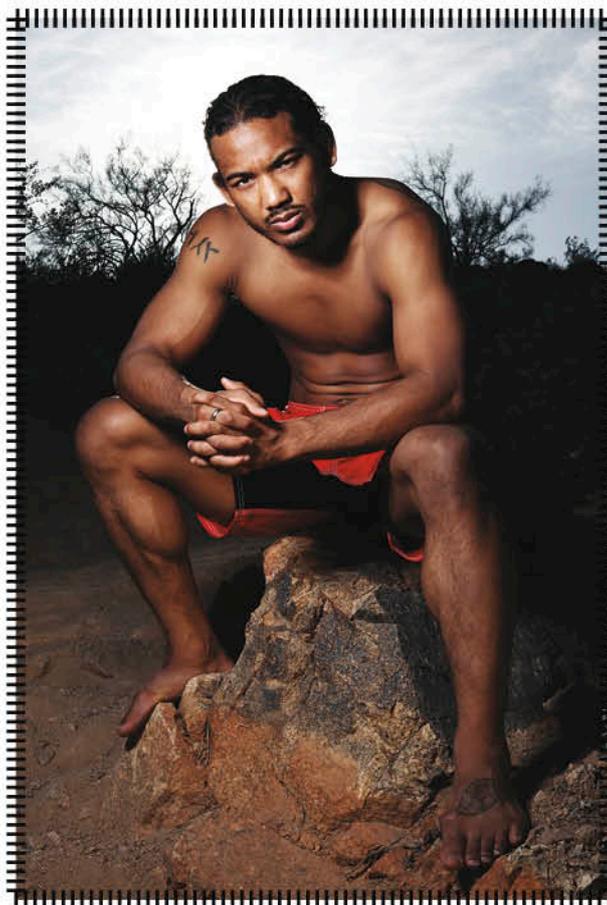
**그런 괴짜 범생이가 어떻게 프로 파이터가 됐지? 덴버 경찰 임용 시험에도 합격했다고 들었다.**

22~23세 때, 한창 어릴 때지. 경쟁을 계속 하고 싶은데, 풋볼이나 농구와는 달리 레슬링은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끝나고 그 다음이 없는 거야. 상위 1%나 올림픽에 나갈까 말까고. 하지만 계속 싸우고 싶었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도 궁금했고, 그러다 경찰관 일을 시작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

## 당신의 첫 경기가 기억 나나?

그날 밤 인생이 바뀌었지. 오마하 시내에 있는 작은 클럽의 아주 작은 스테이지였어. 상대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어. 그땐 격투 훈련도 안 받을

때라 레슬링 기술을 써서 이겼어. 심판이 날 말할 때 의 그 기분은 정말 죽여줬!



## 한국 팬에게 받은 가장 독특한 선물은 뭐지?

많은 선물을 받았다. 태극기도 받고, 굽술머리까지 날 빼다박은 님은 인형을 보내준 팬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격투기는 그런 성원과 사랑이 없으면 하기 힘든 운동이다. 그게 있기에 나가서 얼굴을 얻어맞는 일이 한결 쉽게 느껴지는 거지. 한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해. 내가 잘할수록, 셀수록 한국 팬들이 더 자랑스러워할 테니까 10배는 더 힘이 솟지.

## WEC와 UFC 챔피언 벨트를 차지했다.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W, E와 U, F, 이 두 글자가 다르다는 거? 기본적인

로 같아. 케이지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 룰도, 주최 기관도, 스태프들도 같아. 흔히 WEC가, 상위 경기인 UFC로 올라가기 위한 2부 리그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주파(UFC 주최사)가 프라이드를 포함해 너댓 개 리그를 사서 다 문 닫게 하고 UFC만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지.

## 어디 링걸이 더 예쁘지?

WEC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링걸인 브리튼 필머를 꼽겠어. 같이 있던 여자에 3명은 잘렸더라고. 이유는 몰라. UFC는 아리아나 셀레스티, 찬들러... 하지만 난 WEC 링걸을 꼽겠어!

## 경기 땀 왜 헐렁한 트렁크가 아니고 꼰꼰이를 입는 거지? 멋부리는 건가?

레슬링 덕에 이게 익숙해. 습관이랄까. 한 12세부터 해온거라 테이크다운도, 킥도, 다리짚기를 하기에 꼰꼰이가 편해.

## 경기 중엔 왜 머리에 자꾸 손대나? 헤어스타일에 너무 집착하는 아닌가?

그냥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넘기는 거다. 그래도 구이다(산발을 한 UFC 파이터)보단 낫지 않아? 그쪽은 약간 주정뱅이 같아 보이잖아.

## 프랭키 에드가가 당신에게 지고 나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파이터라면 당연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거다. 건방지거나 오만하고 이기적이란 애긴 아니다. 모든 파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넘친다. 나도 마찬가지고. 에드가는 챔피언이고 벨트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던 자신감 넘치는 파이터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3명의 심판과 그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 키도 더 크고 리치도 더 길어서 유리한 면도 있었지?

아니요(한국말). 키는 내가 큰데 리치는 공식적으로 에드가가 더 길던 걸? 물론 링 위에선 그의 리치가 더 길다는 게 별로 느껴진 않았어.

## 경기 중간에 그에게 로블로를 먹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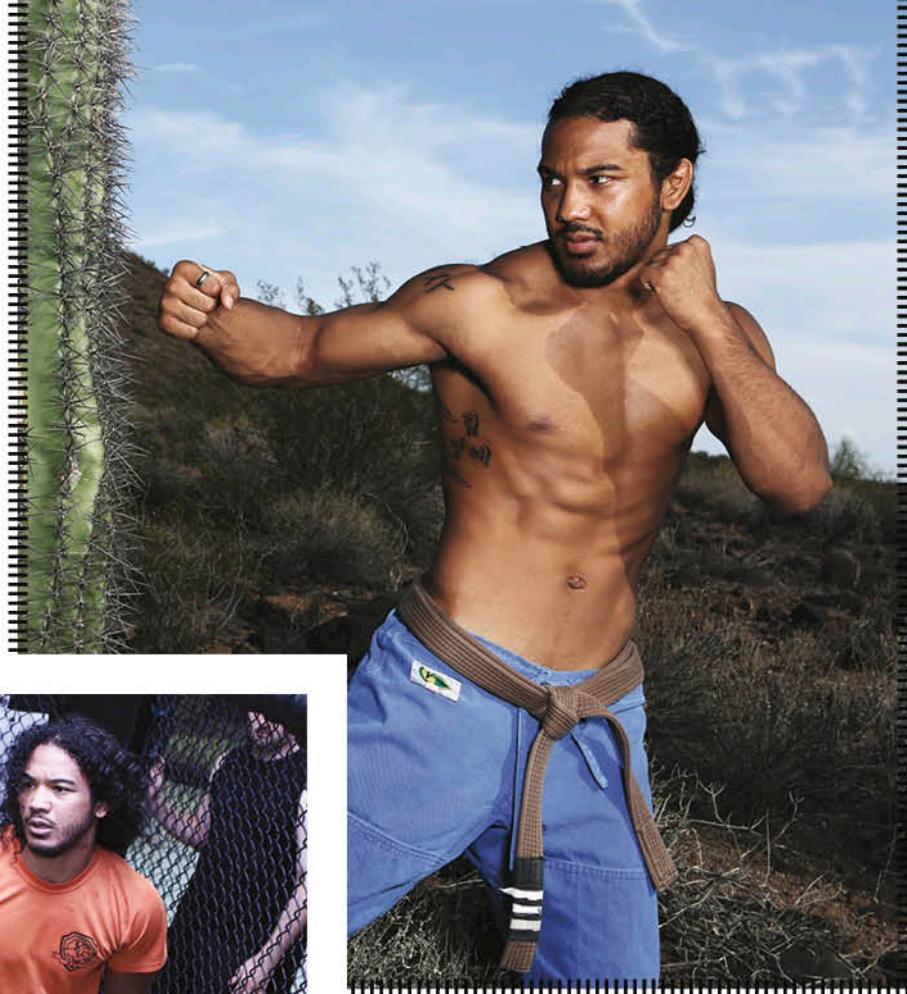
으, 기본 별로였어. 정말 ‘미안’(한국말)했지. 물론 그렇다고 그를 때리는 걸 멈출 정도로 미안하진 않았어(웃음). 하지만 그 고통이 뭔지 알지. 느껴졌어. 썩 좋은 기분은 아니야.

## 승리 후에도 에드가가 당신보다 위라고 평가하는 도박사들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지금? 오~ 흥미로운데. 가만, 가만, 내가 그



이 벨트는 오래도록 여기에 있을 예정이라고.



동안 몇 경기를 했더라. 총 18번이었지? 매 경기 때 마다 언더독이었고 승리를 기대한 사람도 적었어. 하지만 대부분 이겼지. 도박사들이야 자기가 걸고 싶은 데 맘대로 걸겠지만 내 전적을 좀 보고 하라고 해(웃음).

**경기 중에 에드가의 얼굴을 발로 올려한 업킥이 정말 멋졌다. 계산된 거였나?**

그냥 자동 반사였다. 싸울 때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너무 늦는다. 액션에 대한 리액션인 거지. 에드가가 들어오는 걸 보고 얼굴을 차버렸다.

**에드가의 어떤 점이 가장 곤란했나?**

복싱을 정말 잘하고 다람쥐 같이 빨라서 잡기 어려워. 경기 전까지 팀 동료가 그를 모방해서 사물레이션 훈련을 많이 했는데 실전에서 그의 상당히 비슷했지. 에드가 쪽이 훨씬 더 잘하는 버전이란 것만 빼면.

**당신 역시 굉장히 빠르고 놀랍도록 유연하다.**

나와 형 모두 유연한 편이야. 타고난 것 같아. 게다가 난 남들이 파티 가고 술 마실 때 심심할 때마다 스트레칭을 했으니 남보다 더 유연하겠지(웃음).

**체중 감량을 하면 보통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당신은 멀쩡해 보인다. 비밀이라도 있나?**

그런 건 없어. 어릴 때부터 레슬링을 하느라 체중 감소에 익숙해. 남보다 확실히 좋은 점은 심폐 기능이야. 상대가 나보다 크건, 세건, 잘생겼건 내 심폐 기능을 따라올 사람은 없어. 조금은 타고났겠지만 매일 노력하고 훈련한 덕분이지.

**경기 중 상대를 위협하거나 자극하는 액션이나 제스처가 있나? 예를 들어 욕을 한다거나...**

(웃음) 디아즈 형제처럼? 아니. 없다. 디아즈 형제는 경기할 때만 그렇지 평소엔 완전 조용해.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있고 말도 안 하지만 사실 꽤

은 사람들이야.

**당신도 가끔 팔을 아래로 내리고 가드를 푸는 제스처를 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가?**

상대를 자극하는 건 아니고 몸을 약간 털어주는 거야. 춤추는 것처럼 보이지? 물론 어떤 선수들은 가드를 내리고 몸을 앞으로 춤추듯 움직이며 상대를 자극하지.

**앤더슨 실바처럼?**

그는 정말 그걸 잘해 언젠간 나도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안 되겠지? 하지만 언젠가는(웃음).

**타고난 왼손잡이인가?**

원래 오른손잡이인데 레슬링 할 때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는 사우스포야.



“  
링에선 쥘바지가  
움직이기 더 편하다.  
”



존 크라우치(오른쪽)

**빠르고 스마트한 상대와, 강한 한 방이 있는 상대 중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  
후자 쪽이다. 4라운드 내내 우세였다가, 5라운드에 강한 럭키샷 한 방으로 경기가 뒤집힐 수 있으니까. 난 그냥 심판이 손을 들어주지만 하면 다 좋다. 심판이 와서 날 말리면 기분이 더 좋고(웃음).

**프로 경력 중 두 번의 패가 있다. 뭐가 더 뼈아픈가?**  
룩키 존슨과의 경기. 첫 패배였다. 그 이후 더 진지하게 경기에 임하게 됐다. 전까진 '음, 그래, 파이터가 되고 싶어' 정도였는데 이후로는 풀타임 훈련을 위해 네브라스카에서 덴버로 옮기기까지 했다. 자는 기분이 정말 싫고, 다시는 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의 코치인 존 크라우치도 만나게 된 거고.

**그리고 다음 패배가 그 유명한...**  
아, 그래 맞아. 페티스의 쇼타임 킥(페티스가 케이지를 옆으로 차고 올라 공중 옆차기해서 벤이 기절). 사람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 조르주 생피에르(GSP)도 매트 세라에게 KO를 당했었다. 100번 싸우면 99번은 GSP가 이기겠지만, 그 경기에선 1번의 KO를 당한 거지. 앤더슨 실바도 믿을 수 없는 플라잉 가위차기를 맞고 진 적이 있다. 패배에서 중요한 건 거기서 뭘 배우고 어떻게 하느냐다. 페티스의 쇼타임 킥은 그해 ESPN이 꼽은 톱10 경기에 꼽힐 정도였다. 하지만 난 뒤로는 10연승이었다.

**그 킥을 맞을 때 혹시 발이 날아오는 게 보였나?**  
아무도 그런 걸 본 적은 없을 거다. 그가 옆으로 살짝 빠지더니 킥을 날리는데, 순간 '무슨 일이지?' 했다.

**게임 플랜을 고수하나, 즉흥적으로 하는 편인가?**  
마지막으로 내가 즉흥적인 플레이를 한 게 바로 페티스 전이었다. 존 크라우치(코치)가 페티스의 한방을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지. 근데 초반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래플링이나 레슬링보단 스탠딩 공격을 선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어찌 보면 페티스에게 큰 찬스가 되었지.

**한국인 UFC 파이터들과도 친하게 지낸다고 들었다.**  
정찬성, 김동현, 양동민... 다 알고 개인적으로 무척 좋아해. 다들 나이스 가이아. 정찬성은 이제 1, 2번만 이기면 타이틀 도전권을 얻을 거야. 이번 상대 포이리에는 타이틀 도전자 중 수위에 있는 파이터니까. 콘딧과 겨뤘던 김동현도 곧 올라갈 거야.

**한국인의 파워가 서양인보다 상대적으로 약하진 않나?**  
아니. 정찬성을 봐. KO승도 몇 번 있고 7초만에 호미닉을 쓰러뜨렸잖아! 게다가 빠르고 지구력도 좋아. 김동현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뛰어난 그래플러지. 지난 번 한국에 왔을 때 김동현이랑 스파링을 했는데 공격이 상당히 매서웠어. 다음에 한국에 가면 부산에서 같이 트레이닝 해보고 싶어.



**만약 세계 최고의 복서 매니 파퀴아오가 MMA에 데뷔한다면 어떨까?**  
에이, 그는 너무 늙었어(웃음). 최고의 복서지만 이것저것 배울 게 많을 테니 수업료 좀 받고 잘 가르쳐주겠어. 난 그의 열렬한 팬이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난 이제 시작이다. 기대하라. 이 벨트를 난,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생각이니까. 🏆

# Unbelievable! ♦♦



유미) 원피스와 귀고리 금찌  
구두 슈즈원

영미) 골드 원피스 미니멈  
구두 키사  
귀고리와 팔찌 모두 금찌

무대 뒷이야기  
가 궁금해?



# 안영리 · 강유리

믿을 수 없다! 그녀들이 이렇게 예뻐다니!

BY 박함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 UP 고영은 DESIGN 신숙희 ASSISTANTS 조용재 손안나 이진영

COOPERATIONS 비보이 전용극장([www.sjboys.co.kr](http://www.sjboys.co.kr)) 굼찌([www.gumzzi.co.kr](http://www.gumzzi.co.kr)) 탁투유([www.tatou.co.kr](http://www.tatou.co.kr)) 게스 언더웨어 (02-514-0693) 슈즈원(02-3443-1703) 코데즈컴바인 뉴욕(02-2117-7332) 테이트(02-3456-9034) 마루 이너웨어(02-2115-1332) 미니멈(02-3460-9500) 주크(02-543-7764) 키사(02-757-1277) 소다(02-3475-1134)



개그를 벗고 섹시한 '배우'가 되어 촬영한 소감이 어떤가?

(영미) 당신들 진짜 대단하다. 우리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다니... 완벽한 메이크업을 했는데 그냥 집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화가 난다. 클럽이라도 가야 오늘 메이크업에 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영미 씨는 GQ 화보에서 신나게 찍었다는 후문이 들었는데, MAXIM과의 화보 촬영은 피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정말인가?

(영미) 무슨 소리인가? 오히려 그 반대다. 이는 잡지가 몇 개 없는데 그래도 MAXIM은 알고 있다. 그래서 MAXIM과 화보를 찍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MAXIM에서 우리를?" 하며 유미랑 얼마나 좋아했는데!

유미 씨는 촬영 내내 조용했다. 원래 이렇게 조용한 성격인가?

(유미) 난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다.

(영미) 유미는 천상 여자다. 매우 가정적이고 잘 챙겨주는 현모양처 스타일이다. 걸걸한 개그를 하다 보니 본래 성격을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영미 씨는 이번 화보 촬영에서 몸에 문신을 그려 넣었다. 진짜 문신을 한다면 할 새기고 싶나?

(영미) 나만을 위한 글귀를 새길 거다. 그래야 시간이 지나도 창피하지 않지. 세계 평화나, 남자친구 이름 등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타투는 최악이다. 인물을 새긴다면 당연히 간다. 오, 나의 간느님.

화보 촬영을 하는 중간 중간 영미 씨가 욱두문자를 내뱉는 모습에 반했다. 역시 안영미는 케이블이 어울린다.

(영미)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코미디 빅리그>에서 김꽃두레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건 이런 거구나 싶었다. 근데 케이블이라고 해서 다 허용되는 건 아니다. 지금도 심의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웃음)

<무한걸스>에서 '무식 안영미 선생'으로 불린다.

콘셉트인가? 설마 'girl'을 몰라서 틀리진 않았겠지?

(영미) 진짜 몰라서 틀렸다. 그걸 알면서도 웃기려고 그렇게 했다면 난 천재일 거다. 사람이 평소에 안 쓰던 영어나 한문을 시키면 헛갈릴 때가 있다. 그때가 딱 그랬다고! 억울하다.





“  
난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다.  
”

보라색 원피스 테이트  
구두 슈즈원  
목걸이 금찌



남들이 모르는 본인들만의 섹시 포인트가 있나?

(유미) 오래 사귄 남자친구만 볼 수 있는 애교와 여성스러움.

(영미) 자신감. 내가 제일 섹시하고 제일 예쁘다고 자기 최면을 거는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면 보는 분들도 '나름 예쁘데?' 하고 봐주시는 것 같다. 내가 단점을 감추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채더라.

당신을 사로잡았던 남자의 기막힌 접근 방법이 있나?

(영미) 고등학교 때 나를 쫓아다니던 남자애가 있었다. 그 친구가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수업 시간에 피자를 들고 왔다. 피자가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창피함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내게 대시한 그 친구가 기억에 남는다.

(유미) 자기 일에서 유능함을 보이는 모습.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얼핏 얘기할 때 완전히 넘어간다. 근데 그것이 절대 질난 척이어서는 안 되고 정말 '얼핏' 보여야 한다.

〈SNL〉의 장진 감독 같은 사람은 어떤가?

(유미) 장진 감독님은 정말 멋있지만 가끔은 알미운 사람이다. 개그맨들보다 좀 더 선수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영화감독인데 우리보다 웃기고 워트 있는 건 반칙아닌가?

〈SNL〉에서 보여주는 코미디나 콩트가 〈개그콘서트〉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유미) 영화와 연극을 하던 장진감독님이 대부분 아이디어를 낸 거라 개그맨들이 내는 아이디어랑은 많이 다르다. 순간순간 웃기기 위한 개그가 아니라 감수성이 더해진 개그랄까?

안영미 씨가 〈SNL〉에서 보여준 섹시 가상 캐스터 콘셉트는 〈코미디 빅리그〉 김꽃두레랑은 많이 다르다.

(영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상 캐스터의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다. 고향이 부산이라서 부산 날씨만 알려주는 말도 안 되는 캐릭터였는데, 그것도 많이 미미한 것 같아서 가슴이 폭 파인 옷에 도전했다. 거기에 가슴골 모으기를 시전했지.(웃음)

좋은 구경했다. 덕분에 글레머라는 인식이 많아지지 않았나?

(영미) 무슨 소리인가. (손으로 가슴을 모아주며) 진짜 대놓고 이렇게 가슴을 모았는데, 정말 그 어떤 기사에도 '안영미 글레머!' 이런 기사는 없었다. 기자들에게 실망이다.



본인이 글래머라고 생각하는가?

(영미) 지금은 좀 아닌데 예전에는 자부심이 있을 때가 있었다. 지금은 살이 빠져서 남자들이 깔창에 의존하는 것 같은 그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태어났는데 얼굴, 몸매가 김태희다. 그래도 개그우먼을 할 텐가?

(영미) 개그우먼이 아니더라도 무대에는 서고 싶다. 대신 '나는 예쁘니까 여주인공 해야지'는 아니고 개성 있는 조연 역할을 찾아서 할 거다. 나를 재밌게 보고 웃어주는 분들이 좋다. 주인공은 재미없다. 웃기지도 않은데 대사만 많고 말이다.

미미밴드의 출격이 얼마 남지 않았다. UV를 넘어설 비장의 무기가 있나?

(유미) 밴드가 어리고 예쁘다. 그래서 최초로 가수가 뒤에 있고, 밴드가 앞에 있는 무대를 보여줄 예정이다.(웃음)

노래 실력은 어떤가?

(영미) 유미는 목소리 톤도 좋고 노래를 잘한다. 나는 얼마 전 성대 결절을 앓고 목소리가 완전 맛이 갔다. 들어보면 아차 싶을 거다.

얼마나 좌절감을 안겨줄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안영미, 강유미에게 MAXIM이란?

(영미) 위대한 존재.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미)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민폐라니 무슨 소린가! 이제 인터뷰도 끝났으니 소품으로 쓴 맥주나 신나게 탕진하자! 🍷



재킷 주크  
바지 에디터 소장  
구두 슈즈원

유미) 흰색 원피스 금찌  
구두 슈즈원  
팔찌 금찌

영미) 재킷 주크  
망사 롱 에디터 소장  
구두 슈즈원



## 안영미

생년월일 1983년 11월 5일  
데뷔 2004년 KBS 19기  
공채 개그우먼

### 주목하는 개그맨

양세형, 귀엽고 사석에서도  
정말 웃기다.

### 이상형

연예인 중엔 없다. 내가  
남상이라 여성스럽고 귀여운  
남자를 선호한다.



## 강유미

생년월일 1983년 5월 17일  
데뷔 2002년 KBS prime  
(한반도 유머 총집합)

### 주목하는 개그맨

김준현(고~래?)

이상형 김상경

초대형 탐폰 보급품에 놀란 군인들이 모여들고 있다.

거기 누구 있어요?

# FIRE!

## 불량 국가의 전략 무기 스커드 미사일



4월 15일, 기어이 북한은 광명성 3호를 실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김일성 탄생 100들을 맞아 쏜 축포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일으켰다. 비록 2분 15초 만에 로켓포는 공중에서 흩어졌지만, 미사일 전쟁에 대한 공포와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BY 김대영 DESIGN 천은경

### SCUD MISSILE

스커드(Scud)는 냉전 시절 구 소련이 개발해 많은 제 3세계 국가에 판매한 탄도미사일이다. 걸프전 당시 텔 레비전을 통해 스커드 탄도미사일에 의한 피해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맞수였던 패트리엇과 함께 스커드는 걸프전의 스타로 등장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서방에서 개발하지 않은 모든 탄도미사일을 스커드로 부르기도 한다.

### 원래 이름은 스커드가 아니라?

사실 스커드란 이름은 스커드를 개발한 구 소련이 붙인 이름이 아니다. 스커드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에서 명명한 일종의 코드 네임이다.

구 소련이 개발한 R-11 탄도미사일을 NATO에서 SS-1B 스커드A(사정거리 180km)라고 부르면서 처음 스커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R-11 탄도미사일은 마카예브 설계국(Makeyev OKE)이 개발했으며 1957년 구 소련군이 실전에 배치했다. R-11 탄도미사일의 가장 발전된 부분은 로켓엔진이다. R-11 탄도미사일의 로켓엔진은 V-2 탄도미사일의 다중실(Multi-Chamber) 구조보다 훨씬 단순하고, 진동 방지 장치를 채용해 이후 구 소련 우주 로켓엔진이 발전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

### 가자! 세계로!

1961년 개량형인 SS-1C 스커드B 탄도미사일(사정거리 300km)을 시작으로 1965년 SS-1D 스커드C 탄도미사일(사정거리 550km)이 등장한다. 스커드B와 스커드C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인 고폭탄 탄두와 80kt 핵탄두 그리고 화학 탄두를 사용할 수 있다. 1980년에 개발된 스커드D 탄도미사일(사정거리 300km)은 기화폭탄 탄두와 자탄 형식의 탄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스커드 탄도 미사일은 액체 추진 방식의 단발 로켓엔진을 사용한다. 스커드B 탄도미사일은 1970년대부터 총 7,000여 발이 만들어져 생산국인 구 소련을 포함해 32개국이 운용하게 된다. 이밖에 스커드 계열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10여년간 국방 관련 언론 분야

에 종사해온 밀리터리 전문 칼럼니스트, 아미진(ARMYZIN)에서 〈영화 속의 전쟁〉을 기고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며, 월간 〈디펜스 타임스 코리아〉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http://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캘리포니아주 문턴 노랑, 빨강 색연필이 배송 중입니다.

탄도미사일을 바탕으로 복제(?)한 탄도미사일, 사정 거리를 연장한 탄도미사일도 제3세계 국가 사이에서 등장한다. 이런 변종 스커드 탄도미사일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라크의 알 후세인 탄도미사일과 북한의 화성5-6호(스커드 Mod B-C), 노동 탄도미사일이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스커드 탄도미사일인 북한산 화성6호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500km에 달하고, 가격은 400만 달러 전후로 알려져 있다.

### 그곳에 스커드가 있었다

탄도미사일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독일 V-2 탄도미사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세계 최초로 실전에 그 위력을 선보였다. 그러나 V-2 탄도미사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V-2 탄도미사일의 자손 중 하나인 스커드 탄도미사일은 실전 배치와 함께 지금도 전쟁이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낸다. 스커드 탄도미사일은 크기는 이란-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전, 걸프전에서 쓰였고, 작게는 예멘내전 그리고 러시아의 체첸내전에서 사용되어, 크고 작은 전쟁에서 가장 많이 얼굴 도장을 찍은 탄도미사일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가운데 이란-이라크 전쟁에서는 스커드 전쟁으로 불려도 좋을 만큼 많은 스커드 탄도미사일이 쓰였고, 이란과 이라크 양측이 모두 사용했다는 진기록도 나왔다.

### 스커드의 전쟁 = 이란-이라크 전쟁

1980년 9월 22일, 이라크의 이란 침공으로 이란-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라크는 1982년 10월 27일 최초로 이란을 향해 스커드B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란의 테즈풀이라는 곳에 떨어져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다. 1985년까지 이라크는 100여 발의 스커드B 탄도미사일을 이란에 쏘아댔다. 1985년 무기 금수 조치를 당하던 이란은 리비아로부터 소량의 스커드B 탄도미사일을 입수하고, 같은 해 3월 12일 이란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와 키르쿠크에 스커드B 탄도미사일 다발을 선사한다. 반면 이라크가 보유한 스커드B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짧아 내륙에 위치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격할 수 없었다. 이라크는 구 소련에 사정거리가 900km에 달하는 SS-12 스케일보드(Scaleboard) 탄도미사일의 판매를 요구하지만 구 소련이 이를 거부한다. 필요가 발명을 낳고, 발기부전이 비아그라를 낳듯 결국 이라크는 기존 스커드B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결국 사정거리가 1,000km에 달하는 알 후세인을 서방측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더불어 구 소련에서 스커드B 탄도미사일 300여 발을 수입한다. 이에 질세라 이란도 북한으로부터 화성5호 탄도미사일 100여 발을 사들인다. 1988년 이란과 이라크의 스커드 발사 경쟁은 정점에 달한다. 일명 '더 위 오브 더 시티즈'로 알려진 상대방 수도에 대한 스커드 탄도미사일 공격이 시작됐다. 1988년 2월 29일 이라크는 총 189발의 알 후세인 탄도미사일을 테헤란과 이란의 주요 도시에 박았다. 이 과정에서 이란인 2,000여 명이 사망했고 6,000여 명이 다쳤다. 이에 맞서 이란도 화성5호 탄도미사일 77발을 바그다드로 발사한다. 양측의 공격은 같은 해 4월 20일까지 계속됐고, 결과적으로는 이라크의 승리였다. 이란은 이라크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밖에 없었다.

### 쏘기는 쉬우나 잡기는 어렵다

스커드 계열 탄도 미사일 가운데 스커드B 탄도미사일 체계는 1990년대 이후 개발된 탄도미사일의 롤 모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발사 후 신속히 위치를 변경하는(Shoot and Scoot) 능력은 스커드B 탄도미사일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점은 현존하는 많은 탄도미사일 체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기존 스커드A 탄도미사일 체계가 궤도식 발사대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스커드B 탄도미사일 체계는 차륜식 발사대를 쓴다. 미사일 발사대와 발사 차량이 일체화된 발사 체계는 기동성을 높였다. 스커드B 탄도미사일 체계의 이러한 장점은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을 곤욕에 빠뜨리게 했다. 스커드B는 로켓연료 주입과 기상 관측 등 발사를 준비하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리지만, 발사 후 5분 이내에 장비를 정리하고 이동할 수 있다(10분이 지나면 발사 지점에서 8km 거리나 떨어진 지역으로 토질 수 있다). 결국 걸프전 기간 다국적군은 스커드 헌팅(Scud Hunting)이라는 이름 아래 공군과 특수전 전력 상당수를 스커드 잡기에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 많은 꽃아도 정확히 꽃긴 어려워

스커드 탄도미사일 체계는 기동성은 좋은 반면 명중률은 높지 않다. 스커드B 탄도미사일의 원형공산오차(CEP: Circular Error Probability)는 450m로 알려져 있다. 목표물 반경 450m 이내에 쏘아올린 탄두의 절반(50%)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구 소련에서 제작한 스커드B 탄도미사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다. 예를 들어, 이란-이라크전과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사용한 알 후세인 탄도미사일은 원형공산오차가 1km에 달했다. 이러니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고풍탄 두로는 목표물에 피해를 주기가 힘들다. 더 많은 피해를 주기 위해선 핵탄두나 화학 탄두를 쓸 수밖에 없고 군사 시설에 사용한다 해도 결국 시설 주변 민간인의 피해는 더 커진다. ☹

##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 KN-02 독사

KN-02 독사는 2002년 북한이 개발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사정거리는 160km로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탄도미사일에 비해 사정거리가 짧은 편이다. 그러나 휴전선 인근에 배치하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평택과 오산까지 공격할 수 있다. 독사는 구 소련이 개발한 SS-21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참고해 개발한 것이다. SS-21과 동일한 고체 추진 방식을 채용해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발사 속도가 매우 빠르다. 명중률도 높아 우리 군에 가장 위협적인 탄도미사일로 손꼽히고 있다.



### BM-25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2007년 4월 인민군 창건일 기념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됐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사정거리 3,000~5,000km인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무수단은 이란 이름이 북한이 밝힌 공식 명칭은 아니며, 이전의 대포동 미사일처럼 북한의 미사일 기지 지명을 따왔다. 무수단 탄도미사일은 구 소련이 개발한 SS-N-6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사정거리는 3,200km 정도로 알려져 있다.



### KN-08

지난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탄도미사일이다. 이번에 공개된 탄도미사일은 직경 2m, 길이 18m 이상으로, 사거리는 무수단보다 훨씬 긴 5,000~6,000km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또 KN-08 탄도 미사일의 발사 차량은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N-08 탄도미사일은 아직 한 번도 시험 발사한 적이 없어, 실전 배치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



영상을  
보려면  
이 QR  
코드를  
스캔하십시오



“

아무도 모를 걸요,  
지금 내 그곳에 반짝이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요,

”

JENNIFER  
LOVE  
HEWITT



lingerie Nina Ricci  
bolero Chic Little Devil  
(opposite)  
panties Agent Provocateur  
bra top Marlies Dekkers  
jacket Georges Hobeika



당신이 남자로 성장해오면서 즐겼던 당신을 사로잡아온 그녀에 대한 이야기길 해보자.  
일단 뻔한 말로 시작해볼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섹시**하다. (시력 장애가 있는 독자에겐 MAXIM이 깊이 사과하는 바다)  
다음은 새 TV 쇼 <더 클라이언트 리스트(The Client List)>에 대해 얘기해보자.  
**섹스와 스캔들**을 다룬 이 드라마에 그녀가 출연한다. 뭘로? 친근한 옆집 창녀로 말이다!  
자, 마지막으로 -다같이 외쳐요, 여러분!- 그녀는 지금 **싱글**이다!  
MAXIM 팬 여러분, 제군은 지금부터 이 인터뷰를 보고 알게 될 거다.  
왜 당신이 **제니퍼 러브 휴잇**에 대한 러브러브를 멈출 수 없었는지 말이다!



**MAXIM과 벌써 네 번째 촬영이다!**

**이런 영광이!**

그러게 말이다. 난 MAXIM이 정말 좋다. MAXIM은 내가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를 재는 짓대다. 당신들이 전화해서 이제 화보를 찍을 때가 됐다고 할 때마다 “좋았어, 난 지금 섹시하구나!”라고 말한다. 전화가 안 오면 “흠, 운동을 시작해야겠군” 하게 된다.

**오늘 촬영을 감히 'MAXIM 촬영 중 가장 섹시한 화보'라고 불러도 될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모르는 사람 집 뒷마당에서 말 그대로 팬티와 브라만 입고 촬영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말이다.

**훗, 우린 이 집 사람들에게 미리 허락도 받지 않았다. 그냥 들이닥쳤다.**

왜 아니겠나. 그들에게도 내가 속옷만 입고 자기네 마당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건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을 거다.

생각해보라. 여긴 L.A.잖아. 이런 일은 뭐 그리 신기한 일 쪽에도 못 끼는 곳이다.  
맛다.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 특별히 영감을 받은 대상이 있나?**

있다.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들을 정말 좋아한다. 그들은 나에게 한마디로 아름다운 글래머 영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느낌을 좀 내려고 해봤다.

**새 작품 <더 클라이언트 리스트>는 왜 아하다고 들었다. 배경에 대해 설명해달라.**

미인 대회 출신에, 전형적인 미국 텍사스 엄마를 연기한다. 그녀와 남편, 두 아이가 곤경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간다. 그 일터라는 건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다. 대충 어떤 일인지 짐작이 가지?

**매우 적절한 표현이었다.**

고맙다. 이렇게 대놓고 섹슈얼한 캐릭터는 연기해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거다. 게다가 시청자를 위한 좋은 눈요깃거리도 많이 준비되어 있다.

**더 자세히 말해달라. 제발.**

에피소드마다 란제리 쇼가 펼쳐진다. 특히 내가 맡은 배경이. 어머님들이 즐겨보는 어느 드라마와는 확실히 다를 거다.

**당신은 \*`Vagazzalin`의 열혈 지지자다. 그게 뭔지 설명해줄 수 있나?**

\*`Virginia(여자 성기)+Bedazzle(놀랄 정도로 감동적이다)를 합친 말로, 여성의 음부 주변을 장식하는 것. 방수, 자사전 등으로 제니퍼 러브 휴잇이 대중에 퍼뜨린 단어다.

버가젤린은 여자들의 그곳을 작고 화려한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등으로 장식하는 거다. 사실 내가 만든 말이다. 그곳에 진짜 '감동'을 내려주거든.

**아, 무슨 말인지 딱 알겠다.**

여자라서 좋은 점은 아주 사소하지만 예쁜 것들을 자기에게 선물하면서 스스로 특별한 기분이 든다는 거다.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녀도 아무도 내 바지 속에서 반짝이는 나만의 비밀에 대해 모른다는 사실을 은밀하게 즐길 수 있다. 자사전에 그 얘길 쓴 뒤로는 이제 어느 정도 대놓고 얘기하는 편이다. 이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오, 마이 갓. 나도 지금 거길 장식했어요. 보여줄까요?"라고 말을 건다. 그럼 난 "아니, 괜찮아요. 어쨌든 축하해요!"라고 말한다.

**지금도 하고 있나?**

MAXIM 화보 촬영을 위해 아래를 장식하고 왔다.

**이거 완전 대박 이슈다! 그녀지나 얼마 전 베티 화이트의 90번째 생일 파티에 초대됐다고?**

뭐야? 갑자기 거기 장식에서 베티 화이트 이야기로

넘어가다니 이거 너무 부자연스러운 전개잖아.

**어우, 너무 그러지 마라. 분명 \* 베티 화이트와 거기 장식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했을 텐데?**

그래, 베티 화이트 생일 기념으로 90세가 된 그녀의 그곳을 장식해줬다. 하하, 농담, 농담이다. 하지만 그녀의 생일 파티에 간 건 맛다. 아주 재미있었다!

\* 1922년생 원로 할리우드 배우이자 코미디언, 사길 오늘이 호호백발 그녀에게 칭찬했다가 뺨 맞고 "넌 나한테 너무 늙었다"는 굴욕을 당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였다.

**이제 싱겁다. 당신에게 들이대는 작업남이 한 1톤 풀 되나?**

좀 바보 같은 소리지만 남자들이 나한테 작업을 안 건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여하튼 와서 "지금부터 작업 들어갈 거야. 너도 좋아할 걸" 하는 남자가 거의 없다.

**적어도 유지한 작업 멘트에 시달릴 일은 없겠다.**

음, 한번은 오히려 너무 질이 나빠서 인생의 10분이나

그에게 내준 적이 있다. "혹시 아일랜드 사람인가요? 내 거시기는 '더블린'이거든요." 너무 바보 같지만 최소한 재미는 있었다.

\* 여기서 더블린은 아일랜드의 수도이자, 성기가 커졌다(더블링)는 더러운 표현

**신체 중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은 어디가?**

말하기 부끄럽지만 가슴이 가장 맘에 든다. 애들은 날 아주 잘 모신다. 참 착한 애들이다.

**지나친 겸손의 말씀이다.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당신만의 비밀 무기가 있나?**

봉춤, 성적 매력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요리하는 것도 좋아한다. 생각해보니 오븐에서 케이크를 굽는 동안 봉춤을 추면 되겠네!

**와우, 그 비밀무기를 체험한 슈퍼 행운아가 있었나?**

아직 없다. 오직 단 한 명의 남자를 위해 고이 남겨 두었다. 



dress Lloyd Klein (opposite)  
bra Nina Ricci  
skirt Dolce & Gabbana



“

신체에서  
가장 자신있는 부위?  
나의 착한 가슴이다.

”



제니퍼 러브 휴잇

고향: 미국 텍사스 주, 와코

생일: 2월 21일

트위터: @TheReal\_Jlh

방송: 더 클라이언트 리스트





Kiss Story (2F)

성인 컴퓨터·전화·화상 미팅방

옷자  
는  
선  
장  
여성의원 / 손수업전문점

신발박원

# 어른을 위한 PC는



없다.

## MAXIM 에디터의 성인 컴퓨터방 체험기

성인 컴퓨터방 욕하지 마라. 우리는 하드를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는가.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전은경

**(밤)꽃송이가**

**박**은 벚꽃이 한창이지만 마감이 다가옴에 따라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MAXIM에서 일하다 보면 으레 은꼴사를 접하게 되는데, 에디터도 남자인지라 낭심에 흘러들어난 혈류를 주체하기란 쉽지 않다. 만나는 처자도 없고, 그렇다고 일 때문에 만난 거래처 관계자들을 넘어뜨릴 수도 없는 절제된 생활이 계속되었다. 다시 비상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역 앞에 장사진을 치던 성인 컴퓨터방. 각종 불법 성매매 단속과 키스방, 포옹방, 오피스텔 콜에 밀려 지금은 문을 닫은 곳이 적지 않다. 그간 수많은 간판을 지나치면서 '저런 곳에 돈 쓰는 사람도 있나?'라며 애써 외면하던 에디터였다. 최근 중 유매(유홍 매니아)가 많아 사방팔방으로 정보를 수집했지만 "모르겠는데... 그냥 아동 보고 떨치는 데 아닌가?"라는 추측성 의견만 난무할 뿐, 직접 다녀왔다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가격이 얼마인지, 대체 무엇을 하는지, 지식IN에서도 '성인 컴퓨터방은 불법이므로 알려줄 수 없습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다. 에라이, 이 새가슴을 가진 수컷들아! 이렇게 세상 물질 몰라서 OECD 가입국이라고 할 수 있나? 이 한 몸 더럽혀 못 남성의 궁금증을 없애주기로 했다.



**심신이 지친 이들의 쉼터**

**촉**구 유학은 브라질로 가듯이 먼저 유홍의 본고장을 찾아야 했다. 맛있는 음식에 파리가 꼬이듯 노숙자가 많은 역 주변이나 큰 공업도시가 성(性)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배산임수처럼 당연한 이치다. 지하철을 타고 큰 공단이 밀집된 곳을 향해 몸을 실었다. 공업 단지가 번창해 이제는 디지털 단지가 되어버린 곳. 에디터는 직장의 노예가 되어버린 넥타이 부대와 섞여 지하철에서 뿔어져 나왔다. 하나둘 불이 들어오는 네온사인 간판들. 초저녁부터 1차, 2차의 외침이 울려 퍼지는 아왕의 도시에 드디어 입성했다. 개찰구를 나오자마자 키스방, 오피스 걸, 노래방 도우미를 광고하는 전단지까지 여의도 벚꽃처럼 바닥에 흩날렸다. 역시 XY 염색체를 지닌 수컷이라면 하늘하늘한 꽃잎보다는 이런 전단지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법이다.

큰길로 나오자, 온갖 퇴폐 향기가 흘러넘치는 붉은빛 네온사인 간판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장관이 펼쳐졌다. 춘천역 앞에 늘어진 닭갈빗집처럼 서로 자신의 유홍이 원조라며 낮은 건물에서 현란한 불빛을 번쩍거렸다. 구로디지털단지, 여기는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다.



**설레는 발걸음**

**요**즘은 보기 어렵다는 성인 컴퓨터방, 전화방, 휴게텔이 구로 곳곳에 즐비했다. 건물 외관과 간판만 보고 맛집(?)을 찾아야 했다. '어딜 가지?' 20년 인생에서 가장 큰 판단력이 필요한 시점이였다. 결국, 한 간판에 컴퓨터, 전화, 휴게텔 세 가지가 모두 적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입구부터 알 수 없는 묘한 아우라가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중년 남자가 TV를 보고 있었다.

성인 PC방 가격표	
PC 이용 1시간	5,000원
10분 추가 시	1,000원
PC+전화 데이트 1시간	15,000원
10분 추가 시	2,500원
PC+영상 전화 데이트 1시간	25,000원
10분 추가 시	4,500원

※ 요금은 선불이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 후에 지불. 단, 카드 결제는 안 된다.

**에디터:** 안녕하세요. 저 컴퓨터 좀 하려고요.  
**남자:** 컴퓨터만 할 거요?  
**에디터:** 뭐뭐 있는데요?  
**남자:** 이거 보고 마음에 드는 거 하쇼.  
 사장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귀찮다는 듯 TV를 보며 성의 없이 대답했다.

컴퓨터랑 전화는 집에서 할 수 있으니, 과감하게 PC+영상 전화 데이트를 선택했다. "번방으로 가요, 들어가서 바탕화면에 있는 '오마이폰'을 켜요."

**쪼**은 복도를 따라 들어가니 한 평 남짓한 조그만 방이 나왔다. 작은 TV, 컴퓨터, 전화기 두 대, 안락한 의자와 두루마리 휴지(웅?)가 놓여 있었다. 안에서 토막 살인이 일어나도 밖에서 들리지 않을 만큼 방음 시설이 완벽한 독립된 공간이었다.



### 정보의 바다

**자**리에 앉아 비탕화면을 보자마자 탄성이 터져나왔다. 몰카, 에로, 한국, 서양, 일본, 아실, 고전, 애니, 동물 등 취향에 따라 골라볼 수 있도록 비탕화면에 60여 개 폴더가 고이 정리되어 있었다(심지어 4월 첫 주차에 업로드한 따끈한 동영상까지, 하얏하얏). 폴더를 클릭하고 다시 한 번 경악. 한 폴더 안에 대체 얼마만큼의 기능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자료가 들어 있었다. 스크롤바가 줄어드는 게 멈추지 않았다(진짜다). 탐나는 자료 몇 개를 메일로 전송하려 했으나 동영상 외부 유출은 PC 방화벽에 막혀 뜻대로 되지 않았다(젠장).



**주**인 아저씨가 알려준 대로 '오마이폰'을 실행했다.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다. 첫사랑에 고백할 때보다 심장이 더 쿵쿵쿵쿵 뛰었다.

에디터: 여, 여보세요  
 여자: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에디터: 스물일곱 살이요, 그쪽은요?  
 여자: 스물아홉 살요  
 에디터: 에이, 거짓말. 왜 이런 데서 나이 물어보면 다 스물아홉 살이라고 해요?  
 여자: 나 진짜 스물아홉 살인데?

**별** 의미 없는 일상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몇 분이 흘렀을까?(영상 채팅창 옆에 경과 시간이 보인다) 지체할 수 없다는 조바심에 돌직구를 던졌다.

에디터: 가, 가슴 보여줘요! 이런 데 오면 막 옷 벗고 야한 얘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성인 컴퓨터방은 이게 아닌데...  
 여자: (웃음) 그럼 뭘 생각했는데요? 뭐가 하고 싶어요?  
 에디터: 있잖아요, 서로 막... 아무튼 야한 거!  
 여자: (웃음) 학생이예요?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데 오고 그래요. 한창 연애 할 나이에...  
 에디터: 그래요! 젊으니까 좋잖아요. 빨리, 우리 뭐라도 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 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죠?(마음이 급하다)  
 여자: 여기 처음 왔죠? 몸을 보여주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면서 채팅하면 안 돼요.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해요. 다음부터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캡에 얼굴을 보여주지 말고 몸만 비춰요

**친**절한 누나였다. 처음 방문한 에디터를 위해 상냥하게 설명해주었다. 여자는 집에서 캠을 켜놓고 영상 전화를 건다. 돈 벌기 참 쉽네. 전화하는 여성은 대개 30대 초·중반대 아줌마가 많다. "이들은 웬만한 남자는 호구로 알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끌려고 하니 빨리 끊고 다른 사람 전화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녀가 알려줬다. 에디터는 <열혈강호> 한비광처럼 스킬을 빠르게 습득해나갔다. 시간이 흐르자 대화를 하면서 아둥까지 즐기는 여유까지 생겼다.

에디터: 혹시 만나려면 얼마 내야 해요?  
 여자: 왜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죠?(웃음)  
 에디터: 따로 만나려면 돈 내야 하는 거 아니가요?  
 여자: 에이... 여긴 그런 곳 아니에요. 서로 느낌이 맞으면 만나서 차를 한잔

하거나,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거죠  
 에디터: 혹시 그러다 자게 되면 돈 받아요?  
 여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이에요. 데이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들면 자게 될 수도 있...  
 에디터: 그, 그럼 만남시대 사랑합니다.  
 여자: (웃음) 아, 그쪽 하는 짓이 너무 귀엽네요. 그래요. 만나요. 혹시 카톡해요? 친추할게요.  
 에디터: 무슨 카톡이예요. 전화번호를 교환해야지!  
 여자: 전화번호 함부로 알려줬다가 스토키 쯤 하면 어떻게 해요.  
 에디터: 아, 알겠어요. 전 그냥 번호 알려줄게요. 난 당당하니까.

그렇게 그녀와 카톡 친구가 되었다. 뜻밖의 수확인 셈이다. 영상 채팅방의 경과 시간이 40여 분을 가리켰다. '아구는 9회 말부터 성인 컴퓨터방은 45분부터'라는 생각으로 재빨리 또 다른 전화를 연결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캠을 내려 몸 쪽을 비쳤다.  
 편집장님, 성인 컴퓨터방 사용료는 회사에서 대주는 거죠? ☺



### 성인 컴퓨터방 불법? 합법?

성인 컴퓨터방 자체는 법에 문제될 게 없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성인 동영상 시청, 간단한 폰팅, 화상 채팅으로 합법적인 콘텐츠만 제공해 성인들이 쾌적하게 즐길 만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각종 포르노 영상 콘텐츠가 불법 영상으로 이루어졌던가, 전화 통화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이니 주의할 것

# 중독성 PARTY

중독성 파티가 뭔가 싶었던 MAXIM 에디터는  
이 날도 클럽에 출근도장을 찍었다.

BY 김희성 DESIGN 신속희  
PHOTOGRAPH KENZOPIX([www.kenzopix.com](http://www.kenzopix.com))  
COOPERATION 필심닷컴([www.feelsim.com](http://www.feelsim.com))



## ADDICTED TO...

개강의 새 아침이 밝아와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잠, 연애 그리고  
클럽.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불사르겠다며 교복 파티에서  
뽀적지근하게 놀았던 그날 밤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3월 9일,  
또 하나의 파티가 에디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름하야 중독성 파티.  
파티 이름만 들어도 아드레날린이  
짹짹 분비되는 게 느껴지지 않나?



### THE HOTTEST STICKER IN THE WORLD

여걸 파티는 물 좋다는 클럽이 죄다 모여 있는 그곳, 논현동 소재 CLUB LEVEL에서 열렸다. 파티에서는 '중독성 스티커'라는 걸 나눠주고 있었는데, 1, 2, 3단계로 구분한 스티커를 몸에 부착하는 것으로 자신이 허용하는 스킨십 단계를 주위에 알리는 것이다.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않았나? '저 암컷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머리 위에 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 중독성 파티는 그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줬다. 암컷들의 스킨십 허용 범위를 스티커 하나로 알 수 있으니 무턱대고 진도 빼다가 개수레기 같은 놈이라며 욕먹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은개. 아, 평소에도 이런 스티커 붙이고 다니면 안 되나?



**BE THE REDS!**

스티커 레벨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은리 암컷뿐이었다. 남자는 모든 스킨십을 다 허용한다는 LEVEL 3 스티커만 붙일 수 있다는 룰이 존재했다. 하긴 어차피 스티커를 줘도 전부 이거만 붙일 거잖아? 내 전부를 허용한다는 붉은 낙인을 몸 곳곳에 박은 수컷들은 자신들에게로 뺨칠 암컷의 손길을 기다리며 음악에 몸을 맡겼다. 이런 게 진정한 흥취인가 정신 아니겠어?



**LEVEL 1**

“손만 잡을 거예요.”



**LEVEL 2**

“다리까진 괜찮아요.”



**LEVEL 3**

“날 가져요.”





**DJ OF THE DAY:**

**DJ YOP**

안 그래도 신나는 파티를 더욱 더 뜨겁게 만들어준 이날의 DJ는 DJ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DJ YOP. 밴드생활을 오래 하다가 일렉 음악의 매력에 빠져 DJ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그는 한 시절을 주름잡았던 청담동 서울 등에서 활동한 이력답게 클러버들의 몸과 귀를 사로잡는 디제잉 신공을 펼치고 있다.





**NOW IT'S BEGINNING**

이렇게 멋진 파티를 만든 곳은 대체 어디인가 하니 핫한 콘셉트의 파티로 오장육부를 찜찜하게 만드는 필심닷컴 팀의 666팀과 다년간 클럽 파티를 기획해온 에이브로스 팀이 뭉쳐서 만든 새로운 파티 브랜드 '블랙스톡'이었다. 이 파티를 시작으로 전국 투어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전국구 클러버들은 기대하시라! 

뜨거운 파티  
속으로



# HOTTEST SPOT IN JACKPOT CITY LAS VEGAS CLUB MARQUEE

미국 내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클럽 마키에서 MAXIM 에디터는 한국에서 갈고 닦은 셔플 솜씨로 양키들 좀 밝아줬지. BY 이진영 IMAGE 클럽 마키 홈페이지 및 공식 페이스북 DESIGN 신숙희



## VIVA! LAS VEGAS!

“기사 양반, 라스베이거스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클럽이 어디요?”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난 현지인은 모두 “말귀~”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평생 클럽 문전에도 안 가봤을 것 같은 늙스그레한 택시기사마저. 에디터는 생각했다. 음주 광란으로 국위 선양할 절호의 찬스!

## 선수 입장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 마키가 있는 코스모폴리탄 호텔로 향했다. 월요일 밤이었지만 건물 안은 장사진이었다. 세계 최고의 남성잡지 MAXIM의 에디터는 당당하게 VIP 대접을 받으며 마치 그레미 시상식에 참석하는 슈퍼스타처럼 웨이팅 없이 입장했다. 백악관 경호원과 CSI 요원을 합친 듯한 포스의 바운스맨(기도)이 우리에게 미소를 지었다(나도 알아, 임마, 나 이쁜 거). 슬리퍼에 다소 초라한 행색의 남자들은 어김없이 입구에서 가로막혔다. 미

국 클럽도 여자에게만은 한없이 관대했다. 안내 요원이 짙어준 손목 도장을 보여 ‘품질 좋은 돼지고기’가 된 느낌을 곱씹는 것도 잠시, 인내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신나게 놀아요!”를 외쳐대는 안내 요원의 설명이 끝날 무렵,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황홀경이 펼쳐졌다. 다들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슈퍼모델 선발대회라도 열리나!

## IN DA CLUB

들뜬 얼굴로 클럽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눈빛을 주고받으며 광속으로 서로를 스캔했다. 완성도 높은 조명, 내/외부가 완벽하게 분리된 두 개의 클럽 공간, 실외 대형 풀장 주변에 둘러선 다양한 인종의 멋진 남녀. 4월의 밤 파티는 하늘을 지붕 삼아 신나게 몸을 부벼대는 인간들로 빛이 났다. 가터벨트와 망사 스타킹 차림의 여자 스태프들은 가슴과 스타킹에 볼펜을 꽂고 비뺨 움직였다. 지갑을 열어 한 병에 1만 원

이 넘는 ‘그냥 병맥주’를 안젤리나 졸리를 빼다 박은 바텐더에게 주문했다(병맥주는 1달러, 칵테일은 2달러 정도 팁을 얹어주면 된다). 가슴에 팁을 꽂아 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지만 꼭 참았다. 이날 DJ VICE의 선곡은 마약 같았다. 한국 클럽에서도 흐르던 익숙한 음악과 팝 음악을 믹스한 곡도 선보였다. 점점 음악과 술에 취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끈적이는 공기 속에서 에디터는 수컷 흑마, 백마, 황마를 둘러가며 술을 권하고(같이 간 편집장님에게는 마약을 권했다지) 춤을 쳤다. 익숙함과 생소함을 빠른 비트로 넘나들며 느끼는 이도공간의 치명적 매력이라면, 잠깐씩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흐릿함이 밀려왔다. 신나게 춤추다 아이폰을 꺼내 들고 사진을 찍자던 그는 허락도 없이 카메라 앞에서 내게 키스를 퍼부었지만 거부할 이유 따윈 선캄브리아 시대 화석에 낀 먼지만큼도 없었다. 할렐루야!

## 3B FOR MARQUEE

**Buy Ticket:** 신용카드로 티켓을 구입한 뒤 입구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Buy Wristband:**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유롭게 밤낮으로 클럽의 열기를 즐기는 마라톤 티켓을 구매해 광란의 주말을 보내자. 애써가는 안 되고 2세 이상만.

**Bottle Service:** 클럽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방문 일시, 원하는 룸 등을 입력하고 좌석을 예약하면 더욱 신나고 편하게 놀 수 있다. 역시 방을 잡아야...

## FOR DAY WALKER: Dayclub

오전 9시부터 입장이 가능한 데이클럽에서 비키니 차림의 쪽뺨녀들을 만나자. 계절별로 운영.

## FOR NIGHT OWL: Nightclub

월, 화, 목, 금, 토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영업. 단, 남자는 복장 제한이 있고 슬리퍼는 금지다. 가능하면 단추 달린 셔츠를 착용하라. 혹시 알아? 섹시한 여인(아마 만취했겠지만)이 다가와 셔츠를 찢짝 찢어줄지?

# S + STYLE

## Oh(5), 간지!

다섯 개의 라인으로 밑줄 짝~ 

BY 박한빛누리 MODEL 강소라 DESIGN 전은경  
COOPERATION 케이스위스(02-550-5712 www.k-swiss.co.kr)

"여자 친구가  
트레이닝복 입었을 때  
느낌이랑 너무 다르잖아!"



## 갑피 신발의 정석

1966년, 케이스위스는 스위스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테니스 선수 출신인 두 명의 형제에게서 탄생한 브랜드다. 에치젠 료마가 트루스트 서브로 테니스 왕자가 되었고, 두 형제는 스포츠화 시장에서 전설로 남을 최초의 가족 갑피 테니스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내구성 신발의 완전체로 불리는 '클래식' 모델이다. 그들은 이 한 가지 모델로 2,200만 달러를 벌어들여 돈방석에 앉는다. 현재는 피트니스, 바스켓, 러닝 부분으로 제품의 영역을 확대해, 미국 내 세계 10위권 안의 스포츠 브랜드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역시 인생은 한 방이 있어야 한다니까.



### K-SWISS BLADE MAX STABLE

그야말로 러닝화 전성시대다. 심지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할 때 정장에 러닝화를 매치해도 제법 먹히는 패션으로 통하니 말이다. 이 흐름을 놓칠세라 지난해 러닝화 '튜브(TUBE)'로 큰 인기를 얻은 케이스위스가 올해도 야심 찬 녀석을 준비했다. 블레이드 맥스는 충격을 이중으로 흡수하고 뛰어난 반발력을 제공해 더욱 활동성 있게 러닝을 즐길 수 있으며, 쿠션감이 좋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갑피 부분에는 '무재봉 테크놀로지'를 적용, 자칫하면 발이 굽힐 수 있는 재봉선을 없애 편안함을 제공한다. 통기성도 뛰어난 발가락 사이사이로 봄바람이 솔솔 들어오니, 꽃놀이가기에는 이만한 녀석이 없을 거다.

가격 149,000원

# CLEAN UP

## 우리 좀 씻자!

피부 관리의 첫째 조건, 깨끗하게 씻어라

BY 박한빛누리 ILLUSTRATION 전영준 DESIGN 서윤정  
 ASSISTANTS 조홍재, 손안나, 이진영  
 COOPERATIONS 펄사리즈(02-3440-2774)  
 게스트벤(02-882-7171) 뉴트로지나(050-024-1414)  
 엠도씨(080-334-3780) SK-II(080-023-3333)  
 오리진스(02-3440-2830) 시세이도(080-564-7700)  
 우르오스(080-090-5654) 더바다샵(080-759-7700)  
 가스비(02-562-4380) 세타필(080-904-8600)



시세이도  
우노 울트라 블랙 워시

피부에 남아 있는 번들거림을 말끔하게 흡착하는 피지 흡착 파우더 배합으로 피지를 확실하게 씻어낸다. 여드름이 여의도 뺨꽃처럼 화사하게 핀 수컷이라면 숲과 수산화 성분이 들어 있는 이 녀석으로 청춘의 꽃을 가지치기해버리는 건 어때?  
 130g 가격 8,000원



엠도씨  
릴리프 폼클렌징

마법에 걸린 여친만큼 작은 자극에도 뒤집어지는 민감한 피부라면 수지처럼 순한 타입의 릴리프 폼클렌징을 써보자. 캐머마일, 녹차, 위치하젤 추출물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여 피부를 깨끗이 닦아준다. 다른 제품에 비해 세안 후 당기는 느낌이 없는 것도 장점.  
 150g 가격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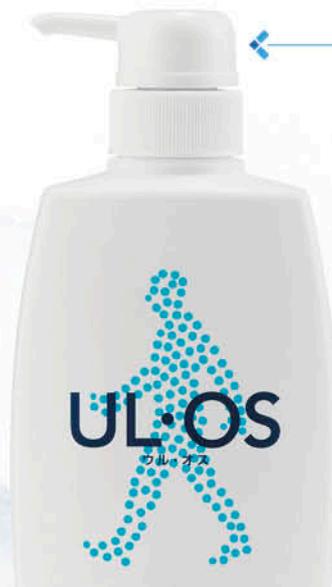
SK-II MEN  
모이스처라이징 클렌저

피지와 박테리아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노폐물이 피부에 쌓이면 모공을 막아 피부 재생을 지연하고 다양한 피부 트러블을 야기한다. 미세한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제거함은 물론, 보습 효과 면에서는 존슨스베이비 로션보다 한 수 위라는 피테라 성분을 함유해 세안 후 로션이 필요 없을 정도.  
 120g 가격 70,000원대



오리진스  
네버 어 덜 모먼트 페이스 폴리셔

파파야 열매, 살구와 망고 씨라는 열대과일 조합이 그럴싸하다. 오리진스는 유기농 제품으로 유명하니 혹여 그라목손(제초제)이 5cc라도 첨가되 들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집어치우자. 사포질하는 느낌으로 주 1~2회 꾸준히 세안하다 보면 물 먹은 원자현 허벅지처럼 촉촉한 피부를 느낄 수 있다.  
 125g 가격 45,000원대



우르오스  
스킨워시

몸에서 풍겨 나오는 독특한 체취 탓에 XX 염색체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수컷에게 희소식이다. 우르오스 스킨워시는 효모, 감즙 발효 추출물로 몸에서 나는 악취 및 땀냄새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 어이구, 삼천리 밖에서 당신 냄새 좀 맡겠다고 입컷들이 줄을 서는구먼!  
 500mL 가격 18,200원

**랩 시리즈  
멀티액션 페이스 워시**

순한 각질 제거 알갱이가 들어 있는 거품이 풍부한 크림 타입 폼 클렌저로 묵은 각질과 피부 표면의 불순물을 씻어내자. 철사같이 굵은 수염 때문에 면도칼만 대도 울긋불긋 트러블이 올라오는 털보 수컷이라면 피부 진정 성분을 함유한 이 녀석으로 면도하기 전 수염을 부드럽게 보듬어보라.

100mL 가격 33,000원



**뉴트로지나  
멘 쿨링 클렌징 젤**

여름을 겨냥한 쿨링 세안제가 늘 그려하듯, 이 녀석도 청량감이 느껴지는 상쾌함이 일품이다. 세안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젖은 얼굴로 인상을 구긴 채 "꽤남!"이라고 외치며 거울을 보고 싶어진다. 다른 쿨링 세안제와 달리 멘톨 향이 은은한 것은 좋으나, 알갱이가 거슬리는 사람에게 는 조금 거부감을 줄지도.

100mL 가격 13,000원대



**더바디샵  
포맨 마카트 페이스 워시**

손에 닿면 부드럽고 미끈미끈한 느낌이 왠지 모르게 거품을 일게 만들고 싶다. 어 지간한 스킨 기죽이는 생기 가득한 멘톨 향이 오늘 밤 클럽에서 이승엽 같은 홈런 왕이 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을 심어준다.

125mL 가격 13,000원



**게스트맨  
클렌징폼 앤 셰이빙 젤 투인원**

클렌징 폼으로 세안한 뒤 다시 셰이빙 폼을 바르고 면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 제품. 투명한 그린 컬러의 젤 덕분에 면도하면서 피부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게 편리하다. 거품형 셰이빙 폼에 익숙하다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적응하면 면도기에 이런 칠떡궁합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150mL 가격 39,000원



**가스비  
오일 클리어 폼**

세안 후 몇 시간도 안 돼서 흘러내리는 개기름 때문에 얼굴이 자체 발광하는 식용유 피부를 가진 수컷을 위한 제품. 피지 흡수 파우더가 세안 후 남아 있는 피지가 지 흡수해 번들거림, 끈적임을 장시간 막아준다. 이젠 개기름마저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되는 건가?

130g 가격 6,500원



**세타필  
젠틀 스킨 클렌저**

첫 사용 시엔 '무언가'를 연상시키는 그 요묘한 질감이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향도 없고 거품도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격노해 휴지통에 처박을 뻔했는데 막상 써보니, 이만큼 순한 보습 제품도 없다. 물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어디서든 그녀의 건조한 피부를 마사지해줄 수 있는 도구로 유용한 제품이다.

473mL 가격 19,000원



STYLE

# 여신을 찾아라!

## - 서울패션위크 편

우리가 서울패션위크에 간 진짜 이유  
BY 김희성 PHOTOGRAPH ARC STUDIO DESIGN 진은경  
ASSISTANTS 이진영, 손안나

〈아이리스〉  
양실장님 맞죠?



이름 펠리체  
나이 4세  
직업 유치원생  
특이사항  
이탈리아계  
한국 남자

이름 김혜진  
나이 37세  
직업 연기자  
여신 포인트 나이를 무색케  
하는 청순함  
MAXIM SAYS "나이는 숫자에 불과  
하다. 누나, 제발 저랑 사귀어 줘요."



이름 위수정  
나이 22세  
직업 디자이너  
이성을 유혹하는 나만의 필살기  
귀여움 떨기  
여신 포인트 포카리스웨트 CF를 연  
상시키는 상큼함. 앞머리를 죄다 쓸  
어올려도 저렇게 예쁠 수 있다니...  
MAXIM SAYS "매일 아침 당신의 똥  
머리를 내가 묶어줄 순 없을까?"



이름 이수정  
나이 21세  
직업 모델  
여신 포인트 고양이 같은 매력  
MAXIM SAYS "남자의 바이커 본능  
을 자극하는 스타일에 끌린다. 여  
수 밤바다를 함께 달려보지 않겠소?"



이름 줄리 웅  
 나이 비밀  
 직업 모델 에이전시 대표이사  
 이성을 유혹하는 나만의 필살기  
 애교  
 여신 포인트 공공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글래머러스함  
**MAXIM SAYS** "근데 왜 나이 숨겨  
 요, 누나?"



이름 최사라  
 나이 27세  
 직업 유치원 영어 교사  
 이성을 유혹하는 나만의 필살기  
 방긋방긋 잘 웃어주기  
 여신 포인트 짤치를 완벽하게 소화  
 한 각선미  
**MAXIM SAYS** "남자 마음 울리는  
 여우미일 것 같다. 그래서 좋다."



이름 박진실  
 나이 20세  
 직업 패션코디학과 학생  
 이성을 유혹하는 나만의 필살기  
 짧은 치마로 섹시미 연출하기  
 여신 포인트 착하고 귀여울 것 같은  
 강아지상 미녀  
**MAXIM SAYS** "언밸런스한 치마 길  
 이가 묘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름 조은별  
 나이 20세  
 직업 모델학과 학생  
 남친 유무 없음  
 여신 포인트 남자들이 싫어하는 호  
 피까지 어여쁘게 소화하는 궁극의  
 청순함  
**MAXIM SAYS** "예쁜 사람은 뭘 입어  
 도 예쁜 법"

# MAXIM BUYER'S EDGE



## 마운틴 하드웨어, 스피노자 재킷 출시!

마운틴 하드웨어는 자체 개발한 핵심 드라이큐 엘리트 소재를 적용해 항상 착용감이 좋은 스피노자 재킷을 출시한다. 재킷 내부에서 발생하는 땀과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특징. 투습성은 물론 방수성이 좋아 늘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다가오는 어버이날, 센스 있는 부모님 스타일 완성하기 프로젝트! 어때요?(등짝 얻어맞을 것만 하지 말고 줘)

가격 650,000원 문의 마운틴 하드웨어([kr.mountainhardwear.com](http://kr.mountainhardwear.com))



## 옴파로스 Summer 화보 캠페인

옴파로스가 그룹 BIA4와 함께 화보를 담았다. BIA4 멤버들이 착용한 모던 헤리티지 감성의 와펜 피케 셔츠는 출시되지마자 리오더를 계획할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다. 더불어 이 피케 셔츠는 깔별로 몇 장 구입한다면 다가오는 여름 내내 우려먹기 딱 좋다. 옴파로스, 아직 안 죽었어?! "바람이고 싶어~ 강물이고 싶어~ 옴~파로스~"

문의 옴파로스([www.omphalos.com](http://www.omphalos.com))



## K-SWISS의 러닝화 블레이드 맥스 스테이블로 폼짝!

건강을 위해 러닝을 계획한다면, 맥스 스테이블 제품과 함께하는 것은 어떨까? 케이스위스(K-SWISS)의 맥스 스테이블 제품은 내구성과 통풍성이 뛰어나 땀 나도록 달려도 당신의 발을 뽕뽕뽕하게 지켜준다. 안쪽에 단단한 소재를 덧대어 발의 흔들림을 잡아주고 발이 휘는 내전 현상을 막아 안전하게 러닝할 수 있게 한다. 또 신발 뒷부분에 붙인 플라스틱 소재는 뒤꿈치 부상을 방지한다. 과학의 결정체, 맥스 스테이블 러닝화로 쾌적한 운동을 즐겨보자.

가격 149,000원 문의 케이스위스([www.k-swiss.co.kr](http://www.k-swiss.co.kr))



## 소녀들의 몸 공격! FX Girl's Body Attack

전 세계 석시한 처자들이 FX 채널을 통해 한국을 습격한다. <걸스 바디 어택>은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등 전 세계의 석시한 TV쇼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1시에 방영한다. 새벽 1시만 이야기는 그만큼 이슬이슬하던 얘기겠지? 5월 7일 첫 방송부터 시수해 '독수공방' 기나긴 우리의 밤을 달래보자. 문의 FX 채널([www.fxchannel.co.kr](http://www.fxchannel.co.kr))

## 세계 최초의 황금빛 맥주도 마시고, 최고의 맛을 유지해주는 전용 잔도 받자!

올해로 탄생 170주년을 맞이한 필스너 우르켈을 4병 이상 구매 시 전용 잔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맥주 전용 잔은 열전도율이 낮아 맥주의 온도 변화를 늦추고 맥주를 따르는 과정에서 적당한 거품을 만들어 빠른 산화를 막는다. 맥주 마니아라고 자부하는 당신에게 최상의 맥주 맛을 선사할 이번 프로모션은 4월 한 달간 진행하니 서두르도록!

문의 사브밀러브랜드코리아(02-3019-6023)





### NEW ERA(뉴에라)의 스포츠 선수 공식 모자, 59FIFTY

92년 전통을 자랑하는 모자 브랜드 뉴에라의 59FIFTY를 한국에서도 만날 수 있다. 59FIFTY는 북미 4대 스포츠인 MLB, NFL, NHL, NBA 리그의 공식 선수용 모자. 1954년에 MLB 선수들을 위해 처음 제작한 이래 현재까지 각 리그의 프로 선수, 유명인과 팬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이다. 뉴에라만의 기술력으로 총 22단계의 공정을 거쳐 숙련된 장인이 제작하는 만큼 최고의 품질을 보증한다. 자체 개발한 건조력과 온도 조절 능력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하고, 다양한 원단과 섬세한 자수를 채택하여 선수와 패셔니스타의 입맛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문의 뉴에라 코리아(070-4411-5950)



### 오이데이(5월 2일)? 그런 것도 있어?

꽃 향기(밤꽃 말고)와 청량한 오이 향이 독특한 헨드릭스 진이 오이데이(5월 2일)를 맞아 '큐럼버 패키지를 국내 200세트 한정 출시한다. 헨드릭스 진 탄생 비화와 칵테일 제조 방법 등이 보틀과 칵테일 잔 받침대와 함께 담겨 있다. 굵직한 오이는 안 들어 있으니 걱정 마라! 가격 57,000원(700ml) 문의 월리엄그랜트앤스즈코리아 (02-2152-1600 www.maltwhisky.co.kr)



### 보닌 더 스타일블루 스타일 피니셔 BB 출시

소지섭 같은 피부를 원하는가? 여기 해답이 있다. 남성 화장품 브랜드 보닌이 출시한 더 스타일 피니셔 BB는 스트레스에 지친 남성의 피부를 생기 있게 가꿔준다. 또한 피부 결점을 커버함은 물론 밝은 피부톤을 유지해 주고 햇기나무 추출물의 사포닌 성분으로 촉촉한 피부로 가꿔준다. BB를 처방 처방했는데 소지섭이 되지 않는다고 좌절은 하지 말자. 재도...다 뺄상하고 메이크업 해서 저렇거...아...  
가격 28,000원(50ml)  
문의 보닌(080-023-7007, www.vonin.co.kr)



### 불끈불끈, 에너지 음료 리차지 에너지

리차지 에너지(Recharge Energy)는 온 가족의 활기찬 하루를 책임질 효자 음료다! 축 처진 당신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하루 종일 집안일에 지친 엄마에게는 음료에 함유된 비타민B가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준다. 수험생에게는 정신 집중에 효과적이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의 피로 해소에도 좋다고 하니 일단 들이켜면 힘이 불끈 솟겠지?  
문의 리차지에너지(02-514-0643, www.rechargeenergy.net)



### 최고의 너버벌 댄스 뮤지컬 쿵~!!

〈비보이 시티 인 서울 쿵〉은 미국 브로드웨이와 싱가포르, 마카오, 필리핀 등 해외 공연에서 호평을 얻은 프로 댄스팀인 고릴라 크루가 출연하는 댄스 뮤지컬이다. 현실의 경제적 어려움과 춤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주인공을 통해 비보이의 꿈과 현실을 잘 담아냈다. 황홀하고 환상적인 퍼포먼스가 쿵 하고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니 심장 단단히 붙들어 매자.  
문의 비보이 시티(www.sjboys.com)



# GIFT LIST



## 독자 사연 상품

여러분의 고민, 애절한 사연을 MAXIM으로 보내라. MAXIM 편집부의 진솔한 고민 상담은 물론 선물까지 쓴다!



맨즈클래식 아이세럼



소유 스킨 소 클린 클렌저



뉴트리지나 맨 클링 클렌징 젤



랩시리즈 멀티액션 페이스워시



BANDAI 삼국전 프라모델

## Beat This Caption 코너에 기동찬 말풍선을 달자!



플뤼에 가죽 태닝제



플뤼에 가죽 방수제



TASK 미용 4종



스웨거 룰 브레이커 샤워젤



살핀 고양이 사인 CD

## 각종 이벤트에 도전하라!



파나소닉 방수 캠코더 HX-WA10



게스트맨 클렌징폼 앤 에이빙 젤 투인원



도쿄 애니 페이 기념품 세트



빈8 반팔 티셔츠



블랙다이아 손목시계



엘리베 손목시계



대니시 디자인 손목시계



〈너와 함께라면〉 티켓

## 정기 구독 상품



과월호 1년 패키지



빈8 언더웨어



마누스 그립



맨즈클래식 더블이펙트 B.C크림

## RANDOM GIFT

MAXIM이 준비한 이달의 선물: T 팬티

MAXIM 모델들이 입었던 T 팬티. 이 대박 상품을 각종 이벤트에 응모한 독자 중 무작위로 한 명을 뽑아 택배로 싸주겠다. (거절은 용납하지 않아. 받으면 어떻게든 일상에 활용해!) 잘 때 입어도 아주 편하고 긴 머리를 묶기에도 유용하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 팬티가 꼭 필요하다 싶은 독자는 독자사연에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도 좋다.



뜨는 머리 누르기



긴 머리 묶기



시력 검사용 안대



간지 나는 핸드폰 줄, 짜잔~!



연극 〈라이어〉 티켓



〈게이 결혼식〉 티켓



# MAXIM 자랑겔

지난 한 달 동안 MAXIM 스태프에게 일어난 일



에디터 이영환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골리앗스러운 광대를 커버하기 위해 안경을 지른 게 자랑. 광대가 더 부각되는 건 안 자랑.



에디터 조용재

**짐승들의 후에**  
워크숍 가서 술김에 춘 2PM 독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게 자랑. 싫어요 13개는 안 자랑.

좋아요 1개, 싫어요 13개



에디터 손안나

**그 많은 뽕은 어디에**  
MAXIM이 촬영에 쓰는 수백 벌의 의상과 액세서리를 드디어 정리한 게 자랑. 촬영용 뽕브라를 슬쩍한 건 안 자랑 (편집장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에디터 이진영

**미국 간 보람**  
미국까지 날아가서 벤 헨더슨과 셀카 찍고 온 게 자랑. 긴장해서 눈 부릅뜬 건 안 자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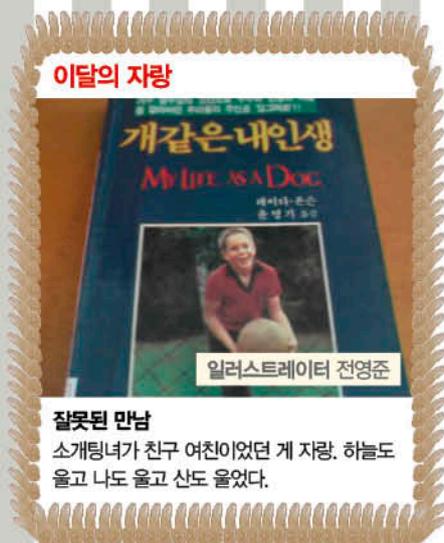
경영지원팀 장선영

**상봉 씨, 나 몰라?**  
패션쇼에서 이상봉 디자이너와 사진 찍은 게 자랑. 도촬인 건 안 자랑.



디자이너 전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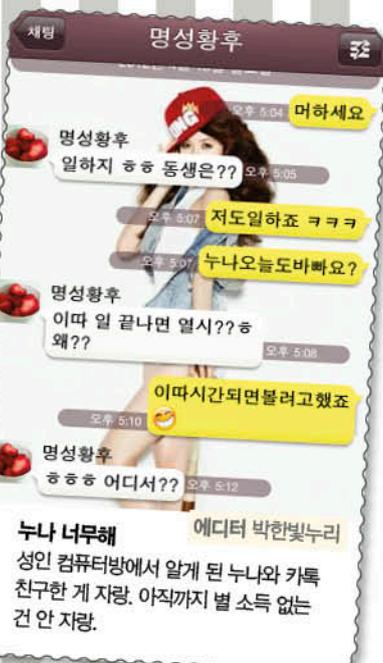
**선배 사랑 후배 마음**  
후배한테 커피 받은 게 자랑. (야 너 혹시 내 커피에 참뽕했...?)



이달의 자랑

일러스트레이터 전영준

**잘못된 만남**  
소개팅녀가 친구 여친이었던 게 자랑. 하늘도 울고 나도 울고 산도 울었다.



채팅 명성황후

명성황후  
일하지 ㅎㅎ 동생은??  
저도일하죠 ㅋㅋㅋ  
누나오늘도바빠요?  
명성황후  
이따 일 끝나면 열시??ㅎ  
왜??  
이따시간되면불러고했죠  
명성황후  
ㅎㅎㅎ 어디서??

**누나 너무해** 에디터 박한빛누리  
성인 컴퓨터방에서 알게 된 누나와 카톡 친구한 게 자랑. 아직까지 별 소득 없는 건 안 자랑.



에디터 김희성

**오빠 너무해!**  
도쿄행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남자 사람이 번호 따간 게 자랑. 아직까지 별 소득 없는 건 안 자랑.



{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습격,  
감당 할 수 있겠어? }



전 세계 섹시걸들의 한국습격  
**걸스 바디 어택**  
5월 7일(월) 밤1시 첫방송

# MAXIM

KOREA

## ICON: BEN HEND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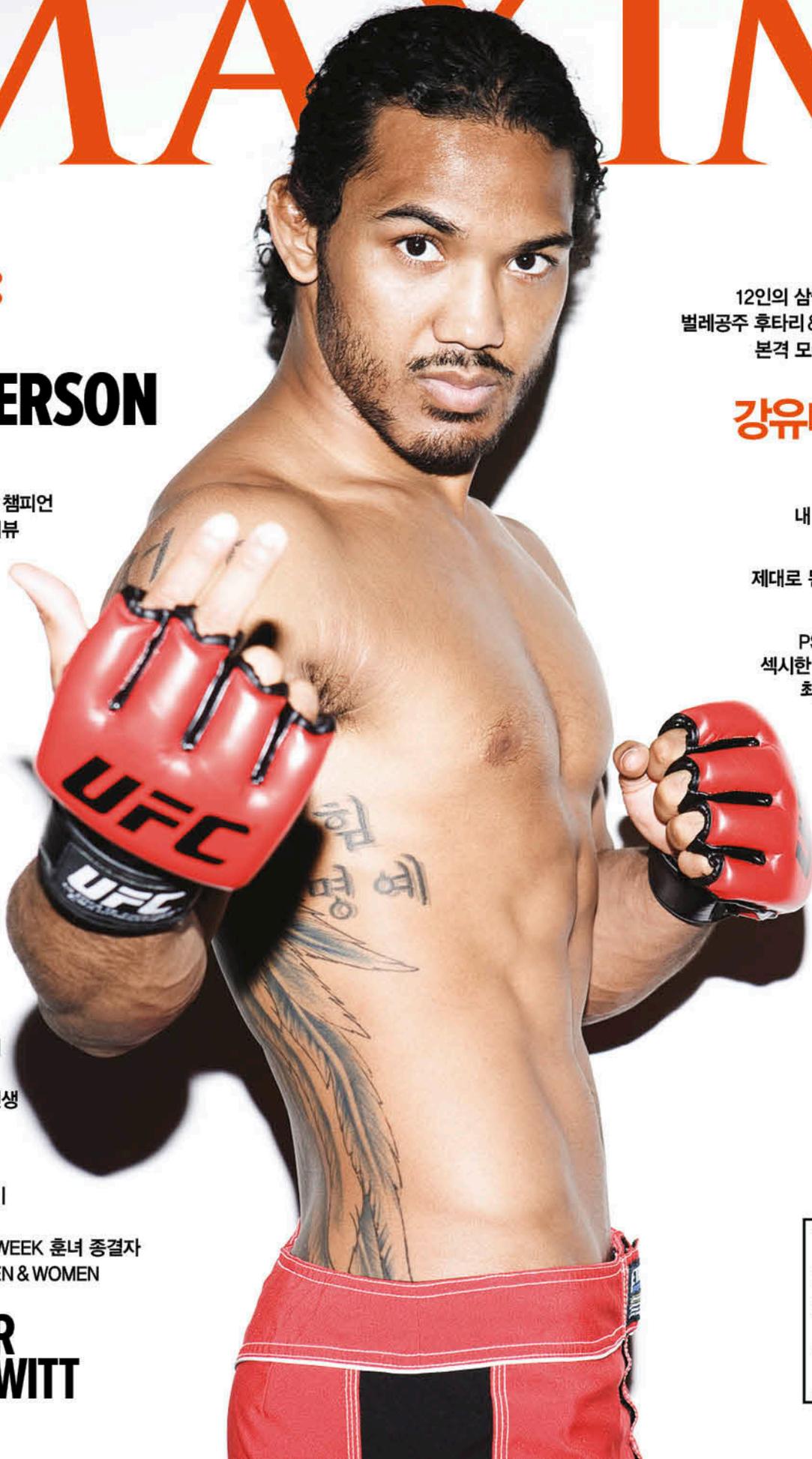
### EXCLUSIVE

최초의 한국계 UFC 챔피언  
벤 헨더슨 독점 인터뷰

표지 모델 된 에디터  
경성대 전지현  
미스 맥심 최혜연 선생  
바비가 만난 지은

짜장라면 국정감사  
성인컴퓨터방 난입기  
죽은 음식 되살리기  
SEOUL FASHION WEEK 훈녀 종결자  
아예 다른 생물: MEN & WOMEN

## JENNIFER LOVE HEWITT



### GAME

12인의 삼국지 속 최강 미인 열전  
벌레공주 후타리 & 투하트 디렉스 플러스  
본격 모에 삼국지! 진 연희몽상

## 강유미 & 안영미

### MILITARY

내 머리 위 스커드 미사일

### TRAVEL

제대로 된 일본 탐방기 PART 2

### STUFF

PS VITA VS. 닌텐도 DS  
섹시한 여름 휴가를 위한 시계  
최홍만보다 큰 아이폰 독

MAY 2012



www.maximkorea.net